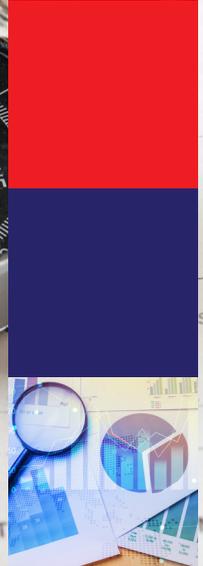




연구보고서 20-22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박정호  
김석환  
정민현  
강부균  
김초롱

세르게이 수트린  
올가 트로피멘코  
이리나 코르군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박정호 · 김석환 · 정민현 · 강부균 · 김초롱 ·  
세르게이 수트린 · 올가 트로피멘코 · 이리나 코르군

연구보고서 20-22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중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780-2 94320  
978-89-322-1072-8(세트)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

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 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소비재·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

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

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용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험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8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 25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 26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 33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 42

        가.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42

        나. 러시아와 미국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48

        다.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51

        라. 러시아와 터키·중동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57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61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러 투자협력** ..... 65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66

        가. 동향 ..... 66

        나. 최근 변화와 특징 ..... 73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77

        가. 최근 동향: 러시아와 주요 신흥국 비교 ..... 77

        나. 주요 특징 ..... 86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88

<b>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b> .....	<b>97</b>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	98
가. 선행연구 요약 .....	98
나. FDI 결정요인과 FDI의 질적·양적 패턴 .....	100
다. FDI 동기: 투자 목적 .....	102
라. 본 장의 목표 .....	105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	106
가. 분석모형 .....	106
나. 데이터 .....	110
다. 실증분석 결과 .....	113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19
 <b>제5장 결론: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b> .....	<b>125</b>
1.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	126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	132
 <b>참고문헌</b> .....	<b>156</b>
 <b>부록</b> .....	<b>174</b>
 <b>Executive Summary</b> .....	<b>189</b>



## 표 차례

표 2-1. 러시아의 기업환경평가 세부항목 순위 변동 현황 .....	32
표 2-2. 러시아의 FDI 자금 유출입 추이(2012~19년) .....	35
표 2-3. 4개국의 러시아 신규사업 수(EY survey) .....	36
표 2-4. 주요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과 연도별 유입액 .....	38
표 2-5. 러시아의 총 해외투자액과 연도별 유출액 .....	39
표 2-6. 분야별 대러시아 FDI 현황 .....	40
표 2-7. 외국자본 참여 기업 수 .....	41
표 2-8. 러시아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ODI) .....	43
표 2-9. 유럽의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	43
표 2-10. 프랑스의 대러 FDI 유·출입액 .....	46
표 2-11. 프랑스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46
표 2-12. 독일의 대러 FDI 유·출입액 .....	47
표 2-13. 독일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48
표 2-14. 미국의 대러 FDI 유·출입액 .....	49
표 2-15. 미국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50
표 2-16. 중국의 대러 FDI 유·출입액 .....	52
표 2-17. 중국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52
표 2-18. 일본의 대러 FDI 유·출입액 .....	53
표 2-19. 일본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54
표 2-20. 싱가포르의 대러 FDI 유·출입액 .....	55
표 2-21.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56
표 2-22. 베트남의 대러 FDI 유·출입액 .....	57
표 2-23. 러시아의 대터키 FDI 유·출입액 .....	58
표 2-24. 터키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	58
표 2-25. 러시아의 대아랍에미리트 FDI 유·출입액 .....	60

표 2-26. 아랍에미리트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60
표 3-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누계)	67
표 3-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실적(누계)	68
표 3-3.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누계 비중	69
표 3-4.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2019년 누계)	71
표 3-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대상국(2019년 누계)	72
표 3-6. 한국의 기간별 주요 지역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별 비중)	73
표 3-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목적 변화(투자금액)	75
표 3-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 변화	76
표 3-9.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투자금액)	78
표 3-10.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별 비중)	79
표 3-11.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금액 및 비중)	82
표 3-1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업종별 투자금액 및 비중)	83
표 3-1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제조업 투자금액 및 비중)	84
표 3-14. 최근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동향	85
표 3-15. 한국기업의 주요 신흥국별 투자수익률	87
표 3-16. 한국의 세계 및 주요 신흥국,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89
표 3-17. 한·러 투자협력 관련 정책환경 및 주요 이슈	93
표 3-18. 한·러 투자협력 관련 논의 현황	94
표 4-1.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분류	110
표 4-2. 변수 정의와 출처	112
표 4-3.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전체 표본)	121

표 4-4.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투자부문별 표본) .....	122
표 4-5.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제조업 기술특성별 표본) .....	123
표 4-6.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기업 규모별 표본) .....	124
표 5-1.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	127
표 5-2.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외국기업의 주요 합작투자 현황 .....	134
표 5-3.	1996~2001년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현황 .....	135
표 5-4.	2000년대 초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주요 생산물 분배협정(PSA) 현황 .....	135
표 5-5.	2019년 러시아 M&A 거래 규모 상위 10건 .....	137
표 5-6.	2019년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대형 M&A .....	140
표 5-7.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러 금융지원 현황 .....	151



## 그림 차례

그림 2-1. 권역별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2012~19년) .....	62
그림 2-2. 권역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2012~19년) .....	63
그림 3-1. 한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실적 추이 .....	66
그림 3-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68
그림 3-3.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금액 기준) .....	71
그림 3-4.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금액) .....	72
그림 3-5. 한국의 기간별 주요 지역 해외직접투자 비중 .....	73
그림 3-6. 한국의 투자자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목적 변화 .....	75
그림 3-7. 한국의 투자자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업종 변화 .....	76
그림 3-8.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금액) .....	78
그림 4-1. FDI 결정요인과 FDI 투자동기 .....	101
그림 5-1. 2018~19년 주요 20개 투자 유치국의 FDI 유입액 .....	128
그림 5-2. 2018~19년 주요 20개 투자국의 FDI 유출액 .....	128
그림 5-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00~19년) .....	130



##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한국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	69
글상자 3-2.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	70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 기준) .....	174
부록 표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설립형태 .....	175
부록 표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투자금액 기준) .....	175
부록 표 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지역별 ·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	176
부록 표 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투자금액 기준) .....	178
부록 표 6.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지역별 ·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 (투자금액 기준) .....	179
부록 표 7.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	181
부록 표 8.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 (투자금액 기준) .....	182
부록 표 9.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 (투자금액 기준) 기타 국가 추가 작성 .....	183
부록 표 10.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 (투자금액 기준) .....	186

# 제1장



#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주지하듯이,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에게 매우 뜻깊은 시기이다. 양국이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다. 1990년 한국정부는 당시 소련(러시아)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독립 초기 혼란과 급격한 체제이행 정책의 부작용으로 1990년대 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는 신흥 공업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덕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촉진되었다. 2000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 힘입어 2008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sup>1)</sup>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기별로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양국은 정치외교(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통상(교역 확대), 사회문화(비자 면제와 인적교류 등)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상호 투자와 다자(남북러 사업 등) 부문에서의 경제협력 추진은 기대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 국제질서의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이른바 4차 산업혁명 도래),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등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고려한 새로운

1)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2008. 9.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6).

형태의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 측면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저유가와 러시아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4년에 최고치(258억 달러)를 기록한 교역량이 2015년(160억 달러)과 2016년(134억 달러)에는 대폭 하락했다.<sup>2)</sup> 2017년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투자 부문을 보더라도,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전무하다시피 하며, 2000년대 본격화되었던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역시 2014년 이후에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3)</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취임 후 4개월 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해 신북방정책을 제안하면서 에너지·철도·항만·조선 등 9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러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고자 했다.<sup>4)</sup>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2018년 6월 러시아 국민 방문 중에 열린 모스크바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 규모 300억 달러, 인적교류 규모 1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였다.<sup>5)</sup>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2020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한·러 수교 30년을 기점으로 2030년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치를 발표하기도 했다.<sup>6)</sup>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현재의 두 나라간 교역 규모를 최소한 3배 이상 늘리겠다는 희망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무역 규모 확대라는 양적 지표가 질적 발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는

---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5. 10).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5. 12).

4)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2017. 9.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5) 「文대통령 “러시아와 2020년 교역액 300억불·인적교류 100만명 달성”」(2018. 6.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6) 「한국, 러시아에 ‘2030년 1천억달러 교역’ 목표 경제협력 제안」(2019. 2.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이 부재하다면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와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를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은 경제성장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두 가지 핵심 사안에서 증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 및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금융 산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추세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 현대화와 산업 다각화를 토대로 천연자원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푸틴 4기(2018~24년)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기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상호 투자를 통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러시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정과제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연합의 결속력 약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에서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푸틴 3기와 4기 러시아 해외투자 동향과 트렌드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 패턴을 전체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의 성격과 흐름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 추진과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과 투자 유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정책 수립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 현황 평가를 토대로 양자간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푸틴 3기와 4기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해외투자 동향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주요국 간의 투자협력 사례를 지역별(유럽지역과 비유럽지역)과 국가별(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아랍에미리트)로 각각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푸틴 3기와 4기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과 트렌드의 핵심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특히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의 주요 투자협력 사례와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투자협력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둘째, 한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트렌드를 고찰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투자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과 러시

아 간의 투자협력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의 투자협력 우선 분야와 주요 특징을 검토했다.

셋째,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다시 말해서 정형화된 기준에 근거해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동기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그 영향을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식별하고자 했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푸틴 3기와 4기 한국과 러시아 간의 투자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차적으로 체계적인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기본 정보를 충분히 확보했다. 둘째,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통계를 분석했다. 셋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해외투자 동인을 도출했다. 넷째, 러시아의 해외투자 분야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에 포함시켜 분석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러시아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먼저 대표적인 국내연구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이재영 등이 작성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연구이다.<sup>7)</sup>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동기와 전략을 분석했다. 둘째, 2015년 이재영 등이 집필

---

7) 이재영 외(2012).

한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이다.<sup>8)</sup> 저자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투자, 지역개발 현황을 평가했다. 셋째, 2013년 김동희가 저술한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이다.<sup>9)</sup> 저자는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성,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동향과 특성을 고찰했다.

한편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이리나 구로바(Ирина Гурова)의 “Факторы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и”이다.<sup>10)</sup> 이 논문은 러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 및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둘째, 2017년 니나 에르쇼바(Nina Ershova)의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nd challenges for foreign business: The case of Japanese companies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들: 일본기업들의 사례)”라는 논문이다.<sup>11)</sup> 이 연구에서 저자는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고찰하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요인을 식별했다. 셋째, 2014년 올가 쿠즈미나(Olga Kuzmina) 등이 작성한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ance quality in Russia(러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와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이다.<sup>12)</sup> 저자는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을 분석했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범위이다. 본 연구는 푸틴 집권 3기와 4기라는 범위 내에서

---

8) 이재영 외(2015).

9) 김동희(2013), pp. 37~65.

10) Гурова(2019), pp. 36-61.

11) Ershova(2017), pp. 151-160.

12) Kuzmina, Volchkova, and Zueva(2014), pp. 874-891.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기 동안의 주요 변수들(크림반도 합병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투자환경 변화, 저유가, 경제 현대화 등)이 러시아의 해외투자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찰했다. 둘째, 연구의 방법이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문헌조사와 통계분석 이외에도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셋째, 연구의 내용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해외투자 트렌드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간 투자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한·러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해외투자 패턴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2장

K

#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는 러시아가 체결한 다자·양자 투자협정과 연방 및 지역별 투자 법률과 투자 정책을 포괄한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서는 투자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러시아공화국 「투자법(1991)」,<sup>13)</sup> 「외국인투자법(1991)」,<sup>14)</sup>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1991)」<sup>15)</sup>과 더불어 러시아연방 헌법(1993)<sup>16)</sup>과 민법(1994)<sup>17)</sup> 등이 제정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자기 자본금을 활용한 재투자 활성화, 투자환경 조성, 정부의 산업시설 및 사회 인프라 투자, 외국인투자 유치 및 투자자 보호제도 등을 정비했다.<sup>18)</sup> 특히 1998년 국가 부도 사태 등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다양한 투자 유치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재와 같은 투자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러시아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는 투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해 대내외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러시아 정부는 2019년 11월 「러시아연방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법(투자 촉진법)」을 발의해<sup>19)</sup> 기존에 시행 중이던 「투자법(1991)」, 「외국인 투자법

13)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СФСР” № 1488-1.

14)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СФСР” № 1545-1.

15) 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ССР № 2302-1.

16)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а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12. 12. 1993 с изменениями, одобренными в ход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1. 7. 2020).

17)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30 ноября 1994 года N 51-ФЗ.

18) “Семилотина Н.Г. Инвестиции и рынок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проблемы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Кабир, Лахметкина, Малофеев(2010), pp. 7-19; Кропотов(2011), pp. 16-23.

19) “В Госдуму вн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1999)』 두 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운영하고,<sup>20)</sup>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투자보호계약)’<sup>21)</sup>을 신규 장치로 도입해 투자제도를 재정비했다. 또한 이 해당 법안은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2020년 4월 발효되었다.<sup>22)</sup> 투자촉진법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제1장 총칙에서 투자활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정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한다. 단 국민의 건강, 인권, 안보, 국방 보호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토지보호와 전략기업, 언론, 자원개발, 정보관리 등의 분야에는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내부적 법률 정비를 거쳐 2020년 4월 기준 러시아가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은 약 70여 개에 이르며, 이를 통해 자국의 해외투자자와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sup>24)</sup>

러시아의 경제개발부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해왔다. 1994년 설립된 외국인투자 자문위원

20) Закон РСФСР от 26 июня 1991 г.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СФСР”; ФЗ от 25 февраля 1999 г. N 39-ФЗ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Ф,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в форме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ФЗ от 9 июля 1999 г. N 160-ФЗ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Ф”; Проект закона № 828243-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Ф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Ф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З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развит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Ф”».

21)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N 828237-7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развит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2) “Инвести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глашений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н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23)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N 828237-7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развит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оощрении и взаимной защит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инвестиций”(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лен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회(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는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53개의 해외기업 회원과 4개의 옵서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sup>25)</sup>

또한 2011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혁신 강화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러시아 전략기획청(ASI: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이 신설되었다.<sup>26)</sup> 주요 업무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 촉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기업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 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지역별 투자환경을 분석해 투자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sup>27)</sup>

2010년에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출범시켰다.<sup>28)</sup> 옴부즈맨은 중소 투자자와 협력해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재판 전 중재 과정을 권장한다. 2011년에는 지역별로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대리인이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29)</sup>

러시아는 이미 2000년부터 최우선 투자 프로젝트<sup>30)</sup>를 운영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기업은 관세 혜택과 더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에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외국인투자 총액이 10억 루블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지분총액이 1억 루블 이상인 경우 최우선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다.

---

25) 53개의 회사 중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Ltd.)가 유일한 한국기업이며, 아시아 기업은 일본 3개사와 인도와 싱가포르 1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기업이 12개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 7사, 프랑스 6사 순이다.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КСИИ), Члены КСИИ 2020 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26)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5).

27)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28) “Над Игорем Шуваловым сгустился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29) “Посредники для дене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30)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1. 2000 N 2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в форме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2005년부터는 생산 현지화를 진행하는 외국기업에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2년 WTO 가입 시 러시아 정부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TRIMs 협정은 해외생산 제품의 차별과 수출입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7월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투자 인센티브 종료를 WTO에 통보한 후 현지화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 현지화 수준을 점수로 수치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 2,000점을 획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최대 6,000점까지 누적 가능하다.<sup>31)</sup>

특별투자계약(SPIC: Special Investment Contract)<sup>32)</sup>이라는 투자 지원 제도도 있다. 이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투자자 3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기간, 선정 방식, 최저 투자금액 제한 등 일부 조건이 변경되면서 진입장벽이 이전보다 낮아졌다. 기존 특별투자계약(SPIC 1.0)은 투자자와 연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변경된 제도(SPIC 2.0)에서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선정 방식도 투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 형식의 경쟁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최저 투자금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특별투자계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기간은 기존 10년에서 투자금액에 따라 500억 루블 이하는 15년, 500억 루블 이상은 최장 20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특별투자계약을 체

31) “Как за 20 лет Россия похоронила старый и построила новый автопром”; “Дорогой автопром: ск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о потратило на поддержание рынка”; “Россия вдвое снизила пошлины на иномарки.”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3).

3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07.2015 № 708 (РЕД. ОТ 1. 8. 2018); № 26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9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ИК”; №26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78 БЮДЖЕТН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결한 해외투자 기업 중 현지생산 조건을 갖춘 기업은 러시아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왔으나, 제도 미비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역간 경쟁 과열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3)</sup> 2005년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이 제도가 정부와 민간기업 간 새로운 협력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별경제구역은 산업경제특구, 기술혁신 경제특구, 항만물류 경제특구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21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운영 중이며, 약 8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별경제구역 입주자에게는 관세·세금 혜택과 인프라 등이 보장되므로 기업의 비용을 약 30%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4)</sup>

러시아는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별로 별도의 법령과 관리기관을 두고 입주 방법, 입주 혜택 등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러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입주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용이하다. 이 산업단지는 러시아 산업단지협회와 지역별 투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다.<sup>35)</sup>

테크노파크는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되었다. 연구기관, 교육기관, 스타트업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법률 지원, 회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테크노파크의 관리는 러시아 디지털개발 통신언론부와 산업통상부에서 총괄하며, 지역정부에서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sup>36)</sup>

---

33) Какаулина(2017), pp. 268-278.

34) Kuznetsov and Kuznetsova(2019), pp. 117-139.

3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12.2014 N 488-ФЗ (ред. от 20. 7. 2020)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8. 2015 N 794 (ред. от. 17. 4. 2018) "Об индустриальных(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ах 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ях индустриальных(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ов."

36) *Ibid.*

혁신클러스터는 첨단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다. 제약, IT, 화학, 농업, 생명공학, 광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 분야는 국제의료클러스터로 따로 분류되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된다.<sup>37)</sup>

러시아 산업단지에는 물류·운송과 토지·건물 임대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복합적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sup>38)</sup>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입주혜택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간 상호협력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를 국가지원 사모펀드로 설립해 해외자금조달을 관리하게 했으며, 러시아의 해외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업무를 이관했다.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5억~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지분율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에너지, 통신, 의료 등의 투자 프로젝트에 총 400억 달러의 장기 외국자본을 유치했다.<sup>39)</sup>

러시아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2012년 183개 국가 중 120위에서 2020년 190국 중 28위<sup>40)</sup>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3기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러시아가 기업 환경평가 순위에서 2015년 50위, 2018년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설정했으나,<sup>41)</sup> 2019년 목표달성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었

---

37) *Ibid.*

38) Миронов(2020), pp. 9-27.

39)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РФПИ)(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6).

40) World Bank(2019), p. 4.

4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5. 2012 г. № 596 «О долгосроч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다.<sup>42)</sup> 현재까지 목표 순위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순위 변동에 반영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대외적으로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간소화, 인·허가 발급 기간 축소 등 국내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43)</sup>

러시아의 ‘기업 환경평가’ 세부항목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sup>44)</sup> 2020년 ‘전기 공급(Getting electricity)’ 항목이 가장 높은 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183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개선된 항목이다. 반면에 2020년 최하위 순위는 99위를 받은 ‘통관 행정(Trading across borders)’ 항목인데, 이 또한 2012년 160위와 비교해 보면 61단계 상승했다. 그 외 ‘창업(Starting a

표 2-1. 러시아의 기업환경평가 세부항목 순위 변동 현황

분야	2012	2015	2020
	순위	순위	순위
창업	111	34	40
건설 인허가	178	156	26
전기공급	183	143	7
재산권 등록	45	12	12
자금조달	98	61	25
투자자 보호	111	100	72
세금부담	105	49	58
통관행정	160	155	99
계약이행	13	14	21
퇴출	60	65	57
종합 순위	120	62	28

주: 1) 2012년 183개국, 2015년 189개국, 2020년 190개국 중 순위임.

2) 2015년과 2020년 순위 변동은 2012년과 비교한 것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 DB 자료(검색일: 2020. 8. 20).

42) “Путин перенес срок попадания России в топ-20 рейтинга Doing Busines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8).

43) Боркова, Буравилина, Сенчило(2014), pp. 9-12.

44) World Bank(2019), p. 4; World Bank(2011), p. 122.

business)’은 2012년 111위에서 2020년 40위, ‘건설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는 178위에서 26위,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은 45위에서 12위, ‘자금조달(Getting credit)’은 98위에서 25위,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는 111위에서 72위, ‘세금부담(Paying taxes)’은 105위에서 58위, ‘퇴출(Resolving insolvency)’은 60위에서 57위로 상승했다. 유일하게 같은 기간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항목만 순위가 하락했는데, 2012년 13위에서 2020년 21위로 8단계 하락했다.

##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액은 2013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4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자금의 흐름이 둔화되었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성향도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전체적인 자금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러시아 투자는 전년대비 약 70% 감소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45) 해당 기간 동안 FDI 유입액의 감소는 러시아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하락과 자국 화폐 가치가 동반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46) 같은 시기 러시아 기업의 해외 투자액도 급감했는데, 이는 국영기업을 비롯한 러시아 대기업의 자금 흐

---

45) UNCTAD(2015), p. 67.

46) *Ibid.*, p. 68.

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제재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기업은 경제제재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고 있으며,<sup>47)</sup> 그로 인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의 누적 FDI는 5,858억 달러다(표 2-4 참고). 본 연구에서는 푸틴 3기와 4기(2012~19년)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연간 투자액을 기준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중동 등 권역별 상위 10개국(한국 포함)을 분류해서 주요 투자국(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아랍에미리트)으로 선정했다.

러시아로 유입된 FDI 누적액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이프러스가 1,799억 달러, 30.7%로 압도적인 1위다.<sup>48)</sup> 사이프러스를 포함한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 상위 10개의 조세피난처<sup>49)</sup>에서 유입된 FDI는 4,193억 달러로 전체 누적액 중 71.6%를 차지한다(표 2-4 참고).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되는 자금의 출처는 러시아에서 유출된 러시아 자금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사이프러스 소재 러시아 자금이 동결되어 FDI 규모가 축소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0)</sup> 그러므로 해외에서 러시아로 유입되는 FDI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유입된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sup>51)</sup> 하지만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피

---

47) World Bank(2016), pp. 20-23.

48)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49) 본 연구에서 상위 10개의 조세회피국가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저지섬, 바하마,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이다.

50) 사이프러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사이프러스 국제 금융 요청 당시 러시아의 자금 비율이 높은 점이 재조명되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사이프러스 은행계좌에 총 31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Russian money in Cyprus: Why is there so much?"; "Российские деньги застряли на Кипре,"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8).

51) Liuhto(2015), p. 6.

표 2-2. 러시아의 FDI 자금 유출입 추이(2012~19년)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	전체	50,588	69,219	22,031	6,853	32,539	28,557	8,785	31,783
	조세피난처	38,381	50,234	13,493	-280	8,785	21,070	-1,121	20,464
	주요국	5,741	22,629	13,493	6,172	20,058	6,993	6,716	8,023
FDI 유출	전체	48,822	86,507	57,082	22,085	22,314	36,757	31,377	22,578
	조세피난처	32,974	71,166	38,640	11,553	15,060	20,698	21,390	15,470
	주요국	9,508	5,776	7,433	3,314	4,434	8,288	6,455	3,641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난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유입된 FDI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UNCTAD는 전 세계 FDI 중 약 30~50% 정도가 ‘중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10여 개 국가들만 자금이 최초로 유출된 국가를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52)</sup> FDI는 최초 자금 발생국가에서 직접 유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외지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각국 중앙은행의 FDI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sup>53)</sup>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러시아 경제제재 이외에도 러시아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2014년 이후 러시아의 FDI 총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 23%는 2019년에 기존 사업에 재투자했을 뿐 아니라, 77%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sup>54)</sup> 세계적인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Ernest &

52) “Where Russia’s Foreign Investment Really Comes Fr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53)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는 이란, 시리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국가와의 상호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2-3. 4개국의 러시아 신규사업 수(EY survey)

(단위: 건)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독일	14	37	42	28	24	36
프랑스	14	20	20	11	13	22
미국	14	29	38	19	33	20
중국	8	12	9	32	19	22
계	50	98	109	90	89	100

자료: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Young)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2018년 러시아에서 33건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해외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sup>55)</sup> 독일기업은 2018년 24건으로 미국에 이어 러시아에서 둘째로 사업 건수가 많았다. 2019년에는 독일기업이 신규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했으며(36건), 그 뒤 프랑스와 중국기업이 각각 22건을 진행했고, 미국기업이 20건으로 4개 국가 중 사업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sup>56)</sup>

러시아 정부는 주요 투자지역인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서 대외 경제관계 다원화에 나섰으며, 신동방정책 추진도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데,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57)</sup>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교역 확대에 비해 상호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ODI)는

54)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55) "США обогнали Китай по числу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56)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57) "Кита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бегут из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1); Сизых(2019), pp. 1-12.

2013년 6억 796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2016년에는 5,677만 달러까지 크게 하락했다.<sup>58)</sup> 러시아의 투자액이 급감한 이유로는 세계 FDI 총액 감소와 개도국 비중 감소,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침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투자 분야는 부동산업과 제조업 등이었으며, 통상적으로 러시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광업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sup>59)</sup>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경제제재 이후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무관하게 러시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이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Gazprom과 원전기업인 Rosatom은 이란, 이라크, 터키 등에서 석유·가스 유전과 원자력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sup>60)</sup> Rosatom은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두바이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 기업에 주식투자를 한 바 있다.<sup>61)</sup>

---

58) Shkvarya, Melanina, and Tyrkba(2018), pp. 1155-1159.

59) *Ibid.*, p. 1157.

60) Sladden *et al.*(2017), p. 7.

61)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РФПИ)(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표 2-4. 주요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과 연도별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누적액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b>전체 국가</b>	50,588	100	69,219	100	22,031	100	6,853	100	32,539	100	28,557	100	8,785	100	31,975	100	585,814	100
<b>조세피난처</b>	38,381	75.9	50,234	72.6	13,493	61.2	(280)	-	8,785	27.0	21,070	73.8	(1,121)	-	20,460	64.4	419,347	71.6
<b>주요 국가</b>	5,695	11.3	3,701	5.3	5,262	23.9	5,061	73.8	19,580	60.2	4,917	17.2	4,194	47.7	3,430	10.7	66,294	11.3
프랑스	1,232	2.4	2,121	3.1	2,224	10.1	1,686	24.6	1,997	6.1	854	3.0	1,134	12.9	2,044	6.4	22,313	3.8
독일	2,265	4.5	335	0.5	349	1.6	1,483	21.6	224	0.7	470	1.6	341	3.9	245	0.8	21,130	3.6
미국	285	0.6	485	0.7	708	3.2	209	3.1	402	1.2	495	1.7	376	4.3	(105)	-	4,889	0.8
중국	450	0.9	597	0.9	1,271	5.8	645	9.4	345	1.1	140	0.5	(13)	-	136	0.4	3,719	0.6
한국	119	0.2	71	0.1	130	0.6	116	1.7	83	0.3	59	0.2	110	1.2	92	0.3	3,665	0.6
일본	596	1.2	369	0.5	295	1.3	447	6.5	140	0.4	83	0.3	345	3.9	116	0.4	2,543	0.4
싱가포르	577	1.1	(502)	-	162	0.7	185	2.7	16,274	50.0	2,703	9.5	1,587	18.1	530	1.7	5,286	0.9
베트남	(26)	-	(29)	-	(42)	-	(32)	-	7	0.0	(61)	-	(128)	-	10	0.0	623	0.1
터키	178	0.4	207	0.3	135	0.6	292	4.3	26	0.1	79	0.3	118	1.3	214	0.7	1,664	0.3
아랍에미리트	19	0.0	49	0.1	29	0.1	28	0.4	82	0.3	94	0.3	324	3.7	148	0.5	464	0.1

주: 1) 조세피난처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저지섬, 바하마,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2020년 1월 1일 누적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임.

2) 괄호 안 숫자는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많은 경우임.

3) 누적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며,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 통계에서 반기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표 2-5. 러시아의 총 해외투자액과 연도별 유출액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투자액	
	투자액	%	투자액	%	투자액	%												
전체 국가	48,822	100	86,507	100	57,082	100	22,085	100	22,314	100	36,757	100	31,377	100	21,923	100	407,318	100
조세피난처	32,974	67.5	71,166	82.3	38,640	67.7	11,553	52.3	15,060	67.5	20,698	56.3	21,390	68.2	15,082	68.8	270,794	66.5
주요 국가	8,876	18.2	4,481	5.2	5,498	9.6	3,753	17.0	3,679	16.5	8,096	22.0	3,830	12.2	1,082	4.9	36,437	8.9
프랑스	1,430	2.9	449	0.5	523	0.9	74	0.3	121	0.5	310	0.8	(65)	-	263	1.2	3,113	0.8
독일	1,118	2.3	1,334	1.5	1,016	1.8	738	3.3	393	1.8	724	2.0	1,078	3.4	1,420	6.5	8,740	2.1
미국	688	1.4	739	0.9	1,654	2.9	819	3.7	873	3.9	126	0.3	653	2.1	(577)	-	6,381	1.6
중국	63	0.1	14	0.0	54	0.1	11	0.0	6	0.0	33	0.1	35	0.1	43	0.2	282	0.1
한국	19	0.0	8	0.0	22	0.0	10	0.0	(7)	-	1	0.0	7	0.0	4	0.0	68	0.0
일본	0	0.0	1	0.0	9	0.0	16	0.1	7	0.0	6	0.0	8	0.0	7	0.0	37	0.0
싱가포르	1,262	2.6	304	0.4	817	1.4	383	1.7	888	4.0	6,136	16.7	1,566	5.0	1,923	8.8	10,828	2.7
베트남	99	0.2	16	0.0	55	0.1	177	0.8	148	0.7	103	0.3	18	0.1	8	0.0	비공개	-
터키	4,105	8.4	1,447	1.7	1,183	2.1	1,475	6.7	1,184	5.3	557	1.5	534	1.7	(2,107)	-	6,029	1.5
아랍에미리트	93	0.2	169	0.2	165	0.3	48	0.2	66	0.3	99	0.3	(4)	-	98	0.4	959	0.2

주: 1) 조세피난처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저지섬, 바하마,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2019년 1월 1일 누적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임.

2) 괄호 안 숫자는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많은 경우임.

3) 총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며,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 통계에서 반기별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러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개의 분야 중 광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등 상위 9개 분야(표 2-6 참고)에 전체 대러시아 FDI의 96.6%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러시아 FDI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자금의 70% 이상이 상위 9개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업 분야의 투자액은 1,322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22.6%를 차지한다. 그중 주요 투자국에서 유입된 자금은 92억 6,000만 달러로 약 7%에 달하며, 조세피난처에서 유입된 자금은 839억 달러로 약 14.3%를 차지한다. 주요국 FDI 총액의 80.8%가 광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상위 4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9.1% 수준에 불과하다.

표 2-6. 분야별 대러시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전체		조세피난처			주요국		
	투자액	비율	투자액(B)	비율	(B/A)	투자액(C)	비율	(C/A)
광업	132,230	22.6	83,943	20.0	14.3	9,260	14.0	7.0
제조업	115,327	19.7	79,013	18.8	13.5	14,509	21.9	12.6
금융 및 보험업	97,993	16.7	62,182	14.8	10.6	8,275	12.5	8.4
도매 및 소매업	88,900	15.2	60,016	14.3	10.2	21,495	32.4	2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994	9.6	29,620	7.1	5.1	1,646	2.5	2.9
부동산업	33,818	5.8	15,871	3.8	2.7	4,052	6.1	12.0
운수 및 창고업	17,341	3.0	8,509	2.0	1.5	480	0.7	2.8
정보통신업	12,588	2.1	8,832	2.1	1.5	429	0.6	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487	2.0	6,839	1.6	1.2	-	-	-
기타	20,135	3.4	-	-	-	-	-	-
총액	585,814(A)	100	419,347	100	71.6	66,294	100	11.3

주: 1) 조세피난처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저지섬, 바하마,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2019년 1월 1일 누적액 기준 상위 10개국임. 주요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총 11개국을 의미함.

2) 2020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앞서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이 실시한 투자 매력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신규 외국인투자 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는 제조업(107건), 홍보·영업(52건), 물류(18건), R&D(8건), 품질보증·유지관리(4건), 교육(2건) 순이다. 2018년에는 IT·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2건으로 최하위 순위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교육 관련 사업이 증가해 순위 변동이 발생했던 것이다. 제조업 분야의 신규 사업은 독일 23건, 중국 13건, 미국 11건이며, 홍보·영업 사업은 프랑스 11건, 미국 7건, 중국과 독일이 각각 6건이다.<sup>62)</sup>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경제제재는 대러시아 FDI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이 2000년 7.4%에서 2018년 4.0%로 감소했다는 점도 해외 투자자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표 2-7 참고). 이런 추세를 보면 해외기업 입장에서 단기간에 러시아 시장의 매력도가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63)</sup>

표 2-7. 외국자본 참여 기업 수

(단위: 천 개, %)

구분	2000년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법인 수	3,346	4,823	4,765	4,562	4,215
외국자본 참여 기업 수	246	197	188	186	169
외국자본 참여 기업 비율	7.4	4.1	3.9	4.1	4.0

자료: 러시아 통계청, DB 자료(검색일: 2020. 7. 25).

62)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0).

63)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ю остановилс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5).

###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 가.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sup>64)65)</sup>

유럽연합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로 투자한 누적 해외직접투자(ODI)는 2,770억 유로이며, 이는 유럽연합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약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의 누적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2조 1,810억 유로, 24.9%), 영국(1조 8,140억 유로, 20.7%), 스위스(1조 150억 유로, 11.6%), 캐나다(3,920억 유로, 4.5%), 브라질(3,120억 유로, 3.6%)의 순이며, 러시아가 그 뒤를 차지한다.<sup>66)</sup>

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ODI) 중 유럽지역의 비중이 가장 크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투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2015년을 제외하고 러시아 해외직접투자(ODI)의 약 60%가량이 유럽지역으로 투자되고 있다.<sup>67)</sup>

또한 유럽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호 투자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이다. 2013년 기준 유럽의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23억 8,700만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4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78.7%나 감소했다. 또한 러시아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도 2013년 119억 8,100만 달러에서 2014년 94억 5,100만 달러로 21.1% 감소했다.

---

64) 유럽지역은 유럽연합(EU)(27개국과 영국)과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총 31개국이다. 그중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세피난처로 분류된다.

65) 유럽(Eurostat)과 러시아(CBR)의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집계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가별로 자금이동을 신고하는 방식과 집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기관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66) Eurostat, DB 자료(검색일: 2020. 7. 13).

67)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표 2-8. 러시아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ODI)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럽지역 31개국 (조세피난처 포함)	32,513	18,169	35,833	9,503	12,554	23,912	23,056	21,243
유럽지역 25개국 (조세피난처 제외)	8,779	11,981	9,451	3,715	2,388	8,340	5,315	5,176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표 2-9. 유럽의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럽 31개국 (조세피난처 포함)	41,107	59,506	10,284	-7,727	4,587	16,658	2,075	22,473
유럽 25개국 (조세피난처 제외)	7,691	22,387	4,770	4,514	5,726	3,587	6,877	7,949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유럽지역의 대러시아 누적 FDI는 2020년 1월 1일 기준 3,417억 7,500만 달러로, 러시아 내 전체 FDI 누적액 5,858억 1,400만 달러 중 58.3%에 해당된다.<sup>68)</sup> 앞서 살펴봤듯이 유럽과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경제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2014년 제재 부과 이전에 시작했던 사업은 일부 진행 중이다. 일례로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가스프롬네프트(Gazpromneft)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셸(Shell)은 2003년에 살림석유개발 합작회사(Salym Petroleum Development N.V.)를 설립해 러시아 한티만시자치주에 위치한 유전개발 사업을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다.<sup>69)</sup> 또한 2019년 Gazpromneft, Shell과 스페인의 거대 석유가스기업인 Repsol(렘솔) 3사는 러시아 튜멘주의 야말로-네네츠자치주에 위치한 유전 탐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sup>70)</sup> 이

68)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69) “«Газпром нефть» и Shell создают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для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в ЯНАО,”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와 같이 러시아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석유기업간의 협력은 제재 국면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경제제재를 부과한 이후, 러시아도 농산물, 식품 분야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럽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무역장벽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대러시아 신규 투자방안을 모색했으며, 일부 유럽기업은 생산시설을 러시아로 이전하기도 했다. 일례로 핀란드의 유제품 기업인 발리오(Valio)는 2014~15년에 유제품 생산 라인을 러시아로 옮겼다.<sup>71)</sup> 유럽기업은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생산라인 가동, 기존 생산라인 확장, 러시아 법인의 지분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1992년부터 2014년 경제제재 부과 이전까지 러시아에 24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으나, 2014년 러시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72)</sup> 그동안 EBRD는 농업, 인프라 개발, 금융업 분야 등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으며, 2014년까지 약 800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유럽투자은행(EIB)도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에 약 16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이는 에너지,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분야에 집중되었다.<sup>73)</sup>

## 1) 프랑스

프랑스의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23억 1,300만 달러이며(표 2-11 참고), 같은 기간 러시아가 프랑스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31억 1,300만 달러다(표 2-5 참고). 프랑스의 대러시아 FDI

---

70) “Газпром нефть создает новый кластер на Гыдане. Вместе с Repsol и Shell,”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0).

71) “Valio продолжит выпускать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в России”; “Valio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ить йогурты и творог в Подмоскowie на заводе Ehrmann,”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0).

72) “Европейски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Дось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1).

73) “Европа готовит санкции: чем грозит России заморозка проектов ЕБРР,”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21).

는 2014년 22억 2,4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7년 8억 5,400만 달러까지 감소했으나, 2018년 다시 반등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프랑스 해외직접투자(ODI)는 2012년 14억 3,0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2015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진행하는 사우스스트림 사업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일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토탈(Total)은 2014년 상반기에 한티만시자치주에 위치한 3개 구역의 사업권을 매입해 루코일(Lukoil)과 함께 고위험 석유 시추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경제제재로 인해 사업권을 포기했다. Total은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2018년 10월 Total은 엔진오일 생산 공장을 칼루가주에 설립했으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는 약 30억 루블(약 430억 원)이다.<sup>74)</sup> 게다가 제재 국면에서도 Total은 중국기업과 함께 야말 LNG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sup>75)</sup>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연관된 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제재 대상도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제재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의 프랑스 기업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sup>76)</sup> 또한 프랑스 기업은 러시아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러시아 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 르노(Renault)는 러시아 자동차기업 우아즈(Auto UAZ)와 함께 라다(Lada), 닛산(Nissan), 르노(Renault), 미쓰비시(Mitsubishi)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년간 700억 달러를 생산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77)</sup> 이밖에도 프랑스의 고속철 테제베를 생산하는 알스툼

74) AEB(2019), pp. 1-3.

75) “Размер француз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достиг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76) *Ibid.*

77) “«АвтоВАЗ» и альянс Renault-Nissan-Mitsubishi готов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70 млрд рубле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표 2-10. 프랑스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1,232	2,121	2,224	1,686	1,997	854	1,134	1,816
FDI 유출액	1,430	449	523	74	121	310	-65	263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Alstom)은 2018년 러시아 최대의 기관차 및 철도 장비 제조업체인 트랜스마쉬홀딩(Transmashholding) 및 철도차량 부품 정비기업인 로코테크(LokoTech)와 합병을 진행했다.<sup>78)</sup>

프랑스의 분야별 대러시아 FDI는 도매 및 소매업(55.45%), 광업(20.43%), 금융 및 보험업(11.22%), 제조업(7.54%), 부동산업(2.2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에너지 분야는 정보공개가 제한적이고, 해외 자회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투자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2-11. 프랑스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프랑스	
	투자액	비중
도매 및 소매업	12,372	55.45
광업	4,560	20.43
금융 및 보험업	2,503	11.22
제조업	1,682	7.54
부동산업	508	2.27
누적 투자액	22,313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78) “Россия: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окращаются, компании остаютс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 2) 독일

독일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11억 3,000만 달러이며(표 2-13 참고),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독일 누적 투자액은 87억 4,000만 달러다(표 2-5 참고). 독일의 대러시아 FDI는 2012년 22억 6,5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2013년 급감한 뒤 2015년 14억 8,300만 달러로 반등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러시아의 대독일 해외집적투자(ODI)는 2016년 3억 9,300만 달러로 최저점을 나타냈으나, 2019년에는 14억 2,0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표 2-12 참고). 로스네프트(Rosneft)와 가즈프롬(Gazprom)이 러시아 대독일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IT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은 노르드스트림-1, 2 사업의 진행과 여타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독일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에 러시아의 대독일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79)</sup>

표 2-12. 독일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2,265	335	349	1,483	224	470	341	245
FDI 유출액	1,118	1,334	1,016	738	393	724	1,078	1,42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 26).

독일의 러시아 내 분야별 FDI는 제조업(35.26%), 도매 및 소매업(28.70%), 금융 및 보험업(10.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33%), 부동산업(3.6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79) "Rosneft Plans Almost \$700 Million Investment in German Downstream Asse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1).

표 2-13. 독일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독일	
	투자액	비중
제조업	7,449	35.26
도매 및 소매업	6,064	28.70
금융 및 보험업	2,278	10.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15	4.33
부동산업	775	3.67
누적 투자액	21,130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독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은 자동차 생산을 꼽을 수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는 2017년 2월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주에 소형차 조립 공장 설립에 대한 특별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독일의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헨켈(Henkel)은 러시아 페름주에 세제 생산공장과 물류라인을 확장했다.<sup>80)</sup> 독일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에 발맞춰 러시아산 원자재 사용을 늘리고 러시아 내 생산라인을 확장함으로써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특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나. 러시아와 미국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미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48억 8,900만 달러이며(표 2-15), 2014년 7억 8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국 해외직접투자(ODI) 누적액은 63억 8,100만 달러(표 2-5 참고)였으며, 2014년 16억 5,4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

80) “Компания Henkel в Перми намерена расшир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Henkel расшил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на заводе в Перми,”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0).

하고 있다(표 2-14 참고). 러시아의 로스네프트(Rosneft)는 미국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운용하는 석유거래 사업을 인수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로 인해 중단되었다.<sup>81)</sup> 모건 스탠리의 석유거래 사업을 인수하게 되었다면 모건 스탠리 소속 유조선의 49%가 Rosneft 소속으로 편입될 계획이었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680여 개의 개인, 법인, 선박, 항공 등이 제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sup>82)</sup> 미국 재무부의 제재와 더불어 미국의 상무부도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 허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국방, 민간 물자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390억 달러로 앞서의 누적실적 통계에 비해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러시아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sup>83)</sup>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 자금의 최종 유입국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UNCTAD는 이번 통계 작성 시 중계국을 제외하고 원 자금의 출처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기업이 네덜란드 또는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러시아로 투자하는 경우 러시아의 공식

표 2-14. 미국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285	485	708	209	402	495	376	-105
FDI 유출액	688	739	1,654	819	873	126	653	-57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 26).

81) “Роснефть отказалась от покупки нефтетрейдингового бизнеса Morgan Stanle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82) Welt *et al.*(2020), p. 9.

83) “Инвестиции США в России оказались в 13 раз больше официальных”: “США тайно вложили в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миллиарды,”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0).

통계 집계 방식에 따르면, 해당 자금의 출처는 미국이 아닌 네덜란드 또는 아일랜드가 되는 것이다.<sup>84)</sup>

미국의 대러시아 FDI는 분야별로 제조업(26.18%), 금융 및 보험업(18.41%), 기타 서비스업(12.42%), 부동산업(10.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98%)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5. 미국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미국	
	투자액	비중
제조업	1,280	26.18
금융 및 보험업	900	18.41
기타 서비스업	607	12.42
부동산업	516	10.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1	6.98
누적 투자액	4,889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외 제3국 기업 및 기관들의 경우 대러시아 투자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국의 Huawei 사례나 러시아 Gazprom의 발트해 해저 가스관 건설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2차 제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러시아와의 사업 계획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개연성이 있다.

84) *Ibid.*

## 다.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1)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37억 1,900만 달러이며(표 2-17),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2억 8,200만 달러다(표 2-5). 앞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4년 12억 7,1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대중국 투자는 2012년 6,3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2016년 600만 달러로 최저점을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8년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강화로 중국 자본이 대거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sup>85)</sup> 하지만 권위 있는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의 전문가들은 2011~17년간 실제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공식 통계에서 집계된 액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86)</sup>

규모 측면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투자는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추진해온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누적투자액을 살펴보면, 러시아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은 0.1%를 차지한다(표 2-5). 이는 같은 기간 독일 2.1%, 미국 1.6%, 프랑스 0.8% 등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투자액은 더욱 감소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양국의 교역량은 증가했으며, 정치·외교 측면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

85) “Кита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бегут из Ро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1)

86) “Амбиции Пекина: что приносят России кита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표 2-16. 중국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450	597	1,271	645	345	140	-13	136
FDI 유출액	63	14	54	11	6	33	35	43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 26).

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러시아 기업은 중국 내 과열된 경쟁 환경, 독특한 투자환경, 분야별 진입장벽 등을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투자 부진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sup>87)</sup>

중국의 러시아 내 분야별 FDI 누적액은 부동산업(30.17%), 금융 및 보험업(25.11%), 광업(22.94%), 제조업(14.70%), 건설업(5.3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입업, 자동차 생산업, 자연광물 채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sup>88)</sup>

표 2-17. 중국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중국	
	투자액	비중
부동산업	1,122	30.17
금융 및 보험업	934	25.11
광업	853	22.94
제조업	547	14.70
건설업	199	5.36
누적 투자액	3,719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87) Попова, Борисов(2018), p. 173.

88) “Об итог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 2) 일본

일본의 대러시아 FDI는 2012년 5억 9,6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8년에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러시아의 대일본 해외직접투자(ODI)는 2015년 1,6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일본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25억 4,300만 달러이며(표 2-19),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일본 누적 투자액은 3,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표 2-5 참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유경제지역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농업, 관광, 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 입주가 활발한 편이다.<sup>89)</sup> 일본기업은 러시아 정부가 선도개발지역에 설립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회사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가 러·일 투자펀드를 조성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sup>90)</sup> 2018년 러시아의 극동·바이칼개발펀드와 극동투자유치·수출진흥청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과 극동지역의 일본 투자펀드 설립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설립 직후 4개의 사업을 승인해 35억 루블(약 500억 원)을 지원했다.<sup>91)</sup>

표 2-18. 일본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596	369	295	447	140	83	345	116
FDI 유출액	0	1	9	16	7	6	8	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89) Тайсукуэ Абиру(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3).

90)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инвестирует в производителя тест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EM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8).

91)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ДФО принесла первые соглашени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8).

일본의 대러시아 FDI는 누적 투자액이 비공개로 되어있는 광업 분야를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39.39%), 제조업(20.70%), 도매 및 소매업(16.88%)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에너지 대기업 닛키(Japan Gasoline Co. JGC)와 치요다 화공건설(Chiyoda Corporation)은 야말 LNG 사업에 참여했으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금융 지원을 했다. 최근 일본과 러시아 간 의료 분야의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미츠이(Mitsui)가 러시아의 제약사인 피-팜(P-Pharm)에 투자했으며,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을 토대로 제약·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sup>92)</sup>

표 2-19. 일본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일본	
	투자액	비중
금융 및 보험업	1,002	39.39
제조업	526	20.70
도매 및 소매업	429	16.88
부동산업	57	2.24
건설업	37	1.47
누적 투자액	2,543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 3) 싱가포르

러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투자협력은 매우 특징적이다. 양국은 2012년 투자 보호협정<sup>93)</sup>을 체결했다. 2011년 양국의 상호 투자액은 1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201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sup>94)</sup>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52억 8,600만 달러이며(표 2-21), 같은 기간 러시

92) KIEP 전문가 간담회 염동호 한신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1, 서울).

9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мая 2012 г. N 43-ФЗ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Сингапур о поощрении и взаимной защит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94)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아의 대싱가포르 누적 투자액은 108억 2,800만 달러다(표 2-5 참고).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6년 162억 7,4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대싱가포르 투자는 2017년 61억 3,600만 달러로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2018년 15억 6,600만 달러, 2019년 19억 2,3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서 유입된 투자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로스네프트(Rosneft) 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16년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Rosneft 민영화에 참여함에 따라 약 88% 증가했다.<sup>95)</sup> 그러나 실제로는 카타르투자펀드(QIF), 스위스의 거대 다국적 광물자원 기업 글렌코어(Glencore) 등이 참여하는 투자컨소시엄이 2016년 12월 싱가포르의 QHS Shares Pte. Ltd.(QHS 주주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Rosneft의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로스네프트가스(Rosneftegaz)와 체결한 것이었다. 계약 금액은 102억 유로(6,920억 루블)이며, QHS Shares가 Rosneft 지분 19.5%를 매입했다. 이처럼 투자액이 급증한 이유는 이 같은 초대형 거래로 인한 일회성 자금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96)</sup>

표 2-20. 싱가포르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577	-502	162	185	16,274	2,703	1,587	530
FDI 유출액	1,262	304	817	383	888	6,136	1,566	1,923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 26).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투자는 분야별로 광업(60.96%), 도매 및 소매업(24.12%), 제조업(4.4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업 부문에 투자액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된 Rosneft 지분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5) “Половину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Ф в 2016 обеспечил Сингапу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25).

96) Shkvarya, Melanina, and Tyrkba(2018), p. 1158.

표 2-21.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싱가포르	
	투자액	비중
광업	3,222	60.96
도매 및 소매업	1,275	24.12
제조업	233	4.42
정보통신업	170	3.22
운수 및 창고업	167	3.17
누적 투자액	5,286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 4) 베트남

아세안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협력 국가로는 베트남을 꼽을 수 있다. 양국의 협력은 과거 소련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일회성 투자 사업으로 인해 상호 투자액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과 러시아의 상호 투자는 장기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sup>97)</sup> 베트남은 2015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첫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러시아는 베트남의 국방, 에너지 등 전략분야를 비롯해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 등의 분야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베트남 총 누적 투자액은 비공개지만, 2012년부터 살펴봤을 때 러시아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ODI)는 2015년 1억 7,7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양국의 투자협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방, 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대형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러시아 입장에서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며, 베트남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FTA 발효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sup>98)</sup>

97)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는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아, 실제 투자 규모는 공개된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98) 「EAEU-베트남 FTA 체결 5년, 국내 기업이 활용할 방법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1).

표 2-22. 베트남의 대러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26	-29	-42	-32	7	-61	-128	10
FDI 유출액	99	16	55	177	148	103	18	8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 라. 러시아와 터키·중동의 상호투자 현황과 특징

### 1) 터키

터키와 러시아의 상호투자는 앞서 살펴본 국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의 대터키 누적 직접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60억 2,900만 달러(표 2-5)로 같은 기간 터키의 대러시아 누적 직접투자액인 16억 6,400만 달러(표 2-24)보다 몇 배나 많다. 러시아의 대터키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41억 5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2015년 소폭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터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최저 2,600만 달러(2016년), 최고 2억 9,200만 달러(2015년)를 기록했다.

2019년 스페르뱅크(Sberbank)가 터키 대형 민간은행인 데니즈뱅크(DenizBank)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국립은행(NBD)’에 매각한 것이 러시아의 대터키 해외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99)</sup> 러시아 자본은 터키의 에너지, 철강, 금융, 통신, IT 분야와 서비스업에 투자되었다.

양국의 에너지·건설 분야의 투자는 터키와 남부·남동부 유럽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건설 사업인 터키스트림<sup>100)</sup>을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양국 정부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인 로사톰(Rosatom)이 터키 남부 해변 ‘악큐유(Akkuyu)’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sup>101)</sup>

99) “Сбербанк вернулся из Турц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100) “Турецкий пото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101)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Аккую»,”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표 2-23. 러시아의 대터키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178	207	135	292	26	79	118	214
FDI 유출액	4,105	1,447	1,183	1,475	1,184	557	534	-2,107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 26).

터키의 대러시아 투자는 분야별로 부동산업(37.61%), 금융 및 보험업(26.03%), 도매 및 소매업(13.52%), 제조업(11.11%), 건설업(5.3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터키는 러시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해외 건설도급업체 중 20%를 차지한다.<sup>102)</sup> 한편 러시아의 투자는 터키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와 부동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03)</sup>

표 2-24. 터키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터키	
	투자액	비중
부동산업	626	37.61
금융 및 보험업	433	26.03
도매 및 소매업	225	13.52
제조업	185	11.11
건설업	89	5.37
누적 투자액	1,664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2) “Российско-турецка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ожет быть создана в рамках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1).

103) “СПРАВК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Россияне вошли в тройку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жилья в Турции,”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31).

## 2) 아랍에미리트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카타르, 사우디 등과 투자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많아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가 중동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위 3개국에 해당한다.<sup>104)</sup>

아랍에미리트<sup>105)</sup>의 대러시아 누적 투자액은 2020년 1월 1일 기준 4억 6,400만 달러이며, 같은 기간 러시아의 대아랍에미리트 누적 투자액은 9억 5,900만 달러다(표 2-5 참고). 아랍에미리트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8년 3억 2,4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9년 1억 4,800만 달러로 하락했으나, 이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러시아의 대아랍에미리트 투자는 2013년 1억 6,900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2%에서 2019년 0.4%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다(표 2-5).

2018년 6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체결했다.<sup>106)</sup>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법인 중 11%가 러시아 자본이 투자된 기업들이다.<sup>107)</sup> 2019년 양국은 1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아랍에미리트펀드 ‘무바다라’는 총 45개의 사업에 23억 달러를 투자했다.<sup>108)</sup>

---

104) InfraOne(2018), p. 2.

105)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3개국 중 러시아 중앙은행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가 비교적 많이 공개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선정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비공개된 수치가 많아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06) “Декларация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Объединенными Арабскими Эмиратам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1).

107) “По количеству инвесторов в ОАЭ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 5 место,”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1).

108) “Россия и ОАЭ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на \$1,4 млр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31).

표 2-25. 러시아의 대아랍에미리트 FDI 유·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DI 유입액	19	49	29	28	82	94	324	148
FDI 유출액	93	169	165	48	66	99	-4	98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아랍에미리트의 대러시아 FDI는 도매 및 소매업(25.73%), 부동산업(15.01%), 제조업(14.48%)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의 대아랍에미리트 투자가 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랍에미리트의 대러시아 투자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109)</sup> 단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분야로 분류되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표 2-26. 아랍에미리트의 대러시아 FDI 누적 투자액과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아랍에미리트	
	투자액	비중
도매 및 소매업	119	25.73
부동산업	70	15.01
제조업	67	14.48
기타	24	5.09
금융 및 보험업	7	1.57
누적 투자액	464	100.00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09)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표 2-4 참고).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환경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가 2012년 120위에서 2020년 28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WB)은 순위 발표 시 10개 지표에 해당하는 수치를 형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제도적 편의, 정부기관의 감사, 정부조달 특혜 등 기업 운영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sup>1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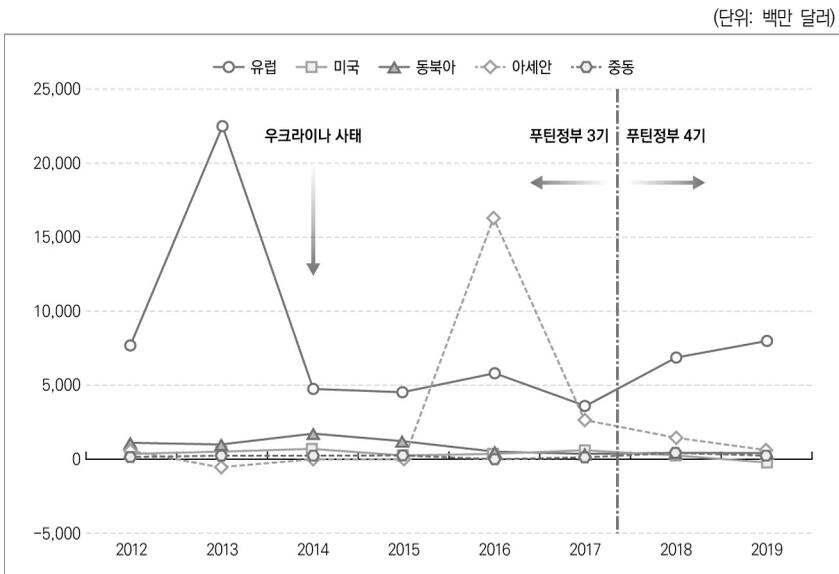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권역별로 주요 투자국을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었다. [그림 2-1]에서 잘 나타나듯이, 푸틴정부 3기(2012~18)와 4기(2018~)를 비교해보면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투자가 증가한 점은 이례적이다.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투자액 증가는 싱가포르 투자 컨소시엄에서 Rosneft의 지분을 매입한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 계약으로 인해 2016년 전체 FDI 중 50%가 싱가포르에서 유입되었다. 유럽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대러시아 FDI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2018년 푸틴 4기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나라지만, 2018년까지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감소하지 않았

110) “Не догоняет: кому Россия проиграла в Doing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다. 일부 미국기업은 경제제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미국의 투자 규모는 제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투자협력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중동과의 투자 협력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증가세와 감소세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패턴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나, 양측의 정확한 투자액수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2-1. 권역별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2012~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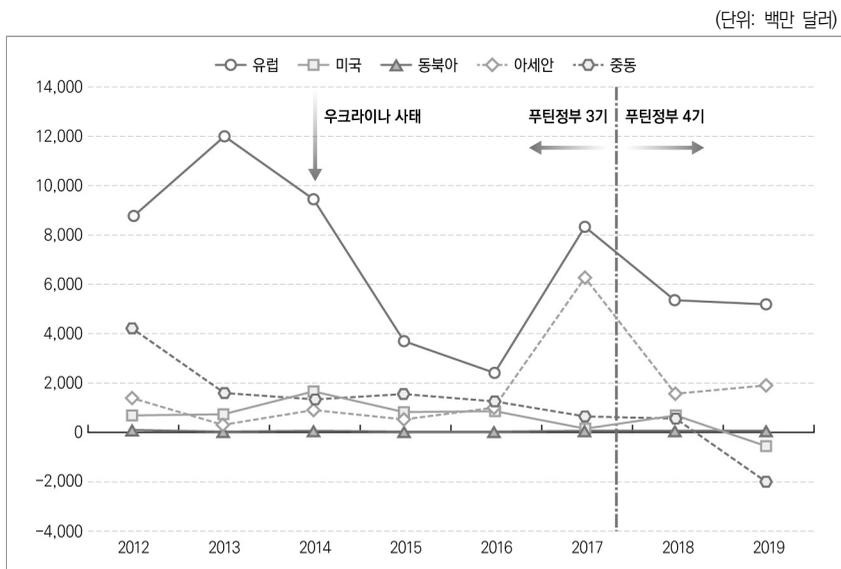


주: 유럽(25개국),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싱가포르, 베트남), 중동(아랍에미리트, 터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한편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러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7년 아세안 지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데,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의 일회성 투자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중동지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가 2019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러시아 Sberbank의 터키 DenizBank 지분 인수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Sberbank는 터키 DenizBank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2019년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sup>111)</sup>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해외투자 감소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제재, 수출제한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외투자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12)</sup>

그림 2-2. 권역별 러시아 해외직접투자(2012~19년)



주: 유럽(25개국),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싱가포르, 베트남), 중동(아랍에미리트, 터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10).

111) “Турецкий Denizbank перешел к Сбербанку”; “Сбербанк продал свою турецкую «дочку» за \$5 млрд из-за санкций,”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5).

112) Клинова, Сидорова(2017), p. 117.

전체적으로 보면, 대러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에 대한 FDI 전망이 밝다고 하기는 어렵다.

## 제3장

K

PMW

# 한국의 해외투자자와 한·러 투자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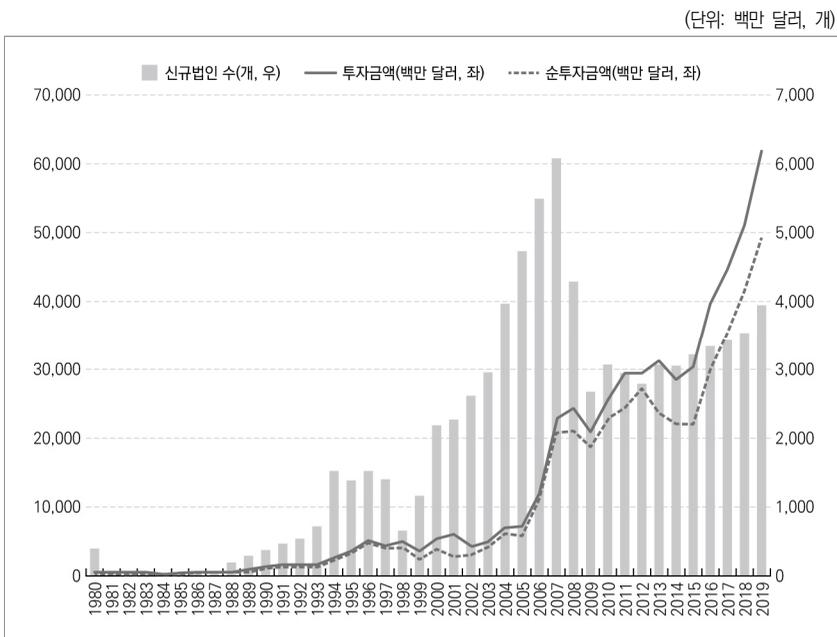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가. 동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해외투자액 기준으로 2006년 100억 달러, 2007년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른 등락이 있었으나 2015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9년 기준 61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한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실적 추이



주: 1980년 실적은 1968-80년 누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표 3-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누계)

(단위: 백만 달러, 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신규법인 수(개)	1,652	6,276	13,189	29,712	51,329	66,367	<b>80,649</b>
투자금액 (백만 달러)	3,588	13,592	36,199	65,666	171,666	320,958	<b>518,415</b>
순투자금액 (백만 달러) (투자금-회수금)	3,172	12,507	31,588	53,212	147,981	267,178	<b>422,984</b>

주: 1968년부터 각 연도별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표 3-1]에서 보듯이 2019년 현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누적 실적은 총 5,184억 달러, 순투자금액은 4,230억 달러에 이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9년 누계액 기준으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1.27%를 차지한다(표 3-2 참고). 참고로 주변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각각 22.34%, 6.07%, 5.26%, 1.12%를 기록하고 있다(표 3-3 참고).

한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3-2]와 같이 2006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를 상회해 왔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2010년부터 순유출 상황을 지속해왔다.<sup>113)</sup> 이런 움직임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글상자 3-1 참고).<sup>114)</sup> 이렇듯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세에 비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에

113) UNCTA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입(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은 누계 기준으로 2008년 32억 3,000만 달러로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2009년(6억 5,000만 달러)을 제외하고 줄곧 순유출 상황을 지속해왔다.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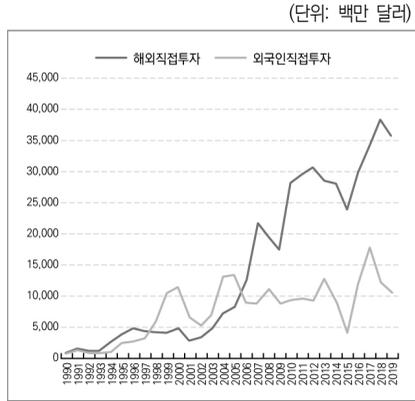
114) 한국정부는 2005년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 해외금융거래 규제 완화, 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진출의 성장동력화, 과잉 유통성의 해소, 환율 안정, 고유가 및 원자재난 대응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병렬, 곽주영, 양영수(2011), p. 82.

표 3-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실적(누계)

구분		2005	2010	2015	2019
해외 직접 투자	전 세계 (천억 달러)	119.1	204.7	265.7	345.7
	한국 (십억 달러)	38.7 (0.33)	144.0 (0.70)	285.9 (1.08)	440.1 (1.27)
	GDP 대비, %	4.14	12.59	19.51	26.45
외국인 직접 투자	전 세계 (천억 달러)	114.3	199.2	265.8	364.7
	한국 (십억 달러)	104.9 (0.92)	135.5 (0.68)	179.5 (0.68)	238.6 (0.65)
	GDP 대비, %	11.22	11.84	12.25	14.34

주: ( ) 안 숫자는 세계 투자액 대비 한국 비중.  
자료: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그림 3-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대한 누적 외국인직접투자가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5%이다(표 3-3 참고).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GDP 대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은 26.45%로 미국(35.84%), 일본(35.70%)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sup>115)</sup>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은 14.34%로 미국(43.93%), 러시아(27.27%)에 비해 낮고 일본 4.37%, 중국의 12.44%에 비하면 높다. 특히 한국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성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글상자 3-2 참고).<sup>116)</sup>

115) 2019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비중은 다음과 같다. 독일(45.02%), 영국(69.17%), 프랑스(56.65%), 캐나다(95.35%), 이탈리아(28%).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116) 한국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입지 제공, 현금 지원(자본채 구입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고용보조금 등) 등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적극적 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경제특구·지역별 투자 불균형(인천, 부산에 집중), 산업별 편중 심화(제조업 및 개발산업 편중, 관광업 제외 서비스업 비중 저조) 등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광성배(2019), pp. 5~8.

표 3-3.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누계 비중

(단위: %)

구분		2005		2010		2015		2019	
		세계 대비, %	GDP 대비, %						
해외 직접투자	전 세계	100.00	25.26	100.00	31.18	100.00	35.85	100.00	39.81
	한국	0.33	4.14	0.70	12.59	1.08	19.51	1.27	26.45
	러시아	1.17	18.05	1.64	21.84	1.09	21.24	1.12	22.73
	미국	30.55	27.73	23.50	31.87	22.80	33.06	22.34	35.84
	중국	0.48	2.50	1.55	5.21	4.13	9.97	6.07	14.76
	일본	3.25	8.13	4.06	14.58	4.62	27.99	5.26	35.70
외국인 직접투자	전 세계	100.00	24.07	100.00	30.13	100.00	35.56	100.00	41.77
	한국	0.92	11.22	0.68	11.84	0.68	12.25	0.65	14.34
	러시아	1.56	23.15	2.33	30.15	0.99	19.23	1.27	27.27
	미국	24.65	21.48	17.18	22.68	21.57	31.27	25.96	43.93
	중국	2.38	11.90	2.95	9.64	4.59	11.07	4.85	12.44
	일본	0.88	2.12	1.08	3.77	0.66	3.97	0.61	4.37

자료: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글상자 3-1. 한국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2005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2005년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외환제도 개선 (규제 완화)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등에 초점을 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를 확대해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했다. 특히 KOTRA에 해외투자 지원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도 제시했다.

[2007년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2007년 한국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 △해외인프라 사업 △금융산업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리스크 분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경감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도입,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금융 지원기능 확충 등을 제시했다.

[2015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2015년 한국정부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해외직접투자 촉진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신사업 개척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확충 등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실천과제로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기업 해외 M&A 촉진 △공공기관 해외투자 활성화 및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부펀드(KIC)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해외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정책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 간 해외투자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a, b),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9).

[2008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08~10)'] 2008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했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 유입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 기술 등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투자 유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2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매력적인 투자 기회 제공: 투자 관심 대상 지속 발굴, 지역개발과 외국인투자 연계,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Invest Korea 기능 강화 등 현장밀착형 투자지원시스템 강화
2. 기업·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입지·인센티브 제공, 기업 관련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노사관계 지원 및 반외자정서 극복, 글로벌 시티로의 생활환경 구축

[2012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 2012년 한국정부는 미국·EU 등과의 FTA 효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인투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했다. 특히 한국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에 상응하도록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성장 및 고용기반 위축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일본, 미국·EU를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고 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관광·레저 분야 투자가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및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자본 유치 추진

△일본: 부품소재기업 입지수요에 대응한 임대형 입지 공급 확대 및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유치, 수출형·합작기업(JV)형·국내 동반진출형 등 투자 지원

△미국·EU: FTA 활용 동북아 거점형·지식서비스 분야(R&D센터, IT융복합 서비스 산업 등) 투자 유치 확대, 한·미 FTA를 계기로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투자 분야로 확대

[2015년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2015년 한국정부는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형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전진기지화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유망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확대(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0대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등) △중국, 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전개 등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동은 대통령 중동순방(2015년 3월) 성과를 활용한 한·사우디 협력 특별팀(TF) 구축,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유망 투자목록 발굴 추진을 세부 과제로 내놓았다.

[2018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 논의 내용]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고부가·신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전략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유망 신산업(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로봇, 에너지, 항공드론, 석유화학, 소비재, 콘텐츠IT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고,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IR 확대 및 신남방·북방 등 해외 IR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IR) 전개 계획을 내놓았다.

자료: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08~10)」(2008), pp. 1~39;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2012), pp. 1~13;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2015), pp. 1~6; 「2018년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2018), pp. 1~4.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 지역은 아시아와 북미이다. [표 3-4]와 같이 2019년 누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의 37.63%를 차지하며, 신규 법인 수는 전체의 67.20%에 달한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중후반에 크게 늘어 2005~09년에는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48%로 절반에 달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대상국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국(36.30%), 홍콩(15.15%), 베트남(12.95%), 인도네시아(6.1%), 일본(5.25%) 순이다.<sup>117)</sup> 그 다음으로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수가 각각 전체의 25.81%, 19.98%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경우 미국에 대한 투자가 90.3%로 압도적이며, 캐나다가 나머지 9.7%를 차지한다(부록 표 1, 표 3-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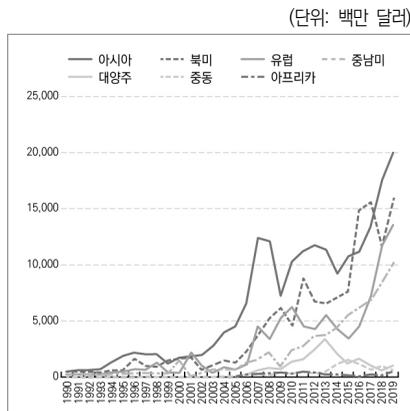
표 3-4.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2019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개)

구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백만 달러)	순투자금액 (백만 달러)
전 세계	80,649	518,415	422,984
아시아	54,193 (67.20)	195,072 (37.63)	163,805
북미	16,112 (19.98)	133,790 (25.81)	110,904
유럽	4,359 (5.40)	89,568 (17.28)	71,146
중남미	2,427 (3.01)	65,462 (12.63)	48,862
대양주	1,846	19,745	16,759
중동	1,033	9,627	7,048
아프리카	679	5,151	4,460

주: ( ) 안 숫자는 전 세계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그림 3-3.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최근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그림 3-3 참고),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17.28%, 중

117) ( ) 안 숫자는 아시아 지역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남미 12.63%이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대상국은 영국(19.71%), 네덜란드(13.73%), 룩셈부르크(12.05%), 독일(6.40%), 프랑스(5.34%) 순이다.<sup>118)</sup> 참고로 유럽에 대한 총 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3%이다.<sup>119)</sup> 중남미 지역의 주요 투자대상국은 브라질(12.88%), 멕시코(8.98%) 등이다.<sup>120)</sup> <sup>1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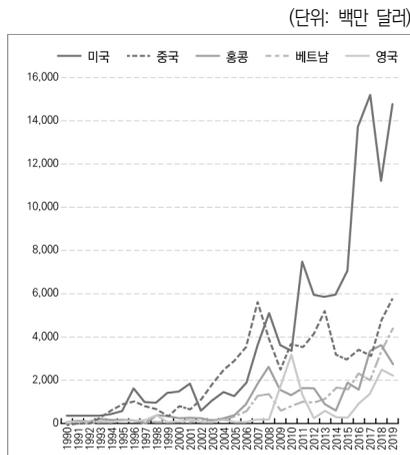
[표 3-5]와 같이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영국 순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줄곧 한국의 투자대상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2015년부터 투자가 크게 늘어 2019년 누계 기준으로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30%를 차지한다(그림 3-4 참고). 그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13.66%를 차지하며,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도 누적 투자액 100억 달러가 넘는 주요 투자국이다.

표 3-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주요 대상국(2019년 누계)

구분	신규 법인수 (개)	투자금액 (백만 달러)	순투자금액 (백만 달러)
전 세계	80,649	518,415	422,984
미국	15,359	120,808 (23.30)	101,259
중국	27,799	70,811 (13.66)	60,810
홍콩	2,464	29,551	24,391
베트남	7,165	25,260	21,897
영국	526	17,652	13,197
싱가포르	1,231	14,900	12,693
캐나다	753	12,982	9,645
네덜란드	255	12,295	10,417
인도네시아	2,270	11,901	9,253
룩셈부르크	181	10,791	9,291
일본	3,926	10,241	7,383

주: ( ) 안 숫자는 전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그림 3-4.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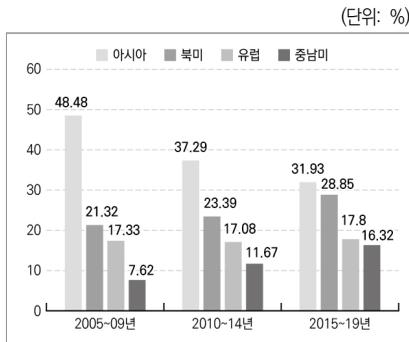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 118) ( ) 안 숫자는 유럽 지역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119)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국가 분류 기준에 따름.  
120) ( ) 안 숫자는 중남미 지역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1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 나. 최근 변화와 특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대 전반기에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다시금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그림 3-1 참고). 최근 크게 확대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지역, 형태와 업종, 목적 등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각 5년 단위로 나눠 살펴봄으로써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5. 한국의 기간별 주요 지역 해외직접투자 비중



주: 기간별 전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표 3-6. 한국의 기간별 주요 지역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설립형태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적(2019년)
전 세계	그린필드	73.06	71.81	64.13	70.63
	M&A	26.03	27.51	35.22	28.44
아시아	그린필드	80.00	77.97	72.87	77.84
	M&A	18.69	21.15	26.17	20.72
북미	그린필드	63.44	71.86	49.80	62.11
	M&A	36.27	27.79	49.85	37.41
유럽	그린필드	61.32	52.53	64.32	62.77
	M&A	38.02	46.73	35.23	36.52
중남미	그린필드	75.82	67.69	65.82	69.41
	M&A	24.14	32.21	34.11	30.49

주: 1) 기간별·지역별 그린필드 및 M&A 투자의 총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적 비중은 1968-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먼저 투자 지역의 경우 최근 5년(2015~19년) 동안 아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북미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참고). 이 기간에 아시아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이전 5년(2010~14년) 대비 1.87% 증가한 202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북미 최대 투자대상국인 미국에 대한 투자는 618억 달러로 115.42%나 확대되었다.<sup>122)</sup> 중국에 대한 투자 둔화는 그동안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

의 자급률 상승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로 제조업체의 투자가 축소된 데 기인한다.<sup>123)</sup> 또한 최근 중국의 임금 상승 영향으로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투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sup>124)</sup> 미국에 대한 투자 급증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해외 금융자산 투자 유인이 높아지면서 금융 및 부동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sup>125)</sup>

설립 형태 측면에서 [표 3-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2015~19년) 기존 법인 지분인수(M&A형)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현지 법인 설립(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미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유럽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에서도 M&A형 투자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표 1 참고). 이러한 모습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M&A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기간(2010~14년) 29.20%에서 37.38%까지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M&A형 투자 비중도 17.43%에서 26.56%로 증가했다(부록 표 2 참고). 최근 신성장 산업 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IT 혁신기업 매입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 필요성이 높아진 점이 M&A형 투자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sup>126)</sup> 2019년 9월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엠티브'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20억 달러를 투자했다.<sup>127)</sup> 2019년 12월 LG화학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50:50 지분으로 1조 원씩 출자하는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sup>128)</sup>

1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123) 이용대, 최종윤(2018), p. 4.

124) 이정원 외(2019), p. 14.

125) 이용대, 최종윤(2018), p. 3.

126) 위의 글, p. 6.

127) 현대자동차의 해외투자는 경영권 인수보다는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차, 美자율주행기업 '엠티브' 직접투자 "2024년 SW양산 목표"」; 「산업지도 바꾼 M&A」②현대차, 지분투자로 미래차 경쟁력 키운다,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

128) 「LG화학-GM,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LG화학-GM '배터리 동맹' 속도... 글로벌 패권 잡는다」,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

투자목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최근 5년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현지시장 진출’이 48.75%, ‘제3국 진출’이 29.1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의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제3국 진출’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 데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로 한국기업의 신 시장 개척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sup>129)</sup> 또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 속도 둔화와 주요 투자 대상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저임금 활용’ 목적의 투자가 감소 추세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M&A형 투자 확대 추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표 3-7 참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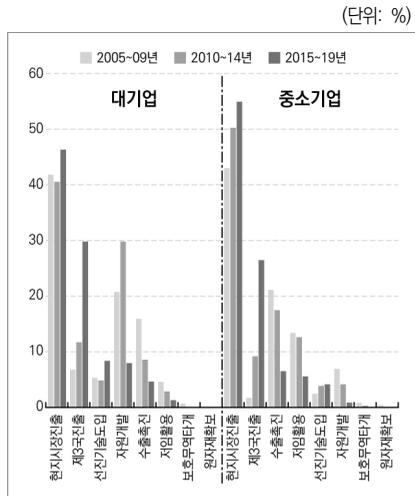
표 3-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목적 변화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09년	2010 ~14년	2015 ~19년	누계 (2019년)
합계	87,838	144,516	227,830	518,415
현지시장진출	36,812 (41.91)	58,926 (40.77)	111,075 (48.75)	216,873 (41.83)
제3국진출	5,567 (6.34)	17,972 (12.44)	66,447 (29.17)	90,267 (17.41)
자원개발	14,793 (16.84)	40,110 (27.75)	14,667 (6.44)	77,293 (14.91)
수출촉진	14,515 (16.52)	13,451 (9.31)	11,927 (5.24)	61,643 (11.89)
선진기술도입	4,128 (4.70)	6,794 (4.70)	16,896 (7.42)	30,042 (5.79)
저임활용	6,227 (7.09)	5,790 (4.01)	5,073 (2.23)	21,072 (4.06)
보호무역타개	544 (0.62)	277 (0.19)	235 (0.10)	2,160 (0.42)
원자재확보	140 (0.16)	13 (0.01)	0 (0.00)	627 (0.29)

주: 1) 합계는 기타 목적 포함. ( ) 안 숫자는 기간별 전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계 비중은 1968~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그림 3-6. 한국의 투자자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목적 변화



주: 투자자 규모별 기간별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129) 즉 한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현지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장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대, 최중윤(2018), p. 5.

한 추세는 [그림 3-6]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표 3 참고, 지역별 추세 변화는 부록 표 4 참고).

마지막으로 투자업종 변화를 살펴보면, 2015~19년에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전까지 30%를 상회했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최근 26.38%로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업 투자가 31.30%로 증가해 최대 투자업종으로 부상했다. 또한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이전 시기 8.36%에서 최근 11.59%로 확대됐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그림 3-7, 부록 표 5 참고). 최근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장세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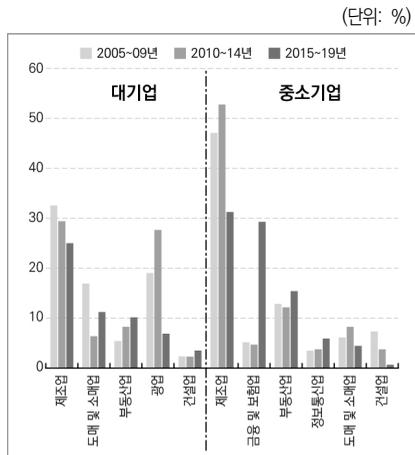
표 3-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 ~09년	2010 ~14년	2015 ~19년	누계 (2019년)
합계	87,838	144,516	227,830	518,415
제조업	30,493 (34.72)	44,287 (30.65)	60,102 (26.38)	165,354 (31.90)
금융 및 보험업	10,821 (12.32)	21,276 (14.72)	71,322 (31.30)	108,171 (20.87)
광업	13,001 (14.80)	37,087 (25.66)	12,417 (5.45)	65,848 (12.70)
도매 및 소매업	12,784 (14.55)	9,311 (6.44)	22,237 (9.76)	55,278 (10.66)
부동산업	6,338 (7.22)	12,082 (8.36)	26,403 (11.59)	45,934 (8.86)
정보통신업	2,079 (2.37)	2,988 (2.07)	7,019 (3.08)	13,872 (2.68)
건설업	2,881 (3.28)	3,216 (2.23)	6,817 (2.99)	13,859 (2.67)

주: 1) 합계는 기타 업종 포함. ( ) 안 숫자는 기간별 전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적 비중은 1968~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그림 3-7. 한국의 투자자 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업종 변화



주: 투자자 규모별 기간별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130) 2010년대 이후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발전, 소비 확대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직분업 유인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공급체인이 위축되었다. 원지환, 이서현(2019), p. 2, pp. 9~10.

##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가. 최근 동향: 러시아와 주요 신흥국 비교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이후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표 3-9], [그림 3-8]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심각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같은 시기에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장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신흥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한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도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이들 신흥국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19년 누계 기준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4%에 불과하다. 2009년 누적 실적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0%를 차지했던 대러시아 투자 비중은 2010~14년 0.54%, 2015~19년 0.25%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장기 저성장 추세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과의 경제제재 국면 장기화로 대러시아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sup>131)</sup> 실제로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부분이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부담이 높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투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32)</sup> 즉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보수화된 투자 행태가 관찰된다.

이렇듯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에서 M&A형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

131)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고성장 시기에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편이 지연되면서 원유를 대체할 만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지선, 정성태, 신민영 (2015), pp. 14~15.

132) KOTRA(2020),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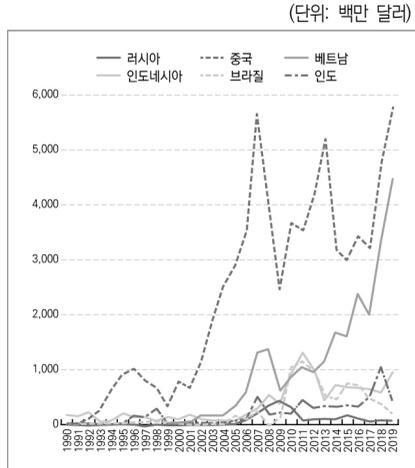
표 3-9.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09년	2010 ~14년	2015 ~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전 세계	87,838	144,516	227,830	146,068	518,415
러시아	1,178 (1.34)	783 (0.54)	564 (0.25)	1,457 (1.0)	2,804 (0.54)
중국	18,608 (21.18)	19,862 (13.74)	20,234 (8.88)	30,714 (21.03)	70,811 (13.66)
베트남	4,290 (4.88)	5,753 (3.98)	13,781 (6.05)	5,726 (3.92)	25,260 (4.87)
인도네시아	1,565 (1.78)	4,405 (3.05)	3,605 (1.58)	3,892 (2.66)	11,901 (2.30)
브라질	1,317 (1.50)	4,213 (2.92)	2,584 (1.13)	1,636 (1.12)	8,434 (1.63)
인도	1,146 (1.30)	1,662 (1.15)	2,737 (1.20)	2,025 (1.39)	6,424 (1.24)

주: 1) ( ) 안 숫자는 전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계는 각각 1968~2009년, 1968~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그림 3-8.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투자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이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도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표 3-10 참고). 다만 최근 5년(2015~19년)에 한정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M&A형 투자는 전반적인 대러시아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표 3-14]에서 보듯이 최근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진출이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위험 부담이 적은 기존 기업 인수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투자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에서 2009년 누적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현지시장 진출’ 비중이 54.64%, ‘수출촉진’ 비중이 28.41%를 차지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수출 촉진을 위한 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 2019년 누계액 기준으로 ‘현지시장 진출’이 71.34%, ‘수출 촉진’이 15.67%로 그 비중이 변화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러시아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투자 목적은 ‘현

표 3-10.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설립형태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적(2009년)	누적(2019년)
전 세계	그린필드	73.06	71.81	64.13	79.59	70.63
	M&A	26.03	27.51	35.22	18.77	28.44
러시아	그린필드	71.82	62.71	68.79	74.33	70.01
	M&A	27.93	36.91	31.03	22.58	28.28
중국	그린필드	84.42	80.54	82.22	86.17	83.46
	M&A	13.66	19.39	17.74	11.27	15.40
베트남	그린필드	90.19	83.00	74.23	88.28	79.41
	M&A	8.62	16.57	25.59	9.87	19.98
인도네시아	그린필드	73.61	75.46	55.06	86.90	73.04
	M&A	26.33	24.38	44.77	13.00	26.84
브라질	그린필드	48.97	71.99	61.30	52.63	64.94
	M&A	50.95	28.03	38.74	47.19	35.01
인도	그린필드	94.15	84.72	75.34	93.38	83.53
	M&A	4.97	13.54	19.88	4.05	13.17

주: 1) 기간별·전 세계 및 국별 그린필드 및 M&A 투자의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적 비중은 각각 1968~2009년, 1968~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지시장 진출'(88.52%)에 집중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개발'과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표 3-11 참고). 참고로 중소기업의 자원개발 목적 투자는 주로 광업과 농림어업에서 이루어졌다. 농림어업은 주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러시아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식량을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생산 지향 투자라고 할 수 있다.<sup>133)</sup>

한편 최근 5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부록 표

133) KIEP 전문가풀 세미나 이상준 국민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10. 7, 서울).

9 참고). 이처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현지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진출형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에는 아직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압도적인 상황이다.<sup>134)</sup>

아울러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기술 도입 목적의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러시아의 경우 아직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 진출 사례가 부재하다. 다만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러시아 모스크바에 개소해 러시아 연구진과 함께 얼굴 이미지 사진을 '말하는 얼굴 동영상(talking head videos)'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sup>135)</sup> 2019년 3월 현대모비스가 러시아 최대 포털 사업자인 안텍스와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sup>136)</sup>

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진기술 도입' 목적의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이는 LED(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세계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정부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 2025 정책 추진 등이 주요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37)</sup>

투자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은 광업, 농림업, 제조업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2019년 누적 기준/ 표 3-12 참고). [표 3-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기업의 대러시아 제조업 투

134) 투자 대상국과의 외부효과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대상국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제3국 진출형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中 경제 회복 심화… 제3국 진출형 해외 직접투자도 공략해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4).

135) 「"삼성 AI 모스크바 연구센터 29일 개소"…세계 거점센터 중 하나」; 「"사진 한장으로 인터뷰 동영상 제작"…삼성, AI 신기술 개발」,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3).

136)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택시 러시아 모스크바 달린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137)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00>중국 디스플레이 기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자는 2019년 누적 기준으로 자동차(47.79%), 전자(12.87%), 식료품(12.42%) 분야에 집중되었다.<sup>138)</sup> 2010년대 들어 대러시아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 5년간 식료품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기를 보였다(표 3-13 참고). 이는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식료품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 수입대체 및 국산화율 확대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 투자 필요성이 높아진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sup>139)</sup> 현대자동차는 최근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서 러시아 내 생산부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 CJ제일제당이 러시아 식품업체를 인수해 현지 냉동가공식품 시장에 진출한 것도 이런 정책 변화를 고려한 동시에 M&A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3-14 참고).

또한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러시아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점이 특기할 만한데, 2008년 4월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설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이 2014년 9월 현지 법인을 개설하는 등 추가 투자를 한 바 있다.<sup>140)</sup>

[표 3-1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투자는 전체 투자의 15.30%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제조업 투자는 자동차 및 전자 분야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분업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141)</sup>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시 부품 공급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2010년 9월 준공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의 경우에도 10여 개 협력사가 동반 진출한 바 있다. LG전자

138) () 안 숫자는 대기업의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 대비 비중

139) KIEP 전문가 간담회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24, 서울). 러시아의 완성차 제조에서 부품 현지 조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러시아 자동차 제조 클러스터에 부품 제조 진출을 통한 현지 산업 밸류체인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KOTRA(2020), p. 39.

140) 「하나금융, 블라디보스토크서 포럼 열고 신북방 진출 모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5).

141) 이용대, 최종윤(2018), p. 5.

(2006년 루자에 가전공장 준공)의 경우에도 7개 국내 부품협력업체가 공동 투자한 사례이다.<sup>142)</sup>

표 3-11.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별 투자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적(2009년)	누적(2019년)	
전체	1,178	783	564	1,457	2,804	
대기업	합계	984*(83.53)	651*(83.14)	479*(84.93)	1,186*(81.40)	2,317*(82.63)
	현지시장 진출	566(57.52)	581(89.25)	424(88.52)	648(54.64)	1,653(71.34)
	수출 촉진	320(32.52)	5(0.77)	21(4.38)	337(28.41)	363(15.67)
	자원 개발	41(4.17)	61(9.37)	30(6.26)	58(4.89)	148(6.39)
	보호무역 타개	16(1.63)	-	-	18(1.52)	18(0.78)
	저임 활용	1(0.10)	4(0.61)	5(1.04)	1(0.08)	10(0.43)
	선진기술 도입	-	-	-	2(0.17)	2(0.09)
	원자재 확보	-	-	-	1(0.08)	1(0.04)
	제3국 진출	-	-	-	-	-
	합계	161*(13.67)	120*(15.33)	77*(13.65)	233*(15.99)	429*(15.30)
중소기업	자원 개발	73(45.34)	71(59.17)	46(59.74)	113(48.50)	230(53.61)
	현지시장 진출	50(31.06)	38(31.67)	22(28.57)	50(21.46)	111(25.87)
	수출 촉진	6(3.73)	2(1.67)	3(3.90)	20(8.58)	24(5.59)
	원자재 확보	-	-	-	11(4.72)	11(2.56)
	저임 활용	1(0.62)	2(1.67)	4(5.19)	3(1.29)	9(2.10)
	보호무역 타개	3(1.86)	-	-	4(1.72)	4(0.93)
	제3국 진출	-	4(3.33)	-	-	4(0.93)
	선진기술 도입	-	1(0.83)	1(1.30)	-	2(0.47)

주: 1) 합계는 기타 목적 포함 총계임.

2) \*( )는 전체 대비 비중, ( )는 투자자 규모별 합계 대비 비중.

3) 누적 수치는 각각 1989~2009년, 1989~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142) 「현대차, 연산 15만대 러시아공장 준공...11개사 동반 진출」; 「LG전자, 러시아에 가전 공장」,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15).

표 3-1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업종별 투자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적(2009년)	누적(2019년)	
전체	1,178	783	564	1,457	2,804	
대기업	합계	984*(83.53)	651*(83.14)	479*(84.93)	1,186*(81.40)	2,317*(82.63)
	제조업	712(72.36)	467(71.74)	273(56.99)	798(67.28)	1,538(66.38)
	도매 및 소매업	166(16.87)	12(1.84)	141(29.44)	171(14.42)	324(13.98)
	금융 및 보험업	21(2.13)	60(9.22)	28(5.85)	22(1.85)	110(4.75)
	농업, 임업 및 어업	12(1.22)	40(6.14)	28(5.85)	13(1.10)	81(3.50)
	건설업	25(2.54)	31(4.76)	-	25(2.11)	56(2.42)
	숙박 및 음식점업	3(0.30)	-	-	50(4.22)	50(2.16)
	부동산업	5(0.51)	8(1.23)	-	38(3.20)	46(1.99)
	광업	20(2.03)	16(2.46)	-	20(1.69)	37(1.60)
	정보통신업	5(0.51)	-	-	33(2.78)	33(1.42)
	운수 및 창고업	12(1.22)	12(1.84)	1(0.21)	12(1.01)	25(1.08)
중소기업	합계	161*(13.67)	120*(15.33)	77*(13.65)	233*(15.99)	429*(15.30)
	광업	72(44.72)	23(19.17)	21(27.27)	101(43.35)	144(33.57)
	농업, 임업 및 어업	20(12.42)	48(40.00)	20(25.97)	26(11.16)	94(21.91)
	제조업	28(17.39)	22(18.33)	13(16.88)	52(22.32)	86(20.05)
	도매 및 소매업	3(1.86)	14(11.67)	12(15.58)	15(6.44)	41(9.56)
	부동산업	20(12.42)	5(4.17)	4(5.19)	20(8.58)	30(6.99)
	운수 및 창고업	2(1.24)	6(5.00)	3(3.90)	2(0.86)	11(2.56)
	정보통신업	5(3.11)	1(0.83)	2(2.60)	5(2.15)	9(2.10)
	건설업	5(3.11)	-	-	5(2.15)	5(1.17)
	금융 및 보험업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1(0.62)	-	-	1(0.43)	1(0.23)

주: 1) 합계는 기타 업종 포함 총계임.

2) 누적 수치는 각각 1989~2009년, 1989~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표 3-1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실적(투자자 규모별 제조업 투자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적(2009년)	누적(2019년)	
전체	1,178	783	564	1,457	2,804	
대기업	제조업 합계	712*(72.36)	467*(71.74)	273*(56.99)	798*(67.28)	1,538*(66.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9(36.38)	300(64.24)	176(64.67)	259(32.46)	735(47.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95(27.39)	0(0.00)	0(0.00)	198(24.81)	198(12.87)
	식료품	113(15.87)	9(1.93)	61(22.34)	121(15.16)	191(12.42)
	전기장비	91(12.78)	61(13.06)	0(0.00)	96(12.03)	157(10.21)
	담배	32(4.49)	70(14.99)	0(0.00)	32(4.01)	102(6.63)
	1차 금속	10(1.40)	9(1.93)	24(8.79)	17(2.13)	50(3.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4(0.56)	14(3.00)	5(1.83)	4(0.50)	23(1.50)
	제조업 합계	28*(17.39)	22*(18.33)	13*(16.88)	52*(22.32)	86*(20.05)
중소기업	코크스, 연탄	12(42.86)	0(0.00)	0(0.00)	19(36.54)	19(22.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14)	8(36.36)	4(30.77)	2(3.85)	14(16.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10.71)	3(13.63)	4(30.77)	3(5.77)	11(12.79)
	비금속광물제품	0(0.00)	2(9.09)	0(0.00)	8(15.38)	10(11.63)
	식료품	3(10.71)	0(0.00)	1(7.69)	3(5.77)	4(4.65)

주: 1) 전체는 총 대러 투자금액, \*( )는 투자자 규모별 전체 투자금액 대비 제조업 비중, ( )는 투자자 규모별 전체 제조업 투자금액 대비 비중.

2) 누적 수치는 각각 1989~2009년, 1989~2019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표 3-14. 최근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동향

현대자동차	자동차	• 2016~17년 카멘카(상트페테르부르크 북서쪽) 공장에 생산라인 추가. 향후 러시아 내 생산부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
호텔롯데	호텔	• 2017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1억 4,000만 달러 투자로 기존 건물을 개조해 5성급 롯데호텔 개관
삼성물산	건설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유럽 최고 높이인 460m의 Lakhta Center (Gazprom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CM(건설사업관리) 수주, 설계 등 완료(2019년 완공)
오리온	식품	• 2017년 트베리에 기존 제1공장보다 규모가 큰 신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후 2020년 트베리주와 신공장 투자협정 체결 및 착공(2022년 완공 목표) • 설계사와 시공사 모두 트베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중앙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
대상	식품	• 2015년 6월, 노보시비르스크 인근 베르스크 지역에 위치한 시베리아 조미료 분야 제조사인 V사와 현지 합작생산 추진 위해 대표사무소 개설
CJ	식품	• 2017년 러시아 냉동식품 업체인 라비올리의 자본 100%를 인수하며 4조 원 규모의 러시아 냉동가공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 비비고 브랜드로 한국식 만두를 현지에서 생산해 K-food 시장 개척 모색. 향후 러시아 전역으로 생산설비·영업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확보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

자료: KOTRA(2020), p. 26; 「오리온, 러시아 트베리주와 신공장 투자협정 체결」;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3).

한편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FDI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0~2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 1,3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연간 약 200만~700만 달러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유통 서비스업이며, 2017~19년에는 주로 어업 분야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sup>143)</sup>

143)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7,000만 달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4); 김현수(2020), p. 10 참고.

## 나. 주요 특징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함께 신흥국 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자원 공급국이자 거대시장이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러시아의 성장을 이끈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2014년 이후 경제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인은 크게 약화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전자, 식료품 등 제조업 분야 대기업(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오리온, 한국야쿠르트, 롯데제과, KT&G 등)의 진출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sup>144)</sup> 이들 대기업은 생산공장 설립과 러시아 현지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현지화 노력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sup>145)</sup> 롯데호텔도 2010년 모스크바 지점에 이어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을 개관한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을 인수해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러시아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출한 이들 대기업의 현지 사업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수평적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15]에서 보듯이,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2014~15년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도 그 실적이 양호한 수준이다.<sup>146)</sup> 그러나 대기업(대러시아 투

144)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에서 자원생산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소비가 급증했다. 이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을 추진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롯데제과, KT&G 등 한국기업들도 현지공장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145)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9년 러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각각 21.1%(1위)와 1.8%(9위),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각각 4.0%(8위), 9.3%(2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19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23.1%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기아자동차 12.8%, 현대자동차 10.3%). 김현수(2020), p. 19, 재인용.

146) 투자수익률은 투자수익(현지 투자법인이 한국투자자에게 지급한 투자자순이익, 로열티, 대부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값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

표 3-15. 한국기업의 주요 신흥국별 투자수익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11.7	11.6	12.2	12.5	9.0	2.2	6.2	7.4	5.8
러시아	25.1	30.1	50.9	30.6	-1.1	-2.3	23.2	20.2	28.8
중국	24.1	28.9	27.3	29.5	24.6	13.0	17.8	11.1	9.4
베트남	2.1	1.1	6.0	9.5	3.8	0.5	7.5	22.8	22.2
인도네시아	12.5	10.8	9.1	1.6	2.9	-3.6	4.9	5.5	13.5
브라질	16.6	-5.9	3.9	25.7	16.9	-13.8	21.5	27.4	13.7
인도	53.7	43.3	74.6	26.0	48.0	43.6	20.5	62.4	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

자의 82.63% 차지, 2019년 누적 기준, 표 3-12 참고)을 중심으로 이미 러시아 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기업의 재투자 외에 새로운 투자 움직임은 크게 위축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 생산 프로젝트(2013년 생산 공장 준공)가 대러시아 투자진출을 견인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러시아 국영 송전공사의 장기공급계약 불이행, 러시아의 경기악화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2017년 7월 현지업체에 최종 매각한 바 있다.<sup>147)</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한국기업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지시장 진출’에 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수출 촉진’ 목적의 투자도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대 들어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에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사업 확장을 위한 수평적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최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기진출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시장 추구(market-seeking)와

147)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 이기열 외(2018), pp. 71~75.

물류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성 추구(efficiency-seek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목적은 여전히 자원 추구(resource-seeking)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및 마케팅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 단독으로 시장 추구형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았다. [표 3-16]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금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트렌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신흥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투자가 증가한 배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의 위상이 변화한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신흥국이 선진국 시장을 위한 저임금 기반의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생산기지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신흥국의 생산성과 임금,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내수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sup>148)</sup>

---

148) 김계환 외(2016), pp. 124~126.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3-16. 한국의 세계 및 주요 신흥국,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구분	2015~19년 (2010~14년 대비)	비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비중 증가</li> <li>- M&amp;A: 27.51%→35.22%(7.71%p ↑)</li> <li>- 그린필드: 71.81%→64.13%(7.68%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M&amp;A 증가</li> <li>- 대: M&amp;A 8.18%p ↑, 그린필드 8.23%p ↓</li> <li>- 중소: M&amp;A 9.13%p ↑, 그린필드 8.45%p ↓</li> <li>• 주요 지역(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모두 M&amp;A 비중 증가</li> </ul>
투자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비중 증가</li> <li>- 중소기업: 9.26%→19.71%(10.45%p ↑)</li> <li>- 대기업: 84.89%→77.65%(7.24%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역 모두 중소기업 비중 증가</li> </ul>
세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 진출 급증 →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대</li> <li>- 대기업: (제3국 진출) 11.89%→29.81%(17.92%p ↑) (현지 진출) 40.55%→46.66%(6.11%p ↑)</li> <li>- 중소기업: (제3국 진출) 9.29%→26.82%(17.53%p ↑) (현지 진출) 50.33%→55.06%(4.73%p ↑)</li> <li>• 대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급감(21.92%p ↓ / 중소 2.91%p ↓)</li> <li>•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10.78%p ↓) 및 저임 활용(7.24%p ↓) 투자 비중 급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역 모두 제3국 진출 투자 비중 증가</li> <li>• 아시아 지역의 저임 활용 투자 비중 감소</li> <li>- 대 4.32%p ↓, 중소 6.52%p ↓</li> <li>• 선진기술 도입 투자 증가</li> <li>- 대 3.43%p ↑, 중소 0.25%p ↑; 북미지역이 견인</li> </ul>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부동산업 비중 증가</li> <li>- 대기업: (금융보험) 16.22%→32.03%(15.81%p ↑) (부동산) 8.21%→10.37%(2.16%p ↑)</li> <li>- 중소기업: (금융보험) 4.75%→29.40%(24.65%p ↑) (부동산) 12.04%→15.67%(3.63%p ↑)</li> <li>• 중소기업의 제조업 비중 급감(21.53%p ↓, 대기업 3.89%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역 모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증가</li> <li>•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비중 감소</li> <li>- 대 7.26%p ↓, 중소 16.63%p ↓</li> </ul>

표 3-16. 계속

구분		2015~19년 (2010~14년 대비)	비고
신중국 (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브라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M&amp;A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 M&amp;A 9.02%p ↑, 그린필드 8.77%p ↓</li> <li>- 인니: M&amp;A 20.39%p ↑, 그린필드 20.40%p ↓</li> <li>- 인도: M&amp;A 6.34%p ↑, 그린필드 9.38%p ↓</li> <li>- 브라질: M&amp;A 20.39%p ↑, 그린필드 20.40%p ↓</li> </ul> </li> <li>• 중국 M&amp;A 비중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1.65%p ↓, 그린필드 1.68%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2010~14년에 전 기간(2005~09년) 대비 M&amp;A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8.98%p ↑, 그린필드 3.88%p ↓</li> </ul> </li> </ul>
	투자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1.13%p ↑), 베(10.37%p ↑), 인니(6.19%p ↑), 인도(1.82%p ↑), 브라질(6.99%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19년 국별 중소기업 비중: 베트남, 인니 외 세계 평균(19.71%) 대비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16.53%), 베(38.22%), 인니(22.44%), 인도(14.76%), 브라질(10.84%)</li> </ul> </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현지시장 진출 증가 →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중국(11.28%p ↑), 베(18.20%p ↑), 인니(23.82%p ↑), 인도(12.58%p ↑), 브라질(14.70%p ↑)</li> <li>- 중소기업: 중국(15.97%p ↑), 베(10.94%p ↑), 인니(5.29%p ↑), 인도(22.23%p ↑), 브라질(4.27%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현지시장 진출 투자가 압도적(제3국 진출 투자 비중은 꾸준히 저조)</li> <li>• 모든 국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투자 비중 감소</li> <li>• 중국, 베트남의 저임 활용 투자 비중 감소</li> </ul>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기업의 금융·보험업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 18.97%p ↑, 인니: 43.12%p ↑(증 6.36%p ↓, 브 11.15%p ↓)</li> </ul> </li> <li>• 제조업 비중 변화 국별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대 10.26%p ↑, 중소 7.51%p ↓</li> <li>- 베: 대 5.42%p ↑, 중소 1.47%p ↑</li> <li>- 인니: 대 18.78%p ↓, 중소 0.27%p ↓</li> <li>- 브: 대 19.67%p ↓, 중소 4.5%p ↑</li> <li>- 인도: 대 0.43%p ↓, 중소 9.03%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인도 중소기업의 제조업 비중 감소</li> </ul>
러시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비중 감소했으나 2005~09년 대비 높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5.88%p ↓, 그린필드 6.08%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4년에 전 기간(2005~09년) 대비 M&amp;A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8.98%p ↑, 그린필드 9.11%p ↓</li> </ul> </li> </ul>
	투자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비중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15.33%→13.65%(1.68%p ↓)</li> <li>- 대기업: 83.14%→84.93%(1.79%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평균, 주요 신중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 낮은 수준</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시장 진출 비중 소폭 감소했으나 큰 비중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89.25%→88.52%(0.73%p ↓)</li> <li>- 중소기업: 31.67%→28.57%(3.10%p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4년 대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비중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7.52%(2005~09년)→89.25%(2010~14년)</li> <li>- 88.52%(2015~19년)</li> </ul> </li> <li>• 중소기업의 자원개발 비중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34%(2005~09년)→59.17%(2010~14년)</li> <li>- 59.74%(2015~19년)</li> </ul> </li> </ul>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의 제조업 비중 급감 및 도소매업 비중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71.74%→56.99%(14.75%p ↓), 중소기업(1.45%p ↓)</li> <li>- 도소매업: 1.84%→29.44%(27.60%p ↑), 중소기업(3.91%p ↑)</li> </ul> </li> </ul>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듯 최근 크게 위축된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는 이미 진출한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수평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기업이 자동차, 식료품 분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지의 수입대체 정책 등 투자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에서도 최근 10년간 M&A형 투자가 확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망 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신흥국은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신흥국이 과거와 같은 저임금 기반 생산 활동에서 경쟁력을 잃는 대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가치사슬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과도 연계된다.<sup>149)</sup> 러시아도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추구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IT 기반 첨단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및 디지털 혁명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대러시아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GVC로 대표되는 생산의 세계화 시기에 한국은 전자, 자동차 등 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했다.<sup>150)</sup> 이 산업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즉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확대된 것은 러시아 현지 한국기업의 자동차 공장을 거점으로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지에 자동차 엔진 공장을 건설할 경우 자동차 분야의 산업 내 무역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151)</sup>

이에 최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 및 투자 방식을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

---

149) 김계환 외(2016), pp. 124~126.

150) 위의 책, pp. 130~132.

151) KIEP 전문가포럼 세미나 이상준 국민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10. 7, 서울).

본 것처럼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에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신성장 산업, 혁신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M&A 추진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한류 문화(K-Culture)에 바탕을 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러시아의 내수형 소비재 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망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현지시장을 겨냥한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을 내수시장화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러시아 투자를 주도해온 대기업들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유통·소비재·서비스 시장에서도 시장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생활소비재인 화장품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화장품(HSK 3304)은 2019년 기준 승용차(8703), 자동차 부품(8708)에 이어 한국의 대러시아 3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sup>152)</sup> 특히 2014년 이후 전체 대러시아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러시아의 내수형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투자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러시아 시장에 이미 진입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최근 신규 투자가 부진한 배경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표 3-17]에서 보듯이 한국정부는 2010년대 들어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꾀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3-18]과 같이 정체기에 진입한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

152) 강부균(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14년 0.54%에서 2015~19년 0.25%로 감소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sup>153)</sup> 또한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 트렌드에 비해서도 그 둔화세가 매우 심각하다.

표 3-17. 한·러 투자협력 관련 정책환경 및 주요 이슈

시기	2010~14년	2015~19년
정책 환경	(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북방정책) (러)신동방정책/경제현대화 정책(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2019년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	(한)신북방정책/4차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필요성 증대(20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설) (러)신동방정책/경제현대화·다각화 필요성 심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2014년 이후 서방과의 상호 경제제재 지속으로 수입대체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전환·혁신 강조
양국 관계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수교 20주년에 모스크바 롯데호텔 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li> <li>• 공식·국빈 정상회담 2회(2010. 11, 2013. 11)</li> <li>• 비자면제협정 체결(2013. 11 체결, 2014. 1. 1 발효)</li> <li>•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2013. 11 정상회의 합의): 수출입은행-러 대외경제개발은행(VEB) 간 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러 직접투자기금(RDIF) 간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 규모</li> <li>• 2014년 양국간 교역액 258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국빈 정상회담 1회(2018. 6)</li> <li>•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2015년 출범) 계기 정상회담 2회(2016. 9, 2017. 9)</li> <li>•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2019. 6 협상 개시→2020. 5~6월 5차 협상/2017. 9 한·EAEU FTA 협의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li> <li>• 한국, 러 산업박람회 '이노프롬'(예카테린부르크) 파트너국으로 참여(2018년)</li> </ul>
주요 투자 협력 의제	△러 극동개발 협력(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 △러 경제현대화 정책 참여(에너지효율, 과학 기술, IT·전자정부 등) 등	△현대화 및 혁신 산업협력(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ICT, 보건의료 협력,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축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9개 다리, 투융자 플랫폼 등) △한·EAEU FTA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상호 투자 및 기업 진출 활성화(투자환경 개선, 현지 경영애로 해소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발체 정리; 외교부(2018), pp. 124~18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3) KIEP 전문가 간담회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24, 서울).

표 3-18. 한·러 투자협력 관련 논의 현황

구분	주요 내용
2010년 9월 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한·러 수교 20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러 관세청-한국기업 간 협의채널 구축 △한·러 한시적 고용근로 협정 체결 추진 △연해주 진출 한국 영농기업 지원 △양국 전경련·상공회의소 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li> <li>•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 확대: △러 전력망 현대화 사업 참여 △모스크바주 한국기업 전용공단 개설 △극동 항만 배후 물류단지 개발 △수출입은행과 러 대외경제개발은행(VEB) 간 공동투자 사업 등</li> <li>• 새로운 분야 및 러 현대화 정책 협력 강화: △환경 분야 기술·산업 교류 추진 △방 송통신, 보건 의료 분야 정책교류 및 MOU 체결 추진 △북극해 항로 개척 협력,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추진 등</li> </ul>
2011년 10월 11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 극동 개발 협력: △극동 공항·철도 건설 협력 △의료시설 현대화 협력 △조선소 건설 및 수산 분야 협력 등</li> <li>• 에너지지원 협력: △러 전력망 현대화 사업 참여 △한·러 에너지효율혁신센터 설립 △러시아 천연가스 국내 도입 등</li> <li>• 과학기술 협력: △러 스킴코보 연구단지 내 IT 공동 R&amp;D센터 설립 △나로호 3차 발사 추진 등</li> </ul>
2012년 8월 12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천연가스·정유 △조선, 전력(스마트 그리드) △공항 및 항만 개발 등</li> <li>• 러 경제현대화 정책 참여 확대: △에너지효율 △과학기술 △IT·전자정부 등</li> <li>• 러 WTO 가입 계기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체결 논의 재개 가능성 검토</li> </ul>
2013년 7월 13차 공동위/ 2013년 11월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계기 마련</li> <li>• 극동 진출, 북극항로 개발 등 관심 프로젝트 논의: △극동 농업투자 진출 확대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등 진출 영농기업 애로 해소 △북극해 연안 항만개발 참여 등</li> <li>• 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러 과학기술 혁신포럼' 구축 논의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 '한·러 공동연구센터' 구축 논의</li> <li>• 남북러 3각 사업 이행 논의: 철도망 연계(나진-하산 물류사업), 전력망 연계 등</li> <li>• 보건 의료 유망산업, 중소기업 진출 등 진출 분야 다변화를 위한 협력모델 발굴</li> <li>• 중소 및 중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조성 ※ (2013. 11 정상회담 합의) 수출입은행-러 대외경제개발은행(VEB) 간 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러 직접투자기금(RDIF) 간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 규모 공동 투·융자 플랫폼 조성</li> </ul>
2015년 10월 14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투자 및 기업 진출 활성화 논의: △공동협력사업 금융지원(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 △기업 투자환경 개선(러 진출 기업이 제기하는 현지 투자 환경 미흡, 인허가 어려움 등 개선방안 마련) △투자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간 투자사업 실무그룹 운영 합의 * 러시아 외국인투자 위원회 내 한국기업 참여 합의: 투자 관련 정책 결정 참여, 진출기업 애로 해결방안 마련</li> <li>• 한국기업 현안 대안 협의: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애로(극동 현대 고압차단기 공장 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진출 영농기업 애로(법정 토지임대기간 미보장 등) 해소 및 인프라 조성</li> <li>• 무역·투자 제도적 협력: 표준·인증 분야 협력을 위한 한·EAEU 협의채널 신설</li> </ul>

표 3-18. 계속

구분	주요 내용
2016년 8월 15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주의 배격, 한·EAEU FTA 조속 추진, 극동 협력 강화 등 논의</li> <li>• 분야별 협력 논의: △에너지: 석유가스 분야 기술협력 중요성 논의 △과학기술: 한국 삼성전자와 러 기업 간 IoT(사물인터넷) 기기의 OS(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플랫폼 기술협력 추진 합의</li> </ul>
2017년 9월 16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신북방정책, (러)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한·러 간 경제협력 중요성 확인</li> <li>• △금융협력 확충 △극동 진출 기업 애로 해소(KOTRA-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협의채널 강화) 방안 논의</li> <li>•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견인 및 신북방정책 구현: 과학기술·혁신, 보건·의료, 극동 개발 등 협력 강화</li> </ul>
2018년 6월 17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협력기반 공고화: △극동협력(9개 다리 협력사업 구체화) △금융협력(한국기업의 극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가능성 검토) △농수산협력(농업 비즈니스 대화 정례화 등) 등</li> <li>• 혁신성장을 통한 양국 경제의 미래화: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포럼 개최 등 △과학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ICT 분야 협력 강화 △기술협력(플랫폼, 산업기술 협력, 북극 공동연구 등)</li> <li>• 국민 삶의 수준 고도화: △보건의료(극동에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양국 의료인 교류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상호 정보 및 경험 교환 등)</li> </ul>
2019년 9월 18차 공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수교 30주년 개척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위한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중장기 교역 비전 제시: 2020년 수교 30주년 교역 300억 달러, FTA 체결을 통한 500억 달러, 남북러 경험 활성화를 통한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li> <li>* 한·러 서비스 투자 FTA 2020년 타결 목표로 추진</li> </ul> </li> <li>• 소재·부품·장비 및 ICT, 4차산업 연계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 달러 규모 소부장 펀드 조성 추진: 4억 달러 규모로 1차 조성. 이후 첨단산업, 헬스케어 등으로 확대 고려</li> <li>* 한·러 혁신플랫폼 민간협의체 구성(10월), 오픈 이노베이션 주빈국 참여(2020. 10)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협력 분야 발굴</li> </ul> </li> <li>• 9개 다리 이행 협의체 구성(2019년 내 1차 회의 개최 등 향후 정례화 모색)</li> <li>• 2020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울산)</li> </ul>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발췌 정리.

이는 결국 경제제재, 러시아 경기침체 등으로 현지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탐색비용)과 열악한 비즈니스 인프라 등 심리적, 제도적 요인이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지원 제도가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적극적인 투자사

업 발굴과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역량 부족(전문성, 사업전략 측면),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sup>154)</sup>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소비재·서비스 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

154) 한·러 공동 투자자 플랫폼은 수출입은행이 러시아 투자 항목으로 특정하여 구분해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고, 불특정 공통 예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해외사업 대출을 원하는 기업이 직접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출입은행의 전체 투자 예산 중 협의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러시아 측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신용 리스크 평가부터 구체적인 사업 전략, 출구 전략, 지원된 금융에 대한 신용 보장방안 등을 포함하는 투자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도 한계요인이다. 오영일(2018), pp. 3~4.

## 제4장



#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 가. 선행연구 요약

해외직접투자(이하 FDI) 결정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매우 많다. 보통 한 국가의 FDI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여러 국가의 FDI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Biswas 2002; Rogmans and Ebbbers 2013).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는 분석의 성격 및 분석 대상에 따라 FDI 유입 규모(Rogmans and Ebbbers 2013), FDI 순유입 규모(Jadhav 2012) 또는 GDP 대비 FDI 유입 비중(Suliman and Mollick 2009)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에서 고려하는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때 여러 실증분석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경제변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FDI 수혜국의 시장 규모를 대리하는 GDP 또는 1인당 GDP이다. 시장 규모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을 반영하므로 GDP 또는 1인당 GDP가 커질수록 FDI 유입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Resmini(2000)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 규모가 수혜국의 GDP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Bevan and Estrin(2000) 역시 체제전환 국가의 경우에도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환율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FDI 수혜국의 화폐가 저평가될 경우(실효 환율이 상승할 경우)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타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FDI일 경우 해당 국가의 실효환율이 상승할 때 실질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이러한 양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Froot and Stein(1991)과 Blonigen(1997)은 FDI 수혜국의 화폐가 평가 절하되어 실효환율이 상승할 때 FDI 유입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

시장 발달이 미진하여 환율 변동성이 큰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FDI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환율 수준뿐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Gulen and Ion(2015)이 지적하였듯, 환율 변동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를 보류하는 옵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에서 유래하는 불확실성은 비가역적이고 장기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의 FDI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임금률, 경제활동 참가율 및 인적자본과 같은 노동시장 변수도 중요한 FDI 결정요인이다. 임금 상승은 노동비용 상승을 야기하여 FDI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FDI 유입 패턴이 주로 고임금 국가로부터 저임금 국가로 향하는 양태가 발견된다는 사실(Feenstra and Hanson 1997; Eckel 2003)을 감안하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Wei(2000)와 Janicki and Wunnava(2004)는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Suliman and Mollick(2009)은 인적자본 축적이 FDI 유입을 늘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변수 이외에 다양한 문화·제도적 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Aziz 2018). 첫째, 양질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많은 FDI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치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거나 재산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FDI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할수록 투자비용이 상승하기 쉬우므로 FDI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Wei(2000), Benassy-Quere, Coupet, and Mayer(2007), Brada *et al.*(2018)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제도적 질이 후진적일수록 기업의 투자비용이 증가하여 FDI 유입이 감소함을 보였다. 한편 Xu(2019) 역시 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와 FDI 사이에서 양의 관계를 발견했다.

## 나. FDI 결정요인과 FDI의 질적·양적 패턴

이상을 통해 볼 때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FDI를 결정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다. FDI는 소비와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FDI 규모는 GDP, 환율과 같은 경제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까운 미래에 경제가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 소득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국내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FDI 유입이 증가한다. 반대로 환율 변동성이 커져서 해외투자자의 실효 투자 수익 변동성이 확대되면 FDI 유입은 줄어들게 된다.

FDI는 소비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활동 전반을 규정하는 제도 및 문화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경우 또는 대외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비효율적일 경우 FDI 유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내시장 저변에 해외투자자의 경제활동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FDI 유입은 작아지기 마련이다.

환율, 거시경제 변동성과 같은 가격변수가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FDI 유입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성장률과 GDP 규모와 같은 실물변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FDI 유입 양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도 및 문화 변수는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이른바 성장의 '본원 요인(fundamental factor)'이므로 실물변수보다 더욱 장기적인 시계에서 FDI 유입을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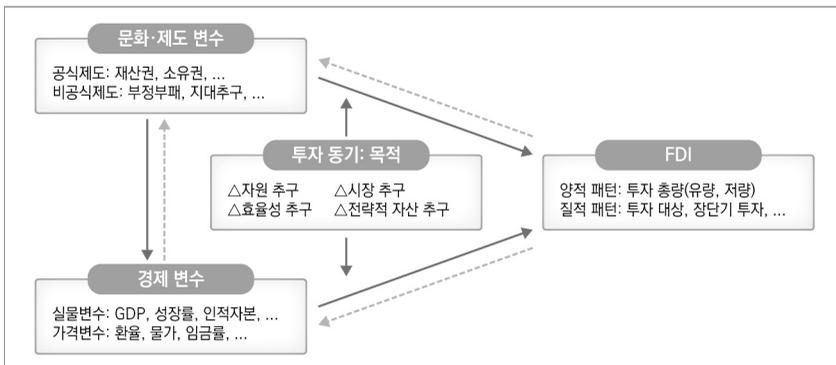
이와 같은 FDI 유입의 양적 양태(quantitative pattern)뿐 아니라, 질적 양태(qualitative pattern) 역시 위의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질적 양태란 총계적인 관점에서 FDI의 다양한 구성적 특성을 의미한다. 즉 FDI 유입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DI 발원국의 투자 규모 순위, FDI의 업종(sector)별 투자 구성(composition), FDI의 장·단기 투자 구성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FDI 총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FDI 비중 감소, 제재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의 FDI 유입 감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단기 FDI 유입 증가 등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FDI에 질적·양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이 FDI의 동기(motiv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혜국의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소유권(ownership)과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가 약화되어 탐사 및 채굴 권리 유지가 어렵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사업 진행 및 수익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면 장기 투자(long-term investment)에 기반한 FDI 및 지식재산권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FDI 유입은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단기(short-term) FDI 유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림 4-1]에 잘 묘사되어 있다. 결국 FDI 결정요인과 이러한 결정요인이 FDI의 질적·양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FDI의 동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 FDI 결정요인과 FDI 투자동기



자료: 저자 작성.

## 다. FDI 동기: 투자 목적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동기를 설명하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왔다.<sup>155)</sup> 이러한 견해에는 새고전파 무역 이론(neoclassical trade theory), 불완전 시장 이론(theory of market imperfections)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상품 생애주기 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 등이 있다.

첫째, 새고전파 무역 이론은 헉셔-올린(Heskscher-Ohlin) 모형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은 서로 상이한 생산요소 부존(endowment of factors of production)에서 비롯되는 교역과 자본의 흐름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 동기는 더 높은 투자수익과 더 낮은 생산비용을 실현하는 방식에 의해 설명된다. 이와는 반대로 불완전 시장 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본원적 성질을 투자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 등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 외부효과(externality)에 의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재산권 보호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제도 격차가 해외직접투자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생애주기 이론은 새로운 상품이 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 점차 주변 중진국 및 저개발국으로 전이되는 경험적 현상을 중요한 투자 동인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 생산과 판매가 여러 국가로 전이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의 양태가 결정된다.

Dunning(2000)은 FDI의 목적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종합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Dunning(2000)의 구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자원 추구(resource-seeking), 시장 추구

---

155) 이재영 외(2008), p. 76.

(market-seeking), 효율성 추구(efficiency-seeking), 전략적 자산 추구 (strategic asset or capability-seeking) 등으로 분류된다.<sup>156)</sup>

첫째, 자원 추구형은 직접투자 동기 중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어왔다. 자원 추구형 FDI는 해당 산업의 상류 부문(탐사와 채광)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원 추구형 투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에서보다 더 싼 가격으로 특정 자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이득을 내거나,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자원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체 하류 부문의 제련 및 제조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여 자국 또는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자국의 에너지 및 다른 자원에 대한 전략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sup>157)</sup>

둘째, 시장 추구형 FDI는 기존의 시장을 유지 및 보호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이다. 즉 시장 추구형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나라에 강한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에서 자원생산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 소비가 급증하면서 많은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로 진출한 사례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시장 추구형 투자를 할 경우 다국적 기업은 그 지역 및 나라의 소비자 취향 및 필요 등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언어, 관습 등 경제활동 관련 경영 현지화가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한다.<sup>158)</sup>

시장 추구형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국에서 생산하여 목적지 국가에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 추구형 해외투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수출을 하

---

156) KIEP 전문가 간담회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24, 서울).

157) 기업 자체 수요에 의해 자원을 추구하는 형태는 국제 원유가격이 장기간 급상승하며 슈퍼사이클(super-cycle)을 연출한 2000년대 중반까지 주효했지만,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산유국에서 석유 및 가스 등을 국유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기업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쇠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추구적 투자의 목표를 기업 자체의 수요보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재영 외(2008), p. 76, 재인용.

158) 위의 책, p. 77.

가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아 수출을 직접투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시장 추구형 투자를 위해서는 그 기업 자체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요 경쟁자들보다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sup>159)</sup>

시장 추구형 투자는 해외에 투자하여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 시장 또는 인근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산활동의 상류 부문보다는 하류 부문에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 추구형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은 대부분 상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해외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60)</sup>

셋째, 효율성 추구 투자는 상품 생애주기의 중기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투자 형태다. 기업이 모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될 경우에 발생한다. 모국과 현지의 생산비용에 격차가 있어야만 다국적 기업이 모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기보다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하거나 제3세계, 또는 모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1)</sup>

이러한 효율성 추구 투자는 제품의 생산비용과 더불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노동/자본의 생산요소 부존(production factor endowment)뿐 아니라, 문화, 제도, 경제제도 및 정책, 시장구조 등에 의해 거래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비용 격차를 염두에 두고 현지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sup>162)</sup>

효율성 추구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이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한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즉 효

---

159) 위의 책, pp. 77~78.

160) 위의 책, pp. 76~77.

161) 위의 책, p. 78.

162) 위의 책, p. 78.

울성 추구 투자는 저임노동과 같은 전통적 요소부존(factor endowment)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사한 경제구조와 소비 수준을 갖는 소비시장이 인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개방되어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적용할 수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sup>163)</sup>

마지막으로 전략적 자산 추구형 투자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자산 구입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는 투자로, 주로 다국적 기업의 국경간 M&A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노하우, 기술, 기업 내 역량(capability), 시장 지배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업을 구매하거나 획득함으로써 이른 시간 안에 기업 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경쟁업체를 통합 또는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장벽(entry cost)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략적 자산추구 FDI를 통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전혀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생산 및 경영 네트워크를 다각화할 수 있다.<sup>164)</sup>

## 라. 본 장의 목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정형화한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기를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그 영향을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식별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목표는 식별한 결정요인 및 영향을 토대로 양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해 질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러 FDI를 증진하는 데 유용한 정책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

163) 위의 책, p. 78.

164) 위의 책, pp. 78~79.

##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 가.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FDI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Delta$ 경제적 요인과  $\Delta$ 문화·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해외시장의 규모(GDP), 해외 생산에 따른 생산비용 변화(임금률, 인플레이션율), 관세, 운송비용 및 환율 조건 등의 교역조건, 외부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제도적 요인은 기업 활동 전반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제도 변수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본의 투자환경과 관련한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 생산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때 전술한 것과 같이, 상기 결정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의 결정요인은 총체적 관점에서 FDI의 총량을 결정할 뿐 아니라, FDI의 업종(sector) 및 투자 시계(장·단기 투자)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투자 동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FDI의 총량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FDI 대상이 되는 업종 및 FDI 동기에 따라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의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Brainard(1997), Ekholm(1998), Lipsey(1999) 등이 제안한 선형 로그방정식의 추정모형<sup>165)</sup>

---

165) 이 모형을 적용하여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국내연구로는 이재영, 이철원(2015)이 있다.

에 상술한 문화·제도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sup>166)</sup> 보다 구체적으로 본 절에서는 [식 4-1]과 같은 실증분석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ln(FDI_{i,q,t}) = \beta_0 + X_{q,t}\beta_1 + Y_{q,t}\beta_2 + \beta_3sanction_{q,t} + \varepsilon_{i,q,t} \quad \text{[식 4-1]}$$

$i$ 와  $q$ 는 각각 개별 투자 건(case)과 분기(quarter)를 나타낸다. 종속변수  $FDI_{i,q,t}$ 는 특정 분기  $q$ , 특정 연도  $t$ 에 한국의  $i$ 번째 대러시아 FDI 액수를 나타낸다.  $X_{q,t}$ 와  $Y_{q,t}$ 는 각각 경제적 변수와 문화·제도적 변수를 포함하는 벡터(vector) 항이다.

경제적 변수로는 수혜국 러시아의 △경제 규모(GDP) △경제성장률 △임금을 △인적자본 △노동 가능 인구 △환율 △물가 수준 △환율 변동성 △소득세 세수 비중을 고려한다.

첫째, 경제 규모와 경제성장률은 수혜국의 성장성과 소비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즉 수혜국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질수록 FDI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임금률, 인적자본 및 노동 가능 인구는 수혜국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인적자본은 노동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임금 변화와 함께 수혜국의 생산비용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수혜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을 활용하는 효율성 추구형 FDI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166) 이 외에도 Markusen(1997)이 제안한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이 있다. 일반적으로 FDI는 그 성격을 기준으로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와 수직적 투자(vertical FDI)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자본모형은 이러한 두 동기를 일반균형모형의 내생적 해법(solution)으로 파악하므로, 이 모형을 활용하면 수평적 투자 및 수직적 투자의 동인이 되는 여러 FDI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절의 연구 목적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식자본모형 대신 보다 직관적인 [식 4-1]을 활용하기로 한다.

셋째, 환율과 물가 수준은 FDI의 실질 투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자국 화폐(루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실효 생산비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환율과 FDI 간 정(+)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FDI 유입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될 수 있다(Nath 2004).<sup>167)</sup> 그러나 이러한 부(-)의 관계는 개발도상국을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Asiedu 2002).

환율 변동성은 러시아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대리하는 가격변수이다.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취약한 펀더멘털(fundamental)로 인해 환율이 크게 변동한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환율 변동성 역시 중요한 FDI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경제의 취약성 및 투자비용 상승을 의미하는 이러한 가격변수와 FDI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이다. 체제전환 경제의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비교적 활발하므로 GDP 대비 정부 세수로 평가한 정부 규모가 소득에 비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정부 세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대신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로 세수를 주로 충당한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최적 조세이론(optimal taxation theory)에 따르면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후생 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성장 잠재력이 더욱 저해

---

167)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관세율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자국 생산·판매의 유인이 강해지므로 FDI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관세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교역량 감소를 의미하므로 교역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FDI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율을 본 실증분석에 추가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형의 설명력도 거의 개선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FDI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화·제도적 변수로는 수혜국 러시아의 전반적인 △투자 여건 △부정부패 △재산권 보호를 고려한다.<sup>168)</sup> 이러한 변수들이 개선될수록 해외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이 작아져 FDI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anction_{q,t}$ 는 특정 분기  $q$ , 특정 연도  $t$ 에 '주요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발동되었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정민현(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방의 여러 대러시아 경제제재 중에서도 2014년 3분기에 미국이 행한 경제제재를 기점으로 러시아로의 FDI 유입 양태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sup>169)</sup> 따라서 본 실증분석에서도 이 시점을 전후로 하여 각각 0과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고려한다. 이 때 러시아로의 FDI 유입 총량은 해당 시점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FDI 총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으므로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sanction_{q,t}$ 의 계수  $\beta_3$ 의 부호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168) 정민현, 김초롱(2019)은 이러한 문화·제도 변수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외에도 유용한 문화·제도 변수로서 World Bank의 World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부패 통제력(control of corruption) △규제의 질(Government Effectiveness) △법제도 신뢰성(Rule of Law) △정치안정 및 폭력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시민참여 및 언론 자유도(Voice and Accountability) 등의 지표를 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장의 실증분석에 이러한 지표를 추가하여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을 다양한 지표로 제공하는 Polity IV 데이터의 각종 변수('DEMOC', 'AUTOC', 'POLITY', 'POLITY2', 'XRCOMP', 'XROPEN' 등)를 실증분석에 반영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69) 이 외의 정책변수로서 러시아 정부의 이른바 '산업현대화' 전략과 관계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후 메드베데프에 의해 가시화된 경제현대화 전략 또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디지털산업 육성 전략 등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의 값을, 그 전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고려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명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6년 이후 1의 값을, 이전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고려했으나 결과는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모두 실증분석에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정책변수로는 러시아의 FDI 지원책,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지원 펀드 등이 있다. 러시아 시장 진출에 고위급 회담과 같은 비공식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급 회담 횟수와 같은 일종의 정치적 변수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유·무형의 정책 혹은 정치 변수가 한국의 대러시아 FDI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 나. 데이터

한국의 대러시아 FDI 데이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20년 동안 국내기업이 러시아에 직접 투자한 실제 금액을 사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기업 수준의 통계자료이지만, 기업 식별코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차원의 이질성(heterogeneity) 및 시간 효과(time effect)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대신 투자자 규모(개인, 개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 등 기타)와 투자업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터미변수를 활용하여 기업 차원의 이질성과 시간 효과를 최대한 통제하기로 한다.<sup>170)</sup> 본 연구에서는 기업 차원의 투자의사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 투자자 규모 변수에서 개인과 비영리 단체를 분석에서 제외했다.

한편 제조업 중에서도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FDI 결정요인과 영향을 따로 식별하기 위해 OECD(2011)의 제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하위 부문으로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표 4-1]과 같이 분류했다.

표 4-1.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분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중급 기술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5)
	고급 기술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27)

주: 괄호 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번호를 나타냄.

자료: OECD(2011)를 토대로 저자 작성.

170) 투자자 규모를 중심으로 산업별, 분기별로 합산하여 투자자 규모를 하나의 개체로 대체하는 이른바 가패널(pseudo panel) 방법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개체 고유의 고정 효과(individual fixed effect)를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로 대체함으로써 개체가 가진 고유의 시간 불변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만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렇게 가패널을 구성할 경우 관측치가 매우 작아져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룹으로 묶어 합산하는 대신 개별 투자 건을 각각의 관측치로 삼아 분석하기로 한다.

러시아 GDP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개발지수(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임금률은 옥스퍼드 글로벌 경제 데이터베이스(Oxford Economics Global Database)의 시간당 임금률(USD) 자료를, 인적자본은 캘리포니아 대학 학자들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펜 월드 테이블(PWT: Penn World Table) Ver. 9.1의 인적자본 'hc'를 각각 활용했다. 이 자료는 15세 이상 성인의 교육 수준(education attainment)에 교육에 따른 수익률 추정치를 부가하여 계산한 인적자본 저장(stock)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에서도 2017년까지의 인적자본만 집계하고 있으므로 2018년과 2019년의 인적자본은 선형으로 추세 외삽(extrapolation)했다. 노동 가능 인구는 15~64세 사이의 인구 수로 정의했으며, 분기별 환율과 환율 변동성은 월별 환율의 분기별 절대 평균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정했다. 마지막 경제변수인 물가 수준은 대부분의 기존 문헌과 마찬가지로 비용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신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했다. 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WDI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2019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2000~18년의 자료를 추세 외삽해 계산했다.

문화·제도 요인으로써 △투자 여건 △부정부패 △재산권 보호 변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PRS 그룹에서 발간하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투자개요 지수(investment profile)', '부정부패 지수(corruption)', '경제적 위험 지수(economic risk rating)'에서 각각 가져왔다. 투자개요 지수는 정치적, 경제적 위험과 독립적인 투자 관리에 수반되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구성항목으로는 △계약 이행의 수월성 △투자수익의 송금 자유도 △지불 유예 가능성이 있다. 부정부패 지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경제적 위험 지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sup>171)</sup> 투자개요 지수 및 부정부패 지수는 높을수록 투자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위험 지수는 높을수록 투자에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세 지표는 모두 월별 지표이므로 분기별 절대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했다. 다만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2017년 1/4분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2017년 2/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까지는 추세 외삽한 자료를 활용했다.

[표 4-2]는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정의와 출처 및 통계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4-2. 변수 정의와 출처

경제 변수	$GDP_{q,t}$	GDP	십억 달러	World Bank WDI	분기자료
	$growth_t$	GDP 성장률	%	World Bank WDI	연간자료
	$w_{q,t}$	시간당 임금률	USD	Oxford Economics	분기자료
	$hc_t$	인적자본	n.a.	PWT ver. 9.1	연간자료
	$labor_t$	15~64세 인구 수	백만 명	World Bank WDI	연간자료
	$ex_{q,t}$	환율(RUB/USD)	루블	Oxford Economics	분기자료
	$stdex_{q,t}$	환율(RUB/USD)의 표준편차	n.a.	저자 계산	분기자료
	$price_{q,t}$	GDP 디플레이터	n.a.	Oxford Economics	분기자료
	$tax_t$	소득세(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n.a.	World Bank WDI.	연간자료
	$sanction_{q,t}$	2014년 3분기 이후=1, 이전=0	n.a.	정민현(2019)	분기자료
문화· 제도 변수	$icrginv_{q,t}$	전반적 투자 여건	n.a.	ICRG	분기자료
	$icrgcorr_{q,t}$	부정부패 정도	n.a.	ICRG	분기자료
	$icrgerr_{q,t}$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	n.a.	ICRG	분기자료

주: 1) 모든 변수는 러시아의 지표이며,  $GDP_{i,t}$ ,  $w_{i,t}$ ,  $labor_{i,t}$ 는 로그(log)를 취한 값임.

2)  $hc_t$ 과 모든 문화·제도 변수는 각각 2018년 1/4분기, 2017년 2/4분기 자료부터 추세 외삽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tax_t$ 는 2019년 값을 추세 외삽하였음.

3)  $icrginv_{i,t}$ 는 높을수록 전반적 투자여건이 좋아짐을,  $icrgcorr_{i,t}$ 는 높을수록 부정부패가 완화됨을 나타내는 반면,  $icrgerr_{i,t}$ 은 높을수록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화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171) 해당 지표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된 이후 경제학계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다. 실증분석 결과

본 소절에서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투자교류를 시작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을 투자동기별, 업종별, 투자자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 변수뿐 아니라 근원요인(fundamental factor)으로서의 문화·제도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다. 특히 주요 결정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동기와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자의 규모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 표본을 하위 표본으로 나누어 이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패널 데이터 형태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 4-1]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 투자자 규모, 투자대상 업종, 투자동기 등의 특성을 더미변수로 통제하는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 추정 방법을 채택했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투자자, 투자업종 그리고 투자동기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투자자 규모 더미, 투자업종 더미 그리고 투자동기 더미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연도 더미와 분기 더미로 각 시점의 관측되지 않고 고정된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표 4-3]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본 실증분석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경제 및 문화·제도 변수가 대러시아 FDI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우선 (1)열을 보면 추정치(estimate)의 부호가 선행연구와 직관에 대체로 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러시아의 시장 규모, 소비력 등을 의미하는 GDP가 높아질수록 대러시아 FDI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추정치는 FDI의 GDP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러시아 GDP가 1% 커질 때 대러시아 FDI는 평균적으로 4.8%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1%p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의 FDI도 매년 약 4.8%씩 더 늘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대러시아 FDI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러시아 FDI는 감소한다. 이는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인적자본이 축적되거나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 FDI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셋째,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FDI는 감소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환율(RUB/USD)과 대러시아 FDI의 관계이다. 환율이 상승할수록, 즉 루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대러시아 FDI 역시 증가하며 이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환율이라는 가격변수 역시 GDP라는 실질변수만큼 FDI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루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오히려 대러시아 FDI가 증가하는 것에는 루블화 가치절하로 인해 투자의 실질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논리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FDI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정리하면 환율 변동성보다는 환율과 물가 수준이 한국의 대러시아 FDI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가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에 더욱 의존할수록 한국의 대러시아 FDI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제 문화·제도 변수와 FDI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4-3]의 (1)열 하단을 보면 문화·제도 변수 역시 경제변수 못지않게 FDI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반적인 투자 요건이 개선될수록 또는 부정부패가 완화될수록 FDI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사유재산권이 더욱 침해되면 FDI는 감소하지만,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음의 두 가지 발견이다. 첫째, 문화·제도 개선으로 인한 FDI 증가 효과가 매우 높다. 둘째, 투자환경 개선의 FDI의 증가 효과보다 부정부패 완화로 인한 FDI 증가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어 ICRG의 투자개요 지수

(0~12점 만점)가 1점 상승할 때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는 평균적으로 약 35%( $e^{0.298} - 1$ )나 상승하는데, 부정부패 지수(0~6점 만점)가 1점 상승하는 경우 FDI는 평균적으로 무려 128%( $e^{0.822} - 1$ )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3/4분기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 실증모형 (1)을 통해 경제 규모, 환율, 물가 수준, 전반적 투자환경, 부정부패 그리고 EAEU 발효 여부가 우리나라의 FDI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의 (2)~(4)열은 이렇게 식별한 주요 결정요인 중 △경제 규모 △부정부패 △대러시아 경제제재 여부에 투자동기 더미를 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각각 추가한 후의 결과를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의 대러시아 FDI는 시장 추구 및 자원 추구형 투자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시장 추구와 자원 추구의 투자동기 더미를 주요 FDI 결정요인에 곱한 후 분석을 진행했다.

(2)~(4)열의 결과를 보면 (1)열의 결과에서 얻은 추정치의 부호뿐 아니라 그 크기(magnitude) 역시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은 (2)열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원개발을 위한 FDI가 시장 진출을 위한 FDI 보다 GDP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FDI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FDI보다 러시아 경제 규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3)열을 통해 부정부패로 인한 FDI 감소 효과는 시장 진출을 위한 FDI보다 자원 개발을 위한 FDI에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자원 추구형 FDI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익 확보 여부가 중요한 만큼 거래 및 계약의 안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열의 결과는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FDI 감소 효과가 시장 추구와 자원 추구 투자동기에 대체로 유사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는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FDI보다 경제 여건(GDP)뿐 아니라 문화·제도적 환경(부정 부패) 측면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영향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앞에서 보인 것처럼 경제 여건보다 문화·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인한 FDI 증가 효과가 양적으로 훨씬 크다. 따라서 자원 추구형 FDI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면 특히 부정부패 및 지대 추구 완화를 목표로 대외협력 거버넌스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문화·제도적으로 FDI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4-4]의 (1)~(3)열은 제조업, 서비스, 농·임·수산·광업 부문에 대한 FDI 표본만을 따로 분리하여 [식 4-1]의 실증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sup>172)</sup> 이를 통해 앞에서 식별한 FDI 결정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 부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GDP와 FDI의 정(+)의 관계는 (3)열의 농·임·수산·광업 부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농·임·수산·광업 부문에 대한 FDI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FDI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의 [표 4-3]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는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 GDP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원 개발형 FDI가 주를 이루는 농·임·수산·광업 부문에 대한 FDI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둘째, 농·임·수산·광업 부문의 FDI는 노동 가능 인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 가능 인구가 많아질수록 해당 부문에 대한 FDI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172) 여기서 각 부문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업종대분류를 따랐으며, 서비스 부문은 한국의 대러시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설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하였다.

셋째,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은 농·임·수산·광업 부문보다 가격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비스 부문의 FDI는 환율이 상승할수록, 즉 루블화가 평가절하될수록 증가한다. 흥미로운 것은 물가 수준이 하락할 때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의 대부분이(지난 10년간 90.35%) 현지 시장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시장 추구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의 시장 독점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물가 수준의 하락은 판매자의 이윤 감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때 더욱 그렇다.

넷째, 경제제재라는 글로벌 환경변수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소거되거나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가 즉각적으로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표 4-3]에서 발견한 문화·제도 변수와 FDI의 관계는 오직 제조업 부문에서만 발견된다. 다른 부문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러시아 FDI의 상당 부분(지난 10년간 66%)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를 더욱 늘리고자 한다면 러시아의 문화·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조업 중에서도 중·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표 4-1 참고)에 대한 FDI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를 다시 중급,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쪼개어 각각 실증 분석한 결과를 [표 4-5]에 정리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1)열에 나타나 있다. 중·고급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일반의 경우 부정부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만, 영향의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통계적 유의성)에서 부정부패에 의한

영향이 훨씬 강하다. 경제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물가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만 문화·제도 변수와 비교했을 때 그 강도는 훨씬 약하다.

둘째, (3)열의 결과를 통해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인적자본 확충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2)열을 보면 인적자본은 중급 기술  
이 필요한 중부가가치 제조업의 FDI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고급 기술일수  
록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 집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중급  
기술을 요구하는 중부가가치 제조업과는 달리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의 경우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때 한국의 FD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기술 특허와 같  
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대러시아 FDI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급 기술을 요  
하는 중부가가치 제조업만 따로 놓고 봤을 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FDI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결국 같은 제조업 부문에서  
도 기술적 특성에 따라 FDI 결정 요인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식별한 FDI 결정요인이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표본을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  
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눈 후 동일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는 [표 4-6]에 정  
리되어 있다. 통계적 유의미성은 희석되었지만, 각각의 설명변수가 FDI에 미  
치는 영향(추정계수의 부호)은 대체로 [표 4-3]의 (1)열과 유사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서 분명한 차  
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1)열과 (2)열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반적인 투자 여건과 부정부패와 같은 문화·제도적 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  
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업 역량과 투자재원 관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Delta$ 전반적 투자환경  $\Delta$ 부정부패 완화와 같은 문화·제도 여건 개선에 의한 FDI 증가효과는  $\Delta$ GDP  $\Delta$ 임금 수준  $\Delta$ 환율  $\Delta$ 물가 등 경제 여건 개선으로 인한 FDI 증가 효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적인 관점에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Delta$ 자동차  $\Delta$ 전자장비  $\Delta$ 화학제품 등 중급의 기술을 요구하는 중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FDI 유입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했다. 분석 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가 전체 대러시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투자동기 측면에서, 자원 개발을 위한 FDI가 시장 진출을 위한 FDI보다 GDP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부정부패로 인한 FDI 감소 효과는 시장 진출을 위한 FDI보다 자원 개발을 위한 FDI에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원 추구형 FDI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익 확보 여부가 중요한 만큼 거래 및 계약의 안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DI 결정요인은 투자대상 업종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제조업 부문, 특히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대러시아 FDI는 경제변수 못지않게 문화·제도 변수에 의해 더욱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 관리가 수월할수록, 또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수록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대러시아 FDI

를 늘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인적자본 확충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급 기술을 요구하는 중부가가치 제조업과는 달리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때 한국의 FDI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기술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투자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도 FDI 결정요인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투자 여건 및 부정부패와 같은 문화·제도적 여건이 대러시아 FDI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역량과 투자재원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 총액뿐 아니라 투자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 추구형 FDI 및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를 유의미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즉 △계약 이행 △투자주의 환류 △지불 연체 등과 관련된 러시아 현지의 전반적 투자 여건 개선과 함께 부정 부패가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시아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 거버넌스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절실하다.

둘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경제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러 제재가 소거되거나 대러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러 FDI가 즉각적으로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다. 따라서 제재 우회 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한·EAEU FTA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진출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4-3.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전체 표본)

설명 변수	(1)	(2)	(3)	(4)
$GDP_{q,t}$	4.750** (2.328)	3.987* (2.319)	4.175* (2.361)	4.636** (2.334)
$GDP_{q,t} \times$ 시장 추구		0.239 (0.454)		
$GDP_{q,t} \times$ 자원 추구		1.345*** (0.328)		
$growth_t$	0.0206 (0.0208)	0.0200 (0.0206)	0.0204 (0.0208)	0.0207 (0.0209)
$w_{q,t}$	-4.109* (2.114)	-3.627* (2.100)	-3.751* (2.122)	-4.022* (2.119)
$hc_t$	25.33 (17.05)	23.11 (16.87)	24.73 (17.09)	25.55 (17.00)
$labor_t$	20.67 (19.94)	16.84 (19.80)	20.97 (19.96)	20.81 (19.96)
$stdex_{q,t}$	-0.0651 (0.103)	-0.0554 (0.102)	-0.0740 (0.103)	-0.0611 (0.103)
$ex_{q,t}$	0.0717* (0.0373)	0.0702* (0.0383)	0.0669* (0.0375)	0.0709* (0.0372)
$price_{q,t}$	-0.0595* (0.0335)	-0.0599* (0.0335)	-0.0534 (0.0341)	-0.0587* (0.0335)
$tax_t$	-0.0574 (0.101)	-0.0639 (0.0999)	-0.0220 (0.104)	-0.0519 (0.101)
$icrginv_{q,t}$	0.298* (0.176)	0.291* (0.171)	0.242 (0.175)	0.297* (0.176)
$icrgcorr_{q,t}$	0.822** (0.385)	0.733* (0.383)	1.081** (0.518)	0.834** (0.385)
$icrgerr_{q,t}$	-0.000304 (0.0195)	-0.00168 (0.0195)	-0.00330 (0.0197)	-0.000696 (0.0195)
$sanction_{q,t}$	-0.311 (0.457)	-0.309 (0.454)	-0.302 (0.463)	-0.643 (0.581)
$icrgcorr_{q,t} \times$ 시장 추구			-1.031* (0.607)	
$icrgcorr_{q,t} \times$ 자원 추구			0.556 (0.583)	
$sanction_{q,t} \times$ 시장 추구				0.337 (0.381)
$sanction_{i,t} \times$ 자원 추구				0.363 (0.397)
관측치	1,163	1,163	1,163	1,163
Adj. R-squared	0.420	0.428	0.425	0.421
시간 더미	Yes	Yes	Yes	Yes
투자업종 더미	Yes	Yes	Yes	Yes
투자자규모 더미	Yes	Yes	Yes	Yes
투자동기 더미	Yes	Yes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에 강건(robust)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표 4-4.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투자부문별 표본)

설명 변수	(1)	(2)	(3)
	제조업 부문	서비스 부문	농·임·수산·광업 부문
$GDP_{q,t}$	6.459 (4.088)	4.832 (4.115)	6.115* (3.907)
$growth_t$	0.00331 (0.0312)	0.0401 (0.0318)	0.0488 (0.0541)
$w_{q,t}$	-5.673 (3.518)	-3.981 (3.858)	-5.588 (3.693)
$hc_t$	47.66* (27.54)	12.64 (27.24)	54.20 (38.87)
$labor_t$	-10.43 (37.48)	12.15 (35.13)	95.80*** (36.35)
$stdex_{q,t}$	-0.0915 (0.185)	-0.0140 (0.190)	-0.306 (0.204)
$ex_{q,t}$	0.0563 (0.0681)	0.114* (0.0652)	0.0417 (0.0829)
$price_{q,t}$	-0.128* (0.0693)	-0.0348 (0.0541)	-0.0788 (0.0663)
$tax_t$	-0.091 (0.135)	0.0310 (0.225)	0.135 (0.157)
$icrginw_{q,t}$	0.537** (0.225)	0.0887 (0.456)	0.278 (0.336)
$icrgcorr_{q,t}$	1.452** (0.726)	-0.118 (0.834)	0.132 (0.623)
$icrgerr_{q,t}$	-0.017 (0.0339)	-0.030 (0.0327)	-0.030 (0.0399)
$sanction_{q,t}$	-0.546 (0.734)	-0.887 (0.842)	1.847** (0.873)
관측치	386	438	204
Adj. R-squared	0.551	0.347	0.525
시간 더미	Yes	Yes	Yes
투자업종 더미	Yes	Yes	Yes
투자자규모 더미	Yes	Yes	Yes
투자동기 더미	Yes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에 강건(robust)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표 4-5.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제조업 기술특성별 표본)

설명 변수	(1)	(2)	(3)
	중급+고급 기술	중급 기술	고급 기술
$GDP_{q,t}$	2.321 (6.995)	4.499 (6.941)	16.77* (8.865)
$growth_t$	0.0431 (0.0435)	0.0397 (0.0449)	0.212*** (0.0742)
$w_{q,t}$	-1.411 (5.811)	-2.878 (6.288)	-12.34 (8.562)
$hc_t$	31.68* (24.80)	68.11 (51.98)	240.6** (126.8)
$labor_t$	-24.43 (55.59)	-9.707 (71.46)	-134.5 (121.9)
$stdex_{q,t}$	-0.191 (0.190)	-0.314 (0.277)	-0.255 (0.199)
$ex_{q,t}$	0.0679 (0.0646)	0.0412 (0.0803)	-0.0559 (0.187)
$price_{q,t}$	-0.143 (0.0933)	-0.166 (0.111)	-0.409** (0.168)
$tax_t$	-0.0978 (0.235)	-0.0950 (0.281)	-0.0744 (0.620)
$icrginv_{q,t}$	0.783* (0.438)	0.525 (0.665)	0.0455 (1.016)
$icrgcorr_{q,t}$	2.958*** (1.116)	2.888** (1.418)	1.058 (1.440)
$icrgerr_{q,t}$	-0.0486 (0.0522)	-0.0287 (0.0570)	-0.181* (0.0882)
$sanction_{q,t}$	-1.103 (0.907)	-2.309** (1.129)	-0.0405 (1.151)
관측치	183	137	46
Adj. R-squared	0.487	0.544	0.664
시간 더미	Yes	Yes	Yes
투자자규모 더미	Yes	Yes	Yes
투자동기 더미	Yes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에 강건(robust)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표 4-6.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기업 규모별 표본)

설명 변수	(1)	(2)
	대기업	중소기업
$GDP_{q,t}$	2.911 (4.653)	3.818 (2.554)
$growth_t$	-0.00592 (0.0333)	0.0279 (0.0260)
$w_{q,t}$	-2.576 (4.170)	-3.133 (2.330)
$hc_t$	14.12 (32.42)	16.66 (18.44)
$labor_t$	8.912 (37.71)	21.58 (21.40)
$stdex_{q,t}$	0.0572 (0.140)	0.0663 (0.0900)
$ex_{q,t}$	0.0296 (0.0430)	0.00571 (0.0282)
$price_{q,t}$	-0.0420 (0.0626)	-0.0343 (0.0391)
$tax_t$	-0.0788 (0.172)	-0.107 (0.0963)
$icrginv_{q,t}$	0.560 (0.394)	0.293* (0.168)
$icrgcorr_{q,t}$	0.642 (0.725)	0.888** (0.425)
$icrgerr_{q,t}$	-0.0305 (0.0326)	0.0261 (0.0232)
$sanction_{q,t}$	-0.941 (0.835)	-0.148 (0.479)
관측치	472	677
Adj. R-squared	0.458	0.399
시간 더미	Yes	Yes
투자업종 더미	Yes	Yes
투자동기 더미	Yes	Yes

주: 1)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이분산에 강건(robust)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 제5장



# 결론: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 1.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냉전 종식 후 가속화됐다. 민영화가 완료된 덕분에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해외 자본 투자 및 자산 매입 등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이미 신흥국가들 중 5위를 차지했다.<sup>173)</sup>

러시아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러시아 기업들의 기술 습득 및 해외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러시아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러시아의 제조기업들도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을 점차 키워나갔다. 2009년 9월 미국 GM이 투자한 독일 자회사인 OPEL의 지분을 캐나다 회사(Magna)와 러시아 스베르방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55% 획득하기도 했다.<sup>174)</sup> 당시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자동차 회사 GAZ의 최대 채권자였다. 소련 해체 후 GAZ는 밀려드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는 상태였다. 러시아 정부와 GAZ의 경영진들은 고용과 지방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개혁과 함께 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GAZ는 GM의 구매담당 고위 임원을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글로벌화에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PEL을 인수했던 것이다.

러시아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투자 경향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과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시행 이전까지 지속됐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러시아의 해외투자 누적액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했다.

173) UNCTAD,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174) "GM to sell stake in Europe's Op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표 5-1.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백만 달러)	3,015	20,141	120,417	433,655	501,202	431,865
세계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0.11	0.25	1.13	2.12	1.9	1.67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자 간 비율(%)	55.17	62.54	90.89	102.48	87.07	114.09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잔액 중 키프로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42.06	33.67	자료 없음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중 키프로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36.64	34.18	자료 없음
러시아의 對키프로스 누적투자액과 키프로스의 對러시아 누적투자액 비중(%)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85.92	83.38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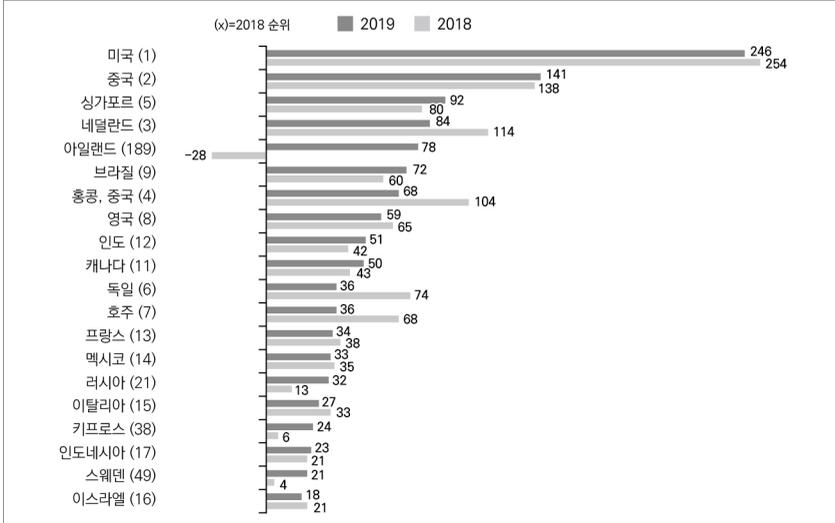
자료: Liuhto(2015), pp. 11-13.

[그림 5-1]과 [그림 5-2]에서 잘 나타나듯이, 2018년과 2019년에도 러시아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순위에서 유입과 유출 모두 20위권 안에 위치했다.<sup>175)</sup>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2014년 이후 지속 및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는 러시아 기업과 글로벌 사회 간 연계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5) UNCTAD(2020), p. 12.

그림 5-1. 2018~19년 주요 20개 투자 유치국의 FDI 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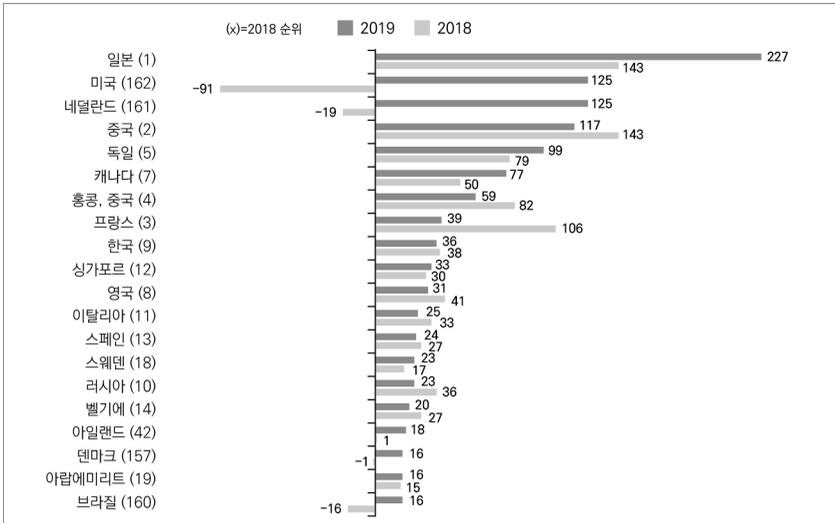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2020), p. 12.

그림 5-2. 2018~19년 주요 20개 투자국의 FDI 유출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CTAD(2020), p. 12.

비록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 및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다소간 침체되긴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는 글로벌 M&A 시장에서 상당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로 투자를 국한시켜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앞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거의 미미한 편이다. 크림반도 병합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해외투자가 위축된 2014년 이후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의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07~10년 사이에도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했다.

반면 이 시기에 한국기업들(현대, 삼성, LG, 롯데 등)은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13억 6,000만 달러)를 진행했다. 이런 경향은 2013년까지 지속됐지만, 2014년 이후 급감했다.<sup>176)</sup>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선도했던 25개 다국적 기업들(MNC)과 한국기업들 간에 무역 및 통상 거래가 미미했거나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기업들과 사업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형성할 접점이 부재했던 것이다. 당시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선도하던 기업들은 노릴스크 니켈, 루코일, 가스프롬, 세베르스탈, 루살 등과 같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철강, 금속 분야의 기업들이었다. 물론 텔레콤 금융 및 유통 분야의 투자도 있었지만, 에너지 및 금속 분야의 기업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다.<sup>177)</sup> 주지하듯이 한국시장은 이들 러시아 대표 기업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장이었다. 또한 이 러시아 기업들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는 거래해온 파트너들이 존재했으나, 한국에는 부재했다. 당연히 이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인 진출을 꾀할 유인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주력 수출기업들의 거래 행태와 에너지 및 천연자원과 같은 상품 거래의 성격에 있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 및 자원 등과

---

176) Bank of Russia(2020), pp.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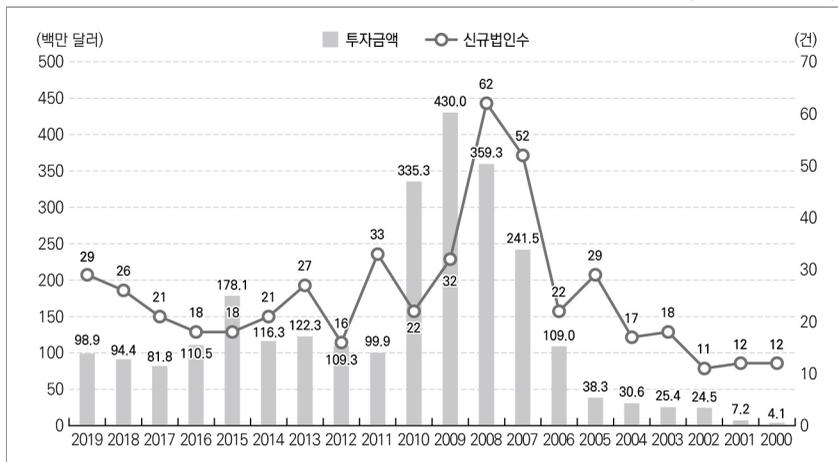
177) 김석환(2008), pp. 24~26.

관련한 거래는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산업간 연계와 금융협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장기계약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협력사업 경험은 물론이고, 시장 지배력과 연관된 전략이 완성된 후에야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의 유전 및 광물개발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아울러 러시아의 관련 기업들도 한국보다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인도의 경우 사할린 유전 및 가스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처럼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가 사실상 부재했던 데 비해, 한국기업들은 수교 이후 러시아 시장 진출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도 초기의 시장 탐색이 끝난 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냉전시기 이념 장벽에 막혀 있던 새로운 시장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안정성을 보이자 시장 진출 및 개척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었다.

그림 5-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추이(2000~19년)

(단위: 백만 달러, 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역시 다른 나라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림 5-3]에서 보듯이,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19년 말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총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26억 1,646만 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0.54%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가운데 다른 신흥국인 중국은 13.5%, 베트남은 5.0%, 인도네시아는 2.1%, 인도는 1.2%, 멕시코는 1.2%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에 비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다른 지역에 투자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인도, 멕시코의 2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sup>178)</sup>

앞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1위 투자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였다. 반면 한보 그룹의 투자를 제외하면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에너지 및 금속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의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보의 경우도 아주 짧은 기간 지분 보유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쳐, 사실상 한국기업의 러시아 자원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상호 투자를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는 저탄소 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국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기업의 변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투자 분야(에너지 및 금속 등 자원 분야)에 대한 장기적 협력 및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4차

17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

산업 관련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요즘 러시아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경향성을 보여주는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연관한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권역별로 주요 투자국을 선정해서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 러시아의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했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대러시아 투자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편에 속한다. 또한 최근 크게 위축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기진출 제조 분야 대기업의 수평적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M&A형 투자가 확대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 및 투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산업다각화와 고도화를 추구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IT 기반 첨단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그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제도적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고,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으며,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근거해서 문화·제도적 여건 개선,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FDI 확대를 위한 근본적 방안 모색(인적자본 확충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외국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 기업 가운데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철강 및 금속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외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도 에너지 및 금속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요 매출을 해외에서 얻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가장 글로벌한 기업이기도 하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FDI는 소련이 해체되고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허용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크림반도 병합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취해진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표 5-2], [표 5-3], [표 5-4]에서 보듯이, 외국 기업들은 합작투자,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생산물 분배협정(PSA) 등의 방법으로 러시아 에너지 기

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이는 에너지 및 금속산업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 지배력도 확고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감소했다고 해도 러시아에서 에너지 및 금속 부문의 경쟁력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막강하다. 또한 러시아에서 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다각화 분야에서의 협력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 기업과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 관심 분야인 에너지와 철강 및 금속 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해본 적이 거의 없다. 이는 당연히 양국간 투자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주요한 동인이었다. 더욱이 한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주로 무역 형태로 수입해오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등도 광구의 지배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전방위적 형태의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표 5-2.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외국기업의 주요 합작투자 현황

합작기업	소재지	파트너사	설립연도	2001년 기준 생산량 (단위: 미터톤)
KomiArtikOil	티만 페코라 분지	British Gas(50%), 2000년 이래 LUKoil Komineft(40%), 1999년 이래 LUKoil Ukhtaneftegazgeologiy a(10%)	1991	0.9
LUKoil AIK	서시베리아	LUKoil, LUKoil-Israel	1993	1.8
Nobel Oil	티만 페코라 분지	Komineft(50%), 1999년 이래 LUKoil TVKOM AG(50%), 1999년 이래 LUKoil	1991	1.3
Polar Lights/ Polymoe Siyanie	서시베리아	Conoco(50%), Arkhangelskgeoldobych a(30%), Rosneft(20%)	1991	1.5
Vanyeganneft	서시베리아	Chemogorneft/Sidanko(50%), Occidental Oil(50%)	1992	2.7
Vatoil	서시베리아	LUKoil(54%), Calgary Development Overseas(46%), 1999년 이래 LUKoil	1994	2.6

자료: Heinrich, Kusznr, and Pleines(2002), p. 496.

표 5-3. 1996~2001년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현황

기업	1996	2001
Gazprom	2% 미국주식예탁증서	1% 미국주식예탁증서 5% Ruhrgas(독일) (10% 우회적인 방법 사용)
LUKoil	12% 미국주식예탁증서 8% ARCO	35% 미국주식예탁증서 8% BP-Amoco
Rosneft	없음	없음
Sibneft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Sidanko	없음	10% BP-Amoco
Surgutneftegaz	없음	11% 미국주식예탁증서 (추가 증서는 기업 계열사에서 매입)
Tatneft	12% 미국주식예탁증서 10% 기타 해외 금융기관	28% 미국주식예탁증서 3% 기타 해외 금융기관
TNK	없음	97% TNK International (Access/Renova과 러시아 Alfa Group 간의 협업)
Yukos	없음	32% Standard Bank(런던)

자료: Heinrich, Kusznr, and Pleines(2002), p. 504.

표 5-4. 2000년대 초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주요 생산물 분배협정(PSA) 현황

프로젝트명	위치	보유량 (석유/가스)	라이선스 취득자	주주	현황
Sakhalin-I	사할린	315mt/425bcm	Sakhalin-I Interntaional Oil Consortium	Rosneft 17%, Rosneft-Sakhalinmor neftegaz 23%, Exxon/Mobil 30%, Sodeco(일본) 30%, ONGC(인도) 20%	진행 중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
Sakhalin-II	사할린	140mt/408bcm	Sakhalin Energy	Mitsui 25%, Mitsubishi 20%, Royal Dutch/ Shell 55%	진행 중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
Kharyaga	티만 페코라 분지	153mt	해당사항 없음	TotalFinaElf 40%, Norsk Hydro 30%, LUKoil 20%, Nenetsk Oil Company 10%	진행 중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
Sakhalin-III (Kirinsky block)	사할린	453mt/720bcm	Sakhalin-III	Rosneft, Rosneft-Sakhalinmor neftegaz, Exxon-Mobil, Chevron Texaco	준비 중

표 5-4. 계속

프로젝트명	위치	보유량 (석유/가스)	라이선스 취득자	주주	현황
Salyr group of fields	서시베리아	136mt	Evikhon	Royal Dutch/ Shell Quintana(US)	준비 중
Udmurtsky block	우랄산맥	65mt	Samson International	없음	준비 중
Northern Territories	티만 페코라 분지	176mt/51bcm	LUKoil	Conoco, LUKoil	준비 중
Vankorskoe	서시베리아	31mt/77bcm	Eniseineft JV	Anglo-Siberian Oil Co. (Royal Dutch/ Shell 2000년에 철수, Eniseineft JV)	준비 중
Prirazlomnoe	티만 페코라 분지	42mt	Rosshelf (Gazprom)	Gazprom, Rosshelf, Wintershall	준비 중
Samotlorskoe	서시베리아	1.275mt/156bcm	Samotlorneft gas	없음	준비 중
Krasnoleninskoe group of fields	서시베리아	1.335mt/14bcm	Kondpetroleum	Kondpetroleum, Yurganef, Khantymaniiskneftegazgeologiya	준비 중

자료: Heinrich, Kuszniir, and Pleines(2002), p. 50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협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단기 및 중기적 차원에서 양국간 투자가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도 다른 금속 및 광물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기도 한다. 2020년 4~5월 러시아는 총 65.4톤의 금을 수출해 35억 5,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반면, 같은 기간 가스프롬의 파이프라인 가스 수출액은 24억 달러에 그쳤다.<sup>179)</sup>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러시아의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금(gold) 수출액이 가스(파이프라인) 수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분야들을 제외하면 러시아 기업이 전통적으로 외국기업과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분야는 정보통신 및 물류 분야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일관된 경향이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8년 무렵은

179) 러시아 통계청, DB 자료(검색일: 2020. 7. 25).

물론이고,<sup>180)</sup>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시기에 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5-5]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9년에 있었던 러시아 기업의 M&A 거래 중 규모 면에서 상위 10개 건수는 전통적 관심 분야인 에너지와 금속,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었다.

표 5-5. 2019년 러시아 M&A 거래 규모 상위 10건

대상	부문	인수자	판매자	인수	USDm (백만 달러)
LUKOIL	석유가스	LUKOIL	소수 주주	5.10%	3,000
Gazprom	석유가스	익명	Gazprom	3.60%	2,941
Gazprom	석유가스	익명	Gazprom	2.90%	2,202
DKBR Mega Retail Group (DIXY, Krasnoe i Beloe, Bristol 간 합작기업)	소비자 시장	DIXY Group; KrasnoeiBeloe	DIXY Group; KrasnoeiBeloe	51%/ 49%	2,656
Arctic LNG2	석유가스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CNOOC Ltd.)	NOVATEK	10%	2,612
Arctic LNG2	석유가스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Mitsui & Co Ltd	NOVATEK	10%	2,612
Arctic LNG2	석유가스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CNODC Ltd.)	NOVATEK	10%	2,612
Tele2 Russia Telecom	미디어 및 통신	Rostelecom	VTB Bank; Rossiya Bank; Invintel BV	55%	2,095
Luxoft	혁신기술	DXC Technology	기존 주주	100%	2,006
식품기술 및 모바일티 서비스 합작기업 (Delivery Club, YouDrive, DC Daily, Performance Group, Foodplex)	혁신기술	Sberbank; Mail.ru Group	합작기업	100%	1,566
MegaFon	미디어 및 통신	MegaFon	Gazprombank; 소수 주주	20.40%	1,271

자료: KPMG(2020), p. 5.

180) 김석환(2008), pp. 19-41.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대러 투자를 살펴보면, 에너지 및 금속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부재했다. 과거 한보그룹이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EAGC)를 통해 러시아 코빅타 가스전에 투자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한보는 동아시아가스(주)를 통해 투자한 러시아의 (주)루시아페트롤리엄(석유) 주식 27.5% 중 20%(900만 주)를 러시아의 '시단코' 측에 5,790만 달러에 넘긴 뒤 사업을 정리했다. 한보가 투자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투자계약 작성일은 1996년 7월 8일이고, 매각한 시점은 1997년 11월이므로 직접 투자를 진행한 지 겨우 1년 정도 만에 지분을 정리한 것이었다.<sup>181)</sup> 따라서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초단기 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sup>182)</sup>

한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이 현재처럼 단순 교역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러시아에서 진행된 주요 M&A 거래 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규모도 크며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은 자신들이 진출한 시장을 중심으로 연관투자 및 상호 교차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특히 러시아 노바텍(NOVATEC) 그룹의 첫 번째 북극 LNG 사업인 야말 가스전(Yamal-LNG)을 포함해 두 번째 야말 프로젝트인 Arctic-LNG 2 등 3건의 외국인 투자에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sup>183)</sup> 중국은 야말 가스전에 이어 '야말 Arctic-LNG 2'에

181) 필자의 개인 취재 및 당시 한보 정보근 회장의 1996년 7월 19일 기자회견 등 참고. 「한보, 시베리아 가스 개발권 확보 .. 정부에 사업신고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182) 당시 한보가 투자한 금액은 대략 2,500만 달러 정도였다. 한보는 이 금액을 투자해 루시아 석유사의 지분 27.5%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한보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루시아 석유사는 이르쿠츠크의 코빅틴스크 가스전을 소유하고 있어 한보는 이를 통해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한보가 1996년 7월 통상산업부에 사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한보는 “2005년까지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을 완공해 이곳의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아시아에 50년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보근 회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다. 「한보, 시베리아가스 개발권 확보 .. 정부에 사업신고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183) 첫 번째 야말 LNG 사업은 북극해와 접한 시베리아 서쪽 야말반도 인근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2013년부터 총 270억 달러(약 31조 1,500억 원)를 투자해 야심차게 추진해왔으며,

도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일본(1건)도 동참했다. 한국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스공사 등이 러시아 측과 논의는 진행했지만, 최종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중국과 일본의 야말 Arctic-LNG 2의 지분은 개별 건당 10%씩 약 26억 달러 규모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을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야말-LNG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단순한 가스전에 대한 자원 확보 투자만이 아니라 ‘야말-LNG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 조선소 모듈 건설과 야말(Yamal)에서부터 LNG를 공급하기 위한 쇠빙선 설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sup>184)</sup> 이처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연관 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협력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야말 Arctic-LNG 2’ 지분은 2018년 프랑스 토탈(Total)의 투자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로 2019년에 있었던 러시아 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 외에도 2019년에 있었던 에너지 분야 투자는 가스프롬 소액 주주의 지분 매각(51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 매각), 30억 달러 규모의 루코일(Lukoil) 주식 재매입 등이 있었다. 그러나 [표 5-6]에서 잘 보여주듯이, 한국기업은 한 곳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혁신 산업과 연관된 통신 분야의 투자도 KT(한국통신)가 1997년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이동통신 서비스 자회사인 NTC(New Telephone Company)를 설립해 운영하다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투자는 부재한

---

2017년 전체 공정이 마무리됐다. 2014년 미국의 경제제재로 좌초 위기에 처했지만, 중국기업이 대거 투자에 나서면서 숨통이 트였다. 중국기업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20%)과 실크로드 펀드(9.9%)를 통해 약 3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말 가스전은 약 1조 2,500억㎥의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연간 1,650만 톤의 LNG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20년간 연간 300만 톤을 수입할 권리를 획득하였다. 「세계 최대 북극해 천연가스전이 뜬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184) 박정호 외(2019), p. 112.

상태다. KT는 NTC를 통해 한·중·일 3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의 극동지역 통신시장에 진출했다. NTC는 2005년 4월 말 시장 점유율 42%를 기록해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성장 잠재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1년 5월 KT는 NTC를 러시아 빔펠 컴(Vimpel Com)사에 매각하면서 통신 사업을 정리하고 말았다. 만약 NTC가 계속 KT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통신 분야 및 ICT 분야 협력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컸을 것이다.

표 5-6. 2019년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대형 M&A

	대상	인수자	판매자	인수	USDm (백만 달러)
1	LUKOIL	LUKOIL	소수 주주	5.10%	3,000
2	Gazprom	익명	Gazprom	3.60%	2,941
	Gazprom	익명	Gazprom	2.90%	2,202
3	Arctic LNG2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NOVATEK	10%	2,612
4	Arctic LNG3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Mitsui & Co Ltd	NOVATEK	10%	2,612
5	Arctic LNG4	CNODC Ltd	NOVATEK	10%	2,612
6	Stroygazmontazh	Gazstroyrom	Arkady Rotenberg	100%	1,177
7	Project to develop sections 4A and 5A of Achimov deposits of Urengoy gas field	OMV	Gazprom	25%	1,025
8	Gazprom Drilling	Gazstroyrom	Igor Rotenberg (개인 투자자); Managing Company Evocorp; Alexander Zamyatin(개인 투자자)	100%	910
9	New Age(African Global Energy) Limited, license for Marine XII	LUKOIL Upstream Congo SAU	New Age (African Global Energy) Limited	25%	800

자료: KPMG(2020), p. 19.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와 금속 산업을 제외하면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 분야 러시아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다. 이러한 경향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눈에 띈다. 특히 2017년 이후 혁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미계 대형 로펌인 DLA Piper의 조사에 따르면, 약 90% 정도의 금융거래가 IT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85)</sup> 특히 △전자 상거래(E-commerce) △교통(Transport) △마케팅&광고(Marketing and advertising) △교육(Education) △배송(Delivery) △제약(Medicine) 분야에 대한 투자나 용자가 활발한 편이다.<sup>186)</sup> 서방 기업과 러시아 혁신산업 기업 간의 협력과 관련한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핀란드의 와르트실라(Wärtsilä)는 러시아의 해양 내비게이션 및 해양 관련 기술 특화기업인 트란사스(Transas) 지분을 2억 2,000만 유로(2,960억 원)에 인수했다. 1990년에 창립된 트란사스는 내비게이션 시뮬레이터 및 해양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회사로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양 내비게이션 시뮬레이터 시장의 45%를 점유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트란사스 인수 작업은 2018년 하반기에 완료됐다. 핀란드 와르트실라는 트란사스를 인수한 후 자신들의 기업 경쟁력을 배가함으로써 해양 관련 시뮬레이션 기술 및 스마트 브릿지 등 관련 사업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sup>187)</sup>

---

185) 박정호 외(2019), p. 87, 재인용.

186) 위의 책, pp. 87~88.

187) "Wärtsilä acquires Transas to accelerate its Smart Marine Ecosystem vis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스치닌(Dmitry Loschinin)이 설립한 룩소프트(Luxoft Holding Inc.)에 2019년 미국의 DXC Technology가 투자한 것은 러시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88)</sup> 미국 DXC Technology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억 달러를 투자해 룩소프트를 인수했다. 1995년 설립된 룩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B2B 솔루션 분야의 선도 기업 중 하나다.
- 남아공의 내스퍼스(Naspers)사는 2019년 약 11억 달러를 투자해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비토(Avito)의 주식 29.1%를 인수했다.<sup>189)</sup> Naspers의 Avito 주식 인수는 단순한 1회성 거래가 아니라 2013년 이후 이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꾸준히 협력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내스퍼스는 이미 2015년에도 12억 달러를 투자해 Avito의 주식 비중을 기존의 17.4%에서 67.9%로 확대시킨 바 있다.<sup>190)</sup> 이처럼 서방의 기업 가운데는 이미 러시아 전자상거래 및 IT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선행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레오나르도(Leonardo)는 항공기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통신과 물류 부문에서도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및 전통 산업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기술협력 사례를 소개하면, 레오나르도는 ‘러시아 헬리콥터’사와 합작으로 헬리베르트(Heli Vert)사를 설립해 글로벌 헬리콥터 시장에 진출하였다. 양사는 2008년부터 협상을 개시해 2009년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헬리베르

188) “DXC Technology Completes Acquisition of Leading Digital Innovator Luxof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1).

189) “Naspers takes full control of Russian classifieds site Avito in \$1.16B de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190) “Naspers steps up investment in Avit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트를 러시아 모스크바 주에 건설했다.<sup>191)</sup> 헬리 베르트는 레오나르도가 보유한 특허를 중심으로 최신형 헬리콥터를 제조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레오나르도는 이러한 합작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2016년에는 Thales가 67%, Finmeccanica(레오나르도의 이전 이름)가 33%의 지분으로 설립한 유럽 최대의 인공위성 제작회사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를 통해 ‘러시아 위성 통신사(Russian Satellite Communication Company)’와 2대의 위성용 페이로드(Payload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의 전력 및 항공, 우주, 수송, 방위산업 분야의 거대기업인 탈레스는 지난 1992년 이래 러시아 및 CIS 시장에서 위성 및 통신위성 등과 관련한 주요한 협력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기술적 협력 파트너로는 러시아의 위성정보 시스템 회사인 ISS-Reshetnev 등이 있다.<sup>192)</sup> 또한 레오나르도는 러시아 우체국(Russian Post)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6년 노보시비르스크의 톨마초프(Tolmachevo) 국제공항에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sup>193)</sup>

- 일반 상업 거래를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양국간 전략적 산업협력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중국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알리바바와 러시아의 통신기업인 메가폰(MegaFon), 인터넷 기업인 메일.루(Mail.Ru)가 러시아 국부펀드와 함께 합작해 설립한 ‘알리 익스프레스 러시아(AliExpress Russia)’다. 러시아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합작기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진출하기 전

191) 헬리콥터 전문 설계 및 제조사인 Agusta Westland는 레오나르도의 자회사다. 2000년 레오나르도가 영국과 함께 설립한 조인트 벤처였지만 2016년 이태리의 레오나르도사에 완전히 흡수 합병된다.

192) “Space in Eur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

193) “Leonardo-Finmeccanica and Russian Post signed an agreement to build a logistics hub in Novosibir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0).

알리바바를 이용한 러시아인 소비자는 2,256만 명에 달했고, 알리 익스프레스의 전체 구매 고객 중 러시아 고객의 비중은 25%였다. 알리바바는 2016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내자 러시아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적극 모색했으며, 메가폰, 메일.루(Mail.Ru), 러시아 국부펀드와 합작을 성사시킨 것이다. ‘알리 익스프레스 러시아(AliExpress Russia)’의 출범은 2019년 9월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알리 익스프레스 러시아’의 지분은 알리바바가 48%로 최대주주이지만, 러시아 3개 파트너사가 52%로 과반을 넘게 확보해 중국 쪽이 일방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했다.<sup>194)</sup>

이처럼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과 시장 잠재력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2017년 이후 러시아 IT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6년 이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디지털 경제발전 정책의 영향으로 IT 분야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가 증대한 데 기인한 것이다. 트란사스, 룩소프트, 아비토, 레오나르도, 알리바바의 경우는 해외기업들의 러시아 혁신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성공 사례를 잘 보여준다.

한국도 러시아와 혁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뿐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의 Luxoft와 남아공 Naspers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협력을 진행해야 한국과 러시아 간 혁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한국과 러시아가 혁신산업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혁신산업 생태계, 특히 러시아의 전통산업 분야 및 금융과의 협력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현실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194) “Alibaba is helping Russia go big in online shopping,” 온라인 자료: “Alibaba cross-border drive into Russia,”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5).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러시아의 재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기여도가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sup>195)</sup> 국가 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재정 집행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에너지 기업의 수출 실적에 크게 좌우되곤 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확보도 현재 이런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는 산업부문에서의 자본 재분배를 통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 자원 부문의 기업 및 경제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주된 근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부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개발한 후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재분배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기관이나 펀드 등을 설립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DIF), 러시아벤처컴퍼니(RVC: Russian Venture Company) 등이다.<sup>196)</sup>

한국이 혁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간 교차투자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이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2006년에 설립된 러시아 벤처컴퍼니(RVC)는 하이테크 등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sup>197)</sup>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가 혁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증진할 다음 방안은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전략이다.

---

195) Mitrova(2019), p. 3.

196) 박정호 외(2019), p. 86.

197) 위의 책, p. 86.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보잉은 러시아가 산업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자신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2018년 9월 보잉은 세계 최대 티타늄 제조 기업인 러시아 아비스마(VSMPO-Avisma)와 합작으로 스베르들로프스크에 8,200만 달러(930억 원)를 투자하는 합작기업 설립을 발표했다.<sup>198)</sup> 당시 이 투자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당시 투자 승인의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제재 속에서도 양국 산업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보잉과 아비스마 간에 이루어진 선행투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8년 9월에 투자 승인을 받아 건립하기로 한 공장은 보잉과 아비스마(VSMPO-Avisma)가 우랄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과는 완전히 별도로 세워지는 것이었다. 아비스마는 2009년 보잉과 장기공급 계약을 맺고 합작 공장을 세워 부품을 납품해왔는데, 보잉의 전략 항공기 기종에 필요한 메탈 소재의 35% 이상을 러시아의 아비스마가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러시아에서는 보복 제재의 대상으로 아비스마가 보잉에 제공하는 티타늄 소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한 때 검토하기도 했다.<sup>199)</sup>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보복을 가했으며, 제재와 무관하게 보잉과 아비스마의 합작 사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보잉이 새롭게 건설할 공장에서는 보잉 737 MAX, 787 드림라이너(Dreamliner) 및 777X에 공급될 티타늄 소재 및 부품들을 제조하게 된다. 보잉의 러시아 투자는 지분 참여 등이 아닌 그린필드형 투자(기업이 해외투자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직접

---

198) "VSMPO-Avisma and Boeing launch new titanium joint venture in Russi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0).

199) "Russia could stop exporting titanium to Boeing in retaliation to Trump san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1).

투자 형태)였다. 특히 대러시아 경제제재 속에서 미국기업이 러시아 제조업 분야에 투자한 사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제재 이후에 미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에 러시아가 투자한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올리가르흐 및 권력 실세들의 미국 셰일 산업의 부산물인 에탄 산업에 대한 투자다.<sup>200)</sup>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키 중 한명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국가두마(하원)의원 미하일 유리예프, 콘스탄틴 니콜라예프 등은 미국 휴스틴의 에탄 회사(American Ethane Company)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과거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블라디미르 볼로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중국시장에 에탄을 공급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 에탄 산업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큰 회사가 됐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4년 이후에도 미국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적극적인 투자나 합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는 펀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들을 통폐합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연불 금액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다.

러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지원은 진출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 요소다. 이는 ‘진출-성장-회수-확장 및 재도전’이라는 일종의 생존과 성장이 순환 가능한 생태계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및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

---

200) “New Orleans gas exporter’s partners include ex-Putin aide”: “Former Putin adviser has secret investment in US energy firm praised by Trump.”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0. 10).

성 등으로 인해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러시아 시장은 고위험 시장을 넘어 아예 제재대상 금지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러시아 관련 펀드의 용자 실적이 롯데의 연해주 농장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무하다는 현실은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준다.

러시아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가 많은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 용자가 아닌 투자 개념의 금융지원 생태계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금 수급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진출-성장-회수-확장 및 재도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소련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자금이 라는 확보된 구체적인 자금(금융 지원)과 더불어, 새롭게 열리는 공산권 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 위주로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 진출이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경우도 한국의 경험 자금을 자극받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험자금에는 연불 수출금액 3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시장 개척,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등을 기반으로 한 상품교역 위주의 협력이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러시아 시장 진출 초기 한국기업들의 시장 개척 욕구와 정부의 경험 자금 지원, 마케팅 전략 등이 시너지를 발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현대, 삼성, 엘지, 롯데, 오리온, 팔도 등이 현지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성장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브랜드 파워의 증대를 바탕으로 단순한 상품교역에서 더 나아가 현지공장 설립 및 현지화라는 전략에 따라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재 및 자동차 등 일부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장 건설 및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현대 정주영 회장의 시베리아 석유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특징을 살린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조달 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미미했다.

현재 러시아 관련 금융 펀드에 조성된 자금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용자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에도 용자 형태의 대출을 받는다. 용자가 전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는 담보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대러 진출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용자를 받는다 해도 러시아 시장 진출 후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현금흐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흥시장 진출은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혁신산업 분야의 진출에도 국내 벤처 캐피털 등 일부 투자 사례가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투자 유형도 보통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권 확보가 중심인 대출형 투자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벤처 캐피털 등도 진정한 의미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혁신산업 등에 대한 과감한 협력 및 M&A 등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용자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벗어나 고위험 신흥 전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혁신 벤처나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 플랫폼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 금융 플랫폼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리스크를 분리시켜 정책자금이 보다 적극적인 모험자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진출기업의 성장 단계와 시장의 자금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서 투자, 보증, 그리고 대출을 포함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완전히 정착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모펀드와 자펀드를 혼합하는 형태의 지원구조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진출 단계에 맞춰 '시장 진출-정착-성장-회

수 및 재투자'의 성장단계별 '모펀드'와 각 단계별 지원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한 '자펀드'로 구성된 'Fund of Funds'형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형 펀드의 지원을 받는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한국 수출입은행-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전대금융 등의 금융 협력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이러한 금융 협력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VEB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대상(SSJ: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입은행과 체결되어 있던 전대금융 라인 활용이 불가능해졌다. 3년간 20억 달러 범위 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10개 분야(에너지, 석유화학, 천연자원, 인프라, 조선, 농림수산업 등)에 대한 사업 발굴과 금융 구조화를 위해 창안된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2월 롯데의 연해주 농장인수 사업지원(300억 원) 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용자도 실행되지 않았다.

전대금융의 경우도 수출입은행이 러시아 알파뱅크 등과 크레딧 라인을 개설했지만, 미국이 2014년 러시아 현지 국영은행들을 일괄적으로 '제재 지정 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대금융 지원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대금융 한도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던 2014년 말 15억 9,000만 달러 규모였다가 2020년에는 3억 달러 규모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외에 한국과 러시아는 2019년 9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계기로 러시아직접투자 펀드(RDIF)와 총 10억 달러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합의하고, 현재 1차로 4억 달러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참여기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구조 형성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7]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러시아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지원 금액이 대체로 상승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관련 금융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 유럽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지원의 내용도 대형 인프라 사업 등 장기투자 관련 금융 지원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금융 지원이 무역금융이나 러시아 현지은행을 활용한 간접금융 방식의 대출이다. 따라서 지원금융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투자협력 증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5-7.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러 금융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대출</b>					
승인(건)	12,316(206)	14,488(322)	14,784(332)	19,959(234)	14,362(225)
집행(건)	11,633(195)	13,916(331)	15,398(339)	19,774(238)	14,788(235)
<b>보증</b>					
승인(건)	5,289(92)	7,404(107)	6,807(80)	6,817(94)	8,156(98)
집행(건)	4,763(96)	7,411(110)	7,629(83)	6,907(96)	5,804(91)
<b>소계</b>					
승인(건)	17,605(298)	21,892(429)	21,591(412)	26,777(328)	22,517(323)
집행(건)	16,397(291)	21,815(447)	23,027(422)	26,681(334)	20,592(326)
<b>구분</b>	<b>2015년</b>	<b>2016년</b>	<b>2017년</b>	<b>2018년</b>	<b>2019년</b>
<b>대출</b>					
승인(건)	6,009(77)	5,176(51)	3,212(44)	2,785(45)	5,762(62)
집행(건)	6,358(81)	5,616(56)	3,120(44)	3,103(49)	5,928(66)
<b>보증</b>					
승인(건)	222(21)	54(2)	202(5)	22(2)	103(1)
집행(건)	1,700(30)	762(6)	201(4)	36(2)	103(1)
<b>소계</b>					
승인(건)	6,231(98)	5,230(53)	3,414(49)	2,807(47)	5,865(63)
집행(건)	8,058(111)	6,378(62)	3,321(48)	3,139(53)	6,031(67)

자료: KIEP 전문가 간담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제 내용(2020. 6. 19, 서울).

다섯째는,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합작펀드 조성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러·중 투자펀드'(RCIF)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출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PIF)는 '러·중 투자펀드'에 5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러·중 투자펀드'(RCIF)가 관리하는 자본은 25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3자 펀드는 주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sup>201)</sup>

다자간 협력을 통한 러시아와의 투자협력 확대는 이탈리아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항공기 제작사인 레오나르도는 중국 국영 중국상용비행기공사(코맥)가 러시아와 협력하여 개발하려는 장거리 대형 민간항공기 코맥(COMAC) CR-929 협력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중국의 코맥과 러시아 통합항공기제조회사(UAC)가 2017년에 합의한 것으로, 레오나르도는 2018년 10월 중국의 캉데 투자그룹(Kangde Investment Group)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CR-929 사업과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레오나르도의 대형 항공기 기술 등을 전수하며,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또한 최종적으로는 합작기업인 캉데 마르코폴로 아에로스트럭처 장쑤(Kangde Marco Polo Aerostructures Jiangsu Co. Ltd.)를 설립한다. 중·러가 각각 절반씩 출자한 합작기업이 생산하기로 한 대형 민항기 CR-929는 미국 주도의 과점적 대형 민간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보다 10~15%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거리 여객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02)</sup>

---

201) 박정호 외(2019), p. 110.

202) 위의 책, p. 175, 재인용.

이처럼 3국간 협력 혹은 양자협력을 통한 제3국 투자 및 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탈리아, 사우디 등에서는 3자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험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러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보잉 등 다양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부간 사업 및 협약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 노르웨이 정부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간 체결된 북극해 지질데이터 교환 협정
  -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일본 국책회사 및 민간기업 마루베니(일본 종합상사)와 협력하여 러시아 사할린 남서해역에서 탄화수소 탐사사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의 로즈네프트(Rosneft)와 MOU 체결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국영 전력회사인 루스기드르와 사하공화국 극동지역에서의 풍력발전소 건설·보급에 대한 MOU 체결
- 경제제재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고 분야별 혹은 특정한 사업 영역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해 우회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7년 6월 로스네프트(Rosneft)와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은 유럽에서 BP가 러시아산 가스를 판매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로스네프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재의 범위가 시추나 시추 관련 장비 및 신규 투자와 여신 제공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가스의 판매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 경제제재 이전에 체결된 협정이나 계약 등은 연속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2016년 6월 로스네프트와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인 스타토일(Statoil)이 극동지역의 마가단 광구 시추를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 시행 이전인 2012년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가능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문제 역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형태가 미국과 유럽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환경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최근의 상황은 유럽연합,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sup>203)</sup>

원칙적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자국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와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과 집단적으로 협력해 미국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미

---

203) "Germany Calls for European Firewall Against U.S. San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0).

시사한 바 있다.<sup>204)</sup> 최근 러시아의 야권 인사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테러 의혹이 현재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갈등 요소로 등장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이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2’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국가간 이해의 충돌로 인해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프로그램 규제 계약이다. 미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후 유럽연합이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별 조치를 채택한 것이다.<sup>205)</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우도 투자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자원 분야의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흐름에 발맞춰 이들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포함, 제재 속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 중국, 사우디, 남아공 등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

204) “Германия подготовит ответ на случай новых санкций США против «Северного потока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5).

205) “EU launches counter-measures against US sanctions on Ir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1).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20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8월 26일)
- 곽성배. 2019.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바람」.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 김계환, 조재한, 강지연, 정선인, 나혜선. 2016. 『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연구보고서 2016-814. 산업연구원.
- 김동희. 201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동향과 대한투자협력방안」.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김석환. 2008.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과 러시아 국부펀드의 창설- 신외교안보 전략수단인가 아니면 세계화의 추세인가」. 『슬라브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김현수. 2020. 「한-러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전망」. 『Trade Focus』, 2020-34. 한국무역협회.
- 박병렬, 곽주영, 양영수. 2011.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역사와 전략」. 『경영사학』, 제26집 제3호.
- 박정호, 김석환, 강부균, 민지영, 세르게이 발렌테이, 예브게니 아브도쿠신, 마르코 시디. 2019.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10)」. 2008.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합동. (5월 16일)
- 오영일. 2018. 「한-러 극동 협력 성과를 가로막는 요인」.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 Asia』, Vol. 1. No. 3.
- 외교부. 2018. 『2018 러시아 개황』.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 2012.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관계부처합동. (8월 16일)
- 원지환, 이서현. 2019.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

- 『국제경제리뷰』, 2019-13. 한국은행.
- 이기열, 신수용, 최나영환, 이현주, 조진철, 유현아, 어은주, 송성현. 2018.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60-01.
- 이용대, 최종윤. 2018.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18-3호. 한국은행.
- 이재영, 광성일, 이철원, 민지영, 제성훈, P. Kadochnikov, E. Gherman, E. Rogatnykh, A. Knobel, T. Aliev, A. Sokolyanskaya. 2015.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이순철, 황지영, 이종문. 2008.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08-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이성봉, Alexey Kuznetsov, 민지영. 2012.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1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영, 이철원. 2015.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분석과 진출환경 평가」. 『중소연구』, 39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정원, 천용찬, 박용정, 한재진. 2019.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중국과 주요 아시아 신흥국 비교」. 『경제주평』, 19-16. 현대경제연구원. (5월 10일)
- 이지선, 정성태, 신민영. 2015. 「신흥국의 '신흥'시대 끝났다」.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 정민현, 김초롱. 2019. 「카자흐·우즈베크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월 11일)
- 정민현. 2019.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월 9일)
- 「2018년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20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월 11일)
- KOTRA. 2020. 『2020 국별 진출전략: 러시아』.

#### [외국어 자료]

- Acemoglu, D. S. Johnson, and J. A.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2, No. 6, pp. 3077-3110. (OCTOBER 2012)

- АЕБ. 2019. "Ежегод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АЕБ - ГфК: настроения европ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оссии немного улучшились." Пресс-релиз. (30 мая) Москва.
- Asiedu, E. 2002.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30(1). pp. 107-119.
- Aziz, O. G. 2018. "Institutional Quality and FDI Inflows in Arab Economies." *Finance Research Letters*, 25, pp. 111-123.
- Bank of Russia. 2020. "Bank of Russia Statistical Bulletin." No. 5.
- Benassy-Quere A., M. Coupet, and T. Mayer. 2007.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Economy*, 30(5), pp. 764-782.
- Bevan, A. A. and S. Estrin. 2000.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s Series 342. William Davidson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 Biswas, R. 200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6(3), pp. 492-504.
- Blonigen, B. 1997. "Firm-Specific Assets and the Link between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Association. vol. 87(3), pp. 447-465.
- Brada., J. C., Z. Drabek, J. A. Mendez, and M. F. Perez. 2018. "National Levels of Corrup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7(1), pp. 31-49.
- Brainard, L. 1997.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 and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87(4), pp. 520-544.
- Dunning, J. H. 2000. "The Eclectic Paradigm as an Envelope for Economic and Business Theories of MNE Activ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9(2), pp. 163-190.
- Eckel, C. 2003. "Fragmentation, Efficiency-Seeking FDI, and Employment."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 pp. 317-331.
- Ekholm, K. 1998. "Proximity Advantages, Scale Economies, and the Location of Production." In P. Braunerhjelm and K. Ekholm eds. *The Geography of Multinational Firms*. Boston: Kluwer Academic.

- Ershova, Nina. 2017.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nd challenges for foreign business: The case of Japanese companie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8.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 Feenstra, R. C. and G. H. Hanson. 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2, pp. 371-394.
- Froot, K. A. and J. C. Stein. 1991. "Exchange Rat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 Imperfect Capital Markets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pp. 1191-1217.
- Gulen, H. and M. Ion. 2015. "Policy Uncertainty and Corporate Investment."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9(3), pp. 523-564.
- Heinrich, Andreas, Julia Kusznir, and Heiko Pleines. 2002.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Russian Oil and Gas Industry."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4, No. 4.
- InfraOne. 2018. "Инвестиции 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Арабский мир*. (23 апреля).
- Jadhav, P. P. 201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Brics Economies: Analysis of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Procedia-Social Behavioral Science*, 37, pp. 5-14.
- Janicki, H. and V. Wunnava. 200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from EU Accession Candidates." *Applied Economics*, 36, pp. 505-509.
- KPMG. 2020. "Russian M&A Review 2019." (February)
- Kuzmina, Olga, Natalya Volchkova, and Tatiana Zueva. 2014.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ance quality in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42, Issue 4.
- Kuznetsov, A. V. and O. V. Kuznetsova. 2019. "The Success and Failure of Russian SEZs: Some Policy Less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Vol. 26, No. 2.
- Lipsey, R. 1999.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US Affiliates in Asia." NBER Working Paper No. 6876.
- Liuhto, Kari. 2015. "Motivations of Russian Firms to invest abroad: how do sanctions affect Russi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Baltic Region*, Vol 4. Immanuel Kant Baltic Univ. Press.
- Markusen, J. 1997. "Trade Versus Investment Liberal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6131.
- Mitrova, Tatiana. 2019. "Russia's Energy Strategy." Issue Brief. (July) Atlantic Council.
- Nath, H. K. 2004.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es." Working Paper.
- OECD. 2011. "ISIC REV. 3 TECHNOLOGY INTENSITY DEFINITION: Classific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to categories based on R&D intensities." OECD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Economi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 (July 7)
- Resmini, L. 2000.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EECs." *Economics of Transition*, 8(3), pp. 665-689.
- Rogmans, T. and H. Ebbers. 2013.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Reg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Markets*, 8(3), pp. 240-257.
- Shkvarya, L. V., M. V. Melanina, and Kh. V. Tyrkba. 2018. "Russia's Investment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Advanced in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Vol. 47.
- Sladden, James, Becca Wasser, Ben Connable, and Sarah Grand-Clement. 2017. "Russian Strategy in the Middle East." Rand Corporation.
- Suliman, A. H. and A. V. Mollick. 2009. "Human Capital Development, War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Oxford Development Studies*, 13(1), pp. 47-61.
- UNCTAD. 2015.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Refor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 \_\_\_\_\_.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 Wei, S-J.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 pp. 1-11.
- Welt, Cory, Kristin Archick, Rebecca M. Nelson, and Dianne E. Rennack. 2020. "U.S. Sanctions on Russi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17)
- World Bank. 2011. "Doing Business 2012." (October 20)

- \_\_\_\_\_. 2016. "Доклад об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Долгий путь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No. 35.
- \_\_\_\_\_. 2019. "Doing Business 2020." (October 24)
- Ху, Т. 2019. "Economic Freedom and Bilateral Direct Investment." *Economic Modelling*, 78(C), pp. 172-179.
- Боркова, Е. А., Ю. И. Буравилина, А. А. Сенчило. 2014. "Влияние санкций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и промышленную политику России." «Экономика и бизнес».
- Гурова, Ирина. 2019. "Факторы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и: эмпир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Т. 14. № 6.
- Кабир, Л. С., Н. И. Лахметкина, С. Н. Малофеев. 2010.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ОИС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ЕКТОРА РАЗВИТИЯ." 18(42).
- Какаулина, О. И. 2017. "Влияние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занятость и инвестиции в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Особ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Зарубежный и отечественный опыт." Книга 2. Под ред. И.А. Майбурова, Ю.Б. Иванова, М.: ЮНИТИ-ДАНА.
- Клинова, М. В., Е. А. Сидорова. 2017. "Россия — Евросоюз: продолжение санкцио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 6.
- Кропотов, Л. Г. 2011. "ОЧЕРК ИСТОРИИ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Вестник СПбГУ*. Сер. 14. Вып. 3.
- Миронов, Д. С. 2020.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ки как результат эволюции фор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еоретическая и прикладная экономика*. 2020-2.
- Попова, Л. В., Г. В. Борисов. 2018.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России в Китае: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и*. (19-21 апрел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Сизых, Е. Ю. 2019.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Китая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динамика, структура." факторы влияния. *Вестник Евразийской науки*, №2.

## [온라인 자료]

- 강부균. 2020. 「동향세미나: 2019년 대러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3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s?brdctsNo=300610&mid=a10200000000&systemcode=04>(검색일: 2020. 10. 15).
-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200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월 16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ITx8Z2hRNN0aXgAjlezzJox8.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78498&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ITx8Z2hRNN0aXgAjlezzJox8.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78498&menuNo=4010100)(검색일: 2020. 8. 9).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검색일: 2020. 8. 20).
-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00〉중국 디스플레이 기술」. 2019. 『전자신문』. (2월 17일). <https://m.etnews.com/20190215000389?obj=Tzo4OijzdGRDbGFzcyI6Mjpwcz03OijyZWZlcmVyljtOO3M6NzoiZm9yd2FyZCI7czo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검색일: 2020. 10. 3).
-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0. 『코리아포스트』. (5월 12일). <https://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2>(검색일: 2020. 10. 23).
- 「文대통령 “러시아와 2020년 교역액 300억불·인적교류 100만명 달성”」. 2018. 『연합 인포맥스』. (6월 22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4803>(검색일: 2020. 5. 13).
-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 (9월 7일).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65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65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검색일: 2020. 5. 13).
- 「“사진 한장으로 인터뷰 동영상 제작”...삼성, AI 신기술 개발」. 2019. 『동아시아인스』. (5월 26일).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8962>(검색일: 2020. 10. 3).
- 「산업지도 바꾼 M&A②현대차, 지분투자로 미래차 경쟁력 키운다」. 2020. 『이투데이』. (6월 17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7378>(검색일: 2020. 10. 5).

- 「삼성 AI 모스크바 연구센터 29일 개소」…세계 거점센터 중 하나. 2018. 『연합뉴스』. (5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3159900080> (검색일: 2020. 10. 3).
- 「세계 최대 북극해 천연가스전이 뜬다」. 2017. 『Economy Insight』. (4월 1일).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2>(검색일: 2020. 10. 3).
- 「오리온, 러시아 트베리주와 신공장 투자협정 체결」. 2020. 『매일일보』. (9월 10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5221>(검색일: 2020. 10. 23).
- 「中 경제 회복 심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로 공략해야」. 2017. 『이투데이』. (3월 23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1471339>(검색일: 2020. 10. 4).
- 「하나금융, 블라디보스토크서 포럼 열고 신북방 진출 모색」. <http://vip.mk.co.kr/news/view/10002/21/3154629.html>(검색일: 2020. 8. 15).
- 「한국, 러시아에 ‘2030년 1천억달러 교역’ 목표 경제협력 제안」. 2019. 『연합뉴스』. (2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165900001>(검색일: 2020. 5. 13).
- 「한보, 시베리아가스 개발권 확보 .. 정부에 사업신고서」. 1996. 『한국경제』. (7월 19일).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6071900201> (검색일: 2020. 9. 1).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20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월 29일).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7480>(검색일: 2020. 5. 6).
-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a). 200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월 16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55485&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55485&menuNo=4010100)(검색일: 2020. 8. 9).
- \_\_\_\_\_(b). 20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월 29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5152&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5152&menuNo=4010100)(검색일: 2020. 8. 9).
-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택시 러시아 모스크바 달린다」. 2019. 『매일경제』. (7월 11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511880/>(검색일: 2020. 10. 3).

- 「현대차, 美자율주행기업 '애플티브' 직접투자 “2024년 SW양산 목표”」. 2019. 『매일경제』. (9월 24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9/759028/>(검색일: 2020. 10. 5).
- 「현대차, 연산 15만대 러시아공장 준공…11개사 동반 진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1/2010092100060.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1/2010092100060.html)(검색일: 2020. 8. 15).
- 「EAEU-베트남 FTA 체결 5년, 국내 기업이 활용할 방법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172>(검색일: 2020. 7. 31).
- 「LG전자, 러시아에 가전 공장」. <https://news.joins.com/article/22075>(검색일: 2020. 8. 15).
- 「LG화학-GM ‘배터리 동맹’ 속도… 글로벌 패권 잡는다」. 2020. 『디지털타임스』. (5월 24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2502101232033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2502101232033001)(검색일: 2020. 10. 5).
- 「LG화학-GM,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2019. 『한겨레』. (12월 6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9903.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9903.html)(검색일: 2020. 10. 5).
- “Alibaba cross-border drive into Russia.”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034121.shtml>(검색일: 2020. 10. 5).
- “Alibaba is helping Russia go big in online shopping.” <https://money.cnn.com/2018/09/11/technology/alibaba-russia-mail-ru/index.html>(검색일: 2020. 10. 5).
- “DXC Technology Completes Acquisition of Leading Digital Innovator Luxoft.”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press-releases/2019-06-14/dxc-technology-completes-acquisition-of-leading-digital-innovator-luxoft>(검색일: 2020. 8. 21).
- “EU launches counter-measures against US sanctions on Iran.” FT. <https://www.ft.com/content/be32d010-9973-11e8-9702-5946bae86e6d>(검색일: 2020. 9. 21).
- “Former Putin adviser has secret investment in US energy firm praised by Trump.”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10/former-putin-adviser-has-secret-investment-in-us-energy-firm-praised-by-trump>(검색일: 2020. 10. 10).
- “Germany Calls for European Firewall Against U.S. Sanctions.” <https://>

- [www.wsj.com/articles/germany-calls-for-european-firewall-against-u-s-sanctions-11577459502](http://www.wsj.com/articles/germany-calls-for-european-firewall-against-u-s-sanctions-11577459502)(검색일: 2020. 10. 10).
- “GM to sell stake in Europe’s Opel.” CNN Money. [https://money.cnn.com/2009/09/10/autos/gm\\_opel\\_sale/index.htm](https://money.cnn.com/2009/09/10/autos/gm_opel_sale/index.htm)(검색일: 2020. 9. 10).
- “Leonardo and Kangde Investment Group of China agree guiding principles to partner on the new COMAC CR929 long range airliner.” <https://www.leonardocompany.com/en/press-release-detail/-/detail/comac-cr929>(검색일: 2020. 9. 10).
- “Leonardo-Finmeccanica and Russian Post signed an agreement to build a logistics hub in Novosibirsk.” <https://www.leonardocompany.com/en/press-release-detail/-/detail/russian-post-novosibirsk>(검색일: 2020. 9. 10).
- “Naspers steps up investment in Avito.” <https://www.naspers.com/news/naspers-steps-up-investment-in-avito>(검색일: 2020. 9. 10).
- “Naspers takes full control of Russian classifieds site Avito in \$1.16B deal.” <https://techcrunch.com/2019/01/28/naspers-avito-1-16-billion/>(검색일: 2020. 9. 10).
- “New Orleans gas exporter’s partners include ex-Putin aide.” <https://www.wvlv.com/article/news/local/investigations/new-orleans-gas-exporters-partners-include-ex-putin-aide/289-573373937>(검색일: 2020. 10. 10).
- “RDIF attracts Saudi partner to expand the Russia-China Investment Fund.” [https://rdif.ru/Eng\\_fullNews/3643/](https://rdif.ru/Eng_fullNews/3643/)(검색일: 2020. 9. 25).
- “Rosneft Plans Almost \$700 Million Investment in German Downstream Assets.” <https://russiabusinesstoday.com/economy/rosneft-plans-almost-700-million-investment-in-german-downstream-assets/>(검색일: 2020. 10. 21).
- “Russia could stop exporting titanium to Boeing in retaliation to Trump sanctions.” CNBC. <https://www.cnbc.com/2018/04/13/russia-could-stop-exporting-titanium-to-boeing-in-retaliation-to-trump-sanctions.html>(검색일: 2020. 10. 21).
- “Russian money in Cyprus: Why is there so much?” BBC News. <https://www.bbc.com/news/business-21831943>(검색일: 2020. 7. 18).
- “Space in Eurasia.” <https://www.thalesgroup.com/en/worldwide/thales->

- eurasia-space(검색일: 2020. 9. 1).
- “VSMPO-Avisma and Boeing launch new titanium joint venture in Russia.”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vsmpo-avisma-boeing/vsmpo-avisma-and-boeing-launch-new-titanium-joint-venture-in-russia-idUSKCN1LZ2IX>(검색일: 2020. 9. 20).
- “Wärtsilä acquires Transas to accelerate its Smart Marine Ecosystem vision.” <https://www.wartsila.com/media/news/19-03-2018-wartsila-acquires-transas-to-accelerate-its-smart-marine-ecosystem-vision-2143023>(검색일: 2020. 8. 20).
- “Where Russia’s Foreign Investment Really Comes From.” Bloomberg Opinion.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11-06/where-russia-s-foreign-investment-really-comes-from>(검색일: 2020. 7. 20).
- “«АвтоВАЗ» и альянс Renault-Nissan-Mitsubishi готовы инвестировать 70 млрд рублей.”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auto/articles/2018/11/30/787977-alyans>(검색일: 2020. 10. 21).
-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https://tass.ru/tass-dos-e-rossiya/749935>(검색일: 2020. 7. 5).
- “Амбиции Пекина: что приносят России китайские инвестиции.” <https://www.forbes.ru/biznes/368413-ambicii-pekina-chto-prinosyat-rossii-kitayskie-investicii>(검색일: 2020. 7. 10).
- “В Госдуму вн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РИА Новости. <https://ria.ru/20191101/1560507610.html>(검색일: 2020. 7. 5).
- “Газпром нефть создает новый кластер на Гыдане. Вместе с Repsol и Shell.” Neftegaz.RU. <https://neftegaz.ru/news/partnership/453281-gazprom-neft-sozdaet-novyy-klaster-na-gydane-vmeste-s-repsol-i-shell/>(검색일: 2020. 7. 10).
- “«Газпром нефть» и Shell создают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для освоения месторождений в ЯНАО.”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19/06/06/803586-gazprom-neft-shell-sozdayut-sovmestnoe-predpriyatie-dlya-osvoeniya-mestorozhdenii-yanao>(검색일: 2020. 7. 10).
- “Германия подготовит ответ на случай новых санкций США против

- «Северного потока-2».” Forbes. <https://www.forbes.ru/newsroom/biznes/403789-germaniya-podgotovit-otvet-na-sluchay-novyh-sankciy-ssha-protiv-severnogo>(검색일: 2020. 9. 25).
- “Декларация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Объединенными Арабскими Эмиратами.” <http://kremlin.ru/supplement/5309>(검색일: 2020. 7. 31).
- “Дорогой автопром: ск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о потратило на поддержание рынка.” Autonews. <https://www.autonews.ru/news/5df872ba9a79475ef574e2d7>(검색일: 2020. 7. 13).
- “Европа готовит санкции: чем грозит России заморозка проектов ЕБРР.” РБК. <https://www.rbc.ru/economics/16/07/2014/57041f5d9a794760d3d40032>(검색일: 2020. 7. 21).
- “Европейски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Досье.” ТАСС. <https://tass.ru/info/1967635>(검색일: 2020. 7. 21).
- “Инвести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глашений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н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https://pravo.ru/story/220816/>(검색일: 2020. 7. 5).
- “Инвестиции США в России оказались в 13 раз больше официальных.” РБК. <https://www.rbc.ru/economics/14/06/2019/5d022dfb9a79472f5bc8e4ce>(검색일: 2020. 7. 10).
- “Исслед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тран Европы.” 2020. EY. (July 10). [https://www.ey.com/ru\\_ru/attractiveness/20/alexander-ivlev-attractiveness-2019](https://www.ey.com/ru_ru/attractiveness/20/alexander-ivlev-attractiveness-2019)(검색일: 2020. 7. 20).
- “Как за 20 лет Россия похоронила старый и построила новый автопром.”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auto/articles/2019/11/11/815982-rossiya-avtoprom>(검색일: 2020. 7. 13).
- “Кита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бегут из России.” <https://www.finanz.ru/novosti/aktsii/kitayskie-investory-begut-iz-rossii-1028252462>(검색일: 2020. 7. 21).
- “Компания Henkel в Перми намерена расшир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https://www.newsko.ru/news/nk-4105089.html>(검색일: 2020. 7. 10).
-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КСИИ). Члены КСИИ 2020 г. <https://fiac.ru/ru/>(검색일: 2020. 7. 5).
- “Над Игорем Шуваловым стухнул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Комм

- ерсантъ. <https://www.kommersant.ru/doc/1524778>(검색일: 2020. 7. 10).
-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йтинг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tpprf.ru/ru/investment\\_innovation/rating/](https://tpprf.ru/ru/investment_innovation/rating/)(검색일: 2020. 7. 10).
- “Не догоняет: кому Россия проиграла в Doing Business.” Газета.Ru. <https://www.gazeta.ru/business/2019/10/23/12773468.shtml>(검색일: 2020. 8. 5).
- “Henkel расшил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мощности на заводе в Перми.” <https://news.unipack.ru/60348/>(검색일: 2020. 7. 10).
- “Об итог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http://www.russchinatrade.ru/ru/ru-cn-cooperation/investment/>(검색일: 2020. 7. 10).
- “По количеству инвесторов в ОАЭ Россия занимает 5 место.” <https://bigasia.ru/content/news/business/po-kolichestvu-investorov-v-oe-rossiya-zanimaet-5-mesto/>(검색일: 2020. 7. 31).
- “Половину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Ф в 2016 обеспечил Сингапур.” INTERFAX.RU. <https://www.interfax.ru/business/563378>(검색일: 2020. 7. 25).
- “Посредники для денег.”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11/08/02/ombudsmeny-site.html>(검색일: 2020. 7. 10).
-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ю остановился.” РБК. <https://www.rbc.ru/economics/13/04/2020/5e9451489a79479e5a66d28e>(검색일: 2020. 7. 25).
-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Аккую».” <http://www.akkunpp.com/index.php?lang=ru>(검색일: 2020. 7. 15).
- “Путин перенес срок попадания России в топ-20 рейтинга Doing Business.”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economics/news/2019/04/05/798442-business>(검색일: 2020. 7. 18).
- “Размер француз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достиг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овые известия. <https://newizv.ru/news/economy/18-12-2018/razmer-frantsuzskih-investitsiy-v-ekonomiku-rossii>

- dostig-15-mlrd-dollarov(검색일: 2020. 10. 21).
- “Роснефть отказалась от покупки нефтетрейдингового бизнеса Morgan Stanley.” Neftegaz.ru. <https://neftegaz.ru/news/Acquisitions/235258-rosneft-otkazalas-ot-pokupki-neftetreydingovogo-biznesa-morgan-stanley/>(검색일: 2020. 7. 10).
-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РФПИ)(a). <https://rdif.ru/About/>(검색일: 2020. 7. 16).
- \_\_\_\_\_(b). <https://rdif.ru/Partnership/>(검색일: 2020. 7. 20).
- “Российские деньги застряли на Кипре.” РБК. <https://www.rbc.ru/newspaper/2019/05/14/5cd981989a7947252f589b47>(검색일: 2020. 7. 18).
- “Российско-турецкая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может быть создана в рамках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Интерфакс. <https://realty.interfax.ru/ru/news/articles/97060>(검색일: 2020. 7. 31).
-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ДФО принесла первые соглашения.” <https://www.fondvostok.ru/press/publications/rossiysko-yaponskaya-platforma-privlecheniya-investitsiy-v-dfo-prinesla-pervye-soglasheniya/>(검색일: 2020. 7. 18).
-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инвестирует в производителя тест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EMG.” <https://rdif.ru/fullNews/5104/>(검색일: 2020. 7. 18).
- “Россия вдвое снизила пошлины на иномарки.” Ведомости. <https://www.vedomosti.ru/auto/articles/2019/09/10/810944-poshlini-na-inomarki>(검색일: 2020. 7. 13).
- “Россия и ОАЭ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на \$1,4 млрд.” Коммерсантъ. <https://www.kommersant.ru/doc/4126386>(검색일: 2020. 7. 31).
- “Россия: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окращаются, компании остаются (Le Figaro, Франция).” ИноСМИ.ru. <https://inosmi.ru/economic/20190522/245122635.html>(검색일: 2020. 10. 21).
- “Россияне вошли в тройку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покупателей жилья в Турции.” РБК. <https://www.rbc.ru/business/19/01/2020/5e217e489a794736761c812c>(검색일: 2020. 7. 31).
- “Сбербанк вернулся из Турции.” Коммерсантъ. <https://www.kommersant.ru/doc/4047596>(검색일: 2020. 7. 10).

- “Сбербанк продал свою турецкую «дочку» за \$5 млрд из-за санкций.” РБК. <https://www.rbc.ru/finances/31/07/2019/5d4185139a79470944f1b17f>(검색일: 2020. 8. 5).
- “Семилютина Н.Г. Инвестиции и рынок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проблемы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Журнал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а. N 2. февраль 2003 г. <https://uristy.ucoz.ru/publ/7-1-0-284>(검색일: 2020. 7. 5).
- “СПРАВКА -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ПРАЙМ. <https://1prime.ru/energy/20200108/830767354.html>(검색일: 2020. 7. 31).
-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догово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оощрении и взаимной защит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инвестиций”(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лен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нсультаПлюс).”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26895/](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126895/)(검색일: 2020. 7. 5).
- “США обогнали Китай по числу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в России.” Forbes. <https://www.forbes.ru/biznes/377301-ssha-obognali-kitay-po-chisl-u-investproektov-v-rossii>(검색일: 2020. 7. 20).
- “США тайно вложили в экономику России миллиарды.” <https://lenta.ru/news/2019/06/14/hiddeninvestments/>(검색일: 2020. 7. 10).
- Тайсукэ Абиру. 2019. Япония и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September 30). <https://globalaffairs.ru/articles/yaponiya-i-razvitie-rossijskogo-dalnego-vostoka/>(검색일: 2020. 7. 23).
- “Турецкий Denizbank перешел к Сбербанку.” РБК. <https://www.rbc.ru/economics/28/09/2012/5703fd7f9a7947fcbd440e98>(검색일: 2020. 8. 5).
- “Турецкий поток.” <http://www.gazpromexport.ru/projects/transportation/6/>(검색일: 2020. 7. 15).
- “Valio начала производить йогурты и творог в Подмосковье на заводе Ehrmann.” dp.ru. [https://www.dp.ru/a/2015/01/20/Valio\\_nachala\\_proizvodit](https://www.dp.ru/a/2015/01/20/Valio_nachala_proizvodit)(검색일: 2020. 7. 10).
- “Valio продолжит выпускать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в России.” РБК. <https://www.rbc.ru/society/08/08/2014/570420669a794760d3d40930>(검색일: 2020. 7. 10).

## [법령 자료]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30 ноября 1994 года N 51-ФЗ.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СФСР” № 1488-1.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СФСР” № 1545-1.

Закон РСФСР от 26 июня 1991 г.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СФСР.”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а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12. 12. 1993 с изменениями, одобренными в ход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1. 7. 2020).

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СССР № 2302-1.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N 828237-7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развит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6. 7. 2015 № 708 (РЕД. ОТ 1. 8. 20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4. 8. 2015 N 794 (ред. от 17. 4. 2018) “Об индустриальных(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ах и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ях индустриальных(промышленных) парков.”

Проект закона № 828243-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Ф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Ф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З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и развит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Ф”».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5. 2012 г. № 596 «О долгосроч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1. 2000 N 2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в форме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12.2014 N 488-ФЗ (ред. от 20. 7. 2020)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 мая 2012 г. N 43-ФЗ “О ратифи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Сингапур о поощрении и взаимной защит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ФЗ от 25 февраля 1999 г. N 39-ФЗ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Ф,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в форме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ФЗ от 9 июля 1999 г. N 160-ФЗ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в РФ.”

№26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т.78 БЮДЖЕТН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69-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части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9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ИК.”

[DB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0. 7. 10, 2020. 10. 26).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7. 2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20. 8. 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20. 5.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0. 5. 12, 2020. 7. 7, 2020. 8. 3, 2020. 8. 10, 2020. 8. 18).

Eurostat(검색일: 2020. 7. 13).

Oxford Economics Global Database(검색일: 2020. 9. 10).

Penn World Table(검색일: 2020. 9. 10).

PRS Group. ICRG(검색일: 2020. 9. 10).

UNCTAD. UNCTAD STAT(검색일: 2020. 8. 10).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검색일: 2020. 8. 20).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0. 9. 10).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검색일: 2020. 9. 10).

### [전문가 간담회]

KIEP 전문가 간담회 염동호 한신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1, 서울).

KIEP 전문가 간담회 이종문 부산외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7. 24, 서울).

KIEP 전문가 간담회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비공개 발제 내용(2020. 6. 19, 서울).

KIEP 전문가플 세미나 이상준 국민대 교수 비공개 발제 내용(2020. 10. 7, 서울).

# 부 록

부록 표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설립형태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

지역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1968~2019)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전 세계	합계	23,268	87,838	14,892	144,516	17,499	227,830	80,649	518,415
	신설법인	19,768	64,175	12,294	103,780	13,633	146,110	69,242	366,152
	설립	(84.96)	(73.06)	(82.55)	(71.81)	(77.91)	(64.13)	(85.86)	(70.63)
	기존법인	2,086	22,867	1,559	39,763	2,860	80,243	7,001	147,423
	지분인수	(8.97)	(26.03)	(10.47)	(27.51)	(16.34)	(35.22)	(8.68)	(28.44)
N/A	1,414	796	1,039	973	1,006	1,477	4,406	4,840	
아시아	합계	15,533	42,585	9,857	53,888	11,753	72,746	54,193	195,072
	신설법인	13,423	34,070	8,461	42,014	9,507	53,009	47,496	151,841
	설립	(86.42)	(80.00)	(85.84)	(77.97)	(80.89)	(72.87)	(87.64)	(77.84)
	기존법인	1,177	7,961	832	11,397	1,606	19,040	3,975	40,422
	지분인수	(7.58)	(18.69)	(8.44)	(21.15)	(13.66)	(26.17)	(7.33)	(20.72)
N/A	933	554	564	477	640	697	2,722	2,809	
북미	합계	5,294	18,730	2,679	33,804	2,944	65,733	16,112	133,790
	신설법인	4,535	11,883	2,166	24,290	2,217	32,732	13,871	83,101
	설립	(85.66)	(63.44)	(80.85)	(71.86)	(75.31)	(49.80)	(86.09)	(62.11)
	기존법인	573	6,794	367	9,395	611	32,766	1,630	50,057
	지분인수	(10.82)	(36.27)	(13.70)	(27.79)	(20.75)	(49.85)	(10.12)	(37.41)
N/A	186	53	146	119	116	235	611	632	
유럽	합계	1,021	15,220	895	24,679	1,369	40,551	4,359	89,568
	신설법인	739	9,333	607	12,963	913	26,081	3,196	56,219
	설립	(72.38)	(61.32)	(67.82)	(52.53)	(66.69)	(64.32)	(73.32)	(62.77)
	기존법인	152	5,787	162	11,533	343	14,287	695	32,708
	지분인수	(14.89)	(38.02)	(18.10)	(46.73)	(25.05)	(35.23)	(15.94)	(36.52)
N/A	130	100	126	183	113	183	468	641	
중남미	합계	445	6,695	586	16,860	779	37,174	2,427	65,462
	신설법인	332	5,076	428	11,413	544	24,468	1,883	45,437
	설립	(74.61)	(75.82)	(73.04)	(67.69)	(69.83)	(65.82)	(77.59)	(69.41)
	기존법인	91	1,616	124	5,430	200	12,679	427	19,959
	지분인수	(20.45)	(24.14)	(21.16)	(32.21)	(25.67)	(34.11)	(17.59)	(30.49)
N/A	22	3	34	17	35	27	117	66	

주: 1) \*( )는 전 세계 투자 대비 비중, ( ) 안 숫자는 지역별 총 투자 대비 비중.

2) N/A는 개인, 개인기업, 기타(비영리단체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부록 표 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설립형태

(단위: 개,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1968~2019)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전체	23,268	87,838	14,892	144,516	17,499	227,830	80,649	518,415
대기업	합계	2,722	64,607 *(73.32)	2,826	122,682 *(84.89)	3,009	176,911 *(77.65)	12,789	406,297 *(78.37)
	신설법인 설립	1,886	45,738 (70.79)	1,895	86,036 (70.13)	1,915	109,501 (61.90)	9,259	278,582 (68.57)
	기존법인 지분인수	323	17,997 (27.86)	461	35,824 (29.20)	718	66,131 (37.38)	1,674	123,636 (30.43)
중소 기업	합계	9,012	17,222 *(19.61)	6,525	13,379 *(9.26)	9,082	44,895 *(19.71)	38,370	89,674 *(17.30)
	신설법인 설립	7,271	13,188 (76.58)	5,357	10,898 (81.46)	7,172	32,777 (73.01)	32,868	69,971 (78.03)
	기존법인 지분인수	904	3,914 (22.73)	620	2,332 (17.43)	1,325	11,924 (26.56)	3,108	18,961 (21.14)

주: 전체와 투자자 규모별 합계는 개인, 개인기업, 기타(비영리단체 등)를 포함한 총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부록 표 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전체	64,407	122,682	176,911
대기업	현지시장 진출	26,930(41.81)	49,746(40.55)	82,554(46.66)	168,321(41.43)
	제3국 진출	4,384(6.81)	14,582(11.89)	52,742(29.81)	71,915(17.70)
	자원개발	13,337(20.71)	36,643(29.87)	14,066(7.95)	70,533(17.36)
	수출촉진	10,357(16.08)	10,747(8.76)	8,773(4.96)	46,028(11.33)
	선진기술 도입	3,539(5.49)	6,132(5.00)	14,916(8.43)	26,350(6.49)
	저임활용	3,084(4.79)	3,668(2.99)	2,394(1.35)	10,617(2.61)
	보호무역 타개	383(0.59)	219(0.18)	160(0.09)	1,614(0.40)
	원자재 확보	43(0.07)	6(0.00)	-	320(0.08)
중소 기업	전체	17,222	13,379	44,895	89,674
	현지시장 진출	7,410(43.03)	6,733(50.33)	24,717(55.06)	39,661(44.23)
	수출촉진	3,623(21.04)	2,330(17.42)	2,980(6.64)	14,175(15.81)
	제3국 진출	333(1.93)	1,243(9.29)	12,040(26.82)	13,631(15.20)
	저임활용	2,328(13.52)	1,714(12.81)	2,499(5.57)	8,756(9.76)
	자원개발	1,224(7.11)	547(4.09)	528(1.18)	3,498(3.90)
	선진기술 도입	455(2.64)	519(3.88)	1,855(4.13)	3,183(3.55)
	보호무역 타개	134(0.78)	55(0.41)	74(0.16)	498(0.56)
원자재 확보	61(0.35)	6(0.04)	-	239(0.27)	

주: 전체는 기타 투자목적을 포함한 총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0).

부록 표 4.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지역별 ·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

(단위: 백만 달러, %)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아시아	대기업	합계	27,533 *(64.65)	43,714 *(81.12)	51,799 *(71.21)	139,906 *(71.72)
		현지시장 진출	14,631(53.14)	24,089(55.11)	31,045(59.93)	73,513(52.54)
		수출촉진	3,128(11.36)	4,413(10.10)	5,236(10.11)	17,768(12.70)
		제3국 진출	2,603(9.45)	3,257(7.45)	8,690(16.78)	14,726(10.53)
		자원개발	2,684(9.75)	5,278(12.07)	2,571(4.96)	12,411(8.87)
		저임활용	2,867(10.41)	3,375(7.72)	1,770(3.4)	9,302(6.65)
		선진기술 도입	70(0.25)	2,691(6.16)	1,770(3.4)	4,805(3.43)
		보호무역 타개	293(1.06)	107(0.24)	81(0.16)	1,206(0.86)
		원자재 확보	29(0.11)	-	-	120(0.09)
	중소 기업	합계	12,162 *(28.56)	8,309 *(15.42)	18,263 *(25.11)	46,921 *(24.05)
		현지시장 진출	5,041(41.45)	4,128(49.68)	9,456(51.78)	19,153(40.82)
		수출촉진	2,807(23.08)	1,698(20.44)	2,249(12.31)	10,058(21.44)
		저임활용	2,147(17.65)	1,586(19.09)	2,295(12.57)	8,158(17.39)
		제3국 진출	255(2.10)	298(3.59)	3,669(20.09)	4,233(9.02)
		자원개발	552(4.54)	302(3.63)	302(1.65)	1,635(3.48)
		선진기술 도입	96(0.79)	92(1.11)	136(0.74)	360(0.77)
		보호무역 타개	85(0.70)	42(0.51)	66(0.36)	303(0.65)
		원자재 확보	53(0.44)	5(0.06)	-	169(0.36)
	북미	대기업	합계	14,754 *(78.77)	28,122 *(83.19)	50,495 *(76.82)
현지시장 진출			5,184(35.14)	10,760(38.26)	27,926(55.30)	46,956(44.30)
자원개발			4,500(30.50)	10,271(36.52)	2,701(5.35)	18,866(17.80)
선진기술 도입			2,657(18.01)	2,495(8.87)	11,313(22.40)	17,790(16.78)
수출촉진			2,087(14.15)	2,297(8.17)	942(1.87)	10,941(10.32)
제3국 진출			175(1.19)	1,874(6.66)	7,182(14.22)	9,231(8.71)
저임활용			-	205(0.73)	171(0.34)	400(0.38)
보호무역 타개			7(0.05)	111(0.39)	79(0.16)	246(0.23)
원자재 확보			-	6(0.02)	-	45(0.04)
중소 기업		합계	2,305 *(12.31)	2,694 *(7.97)	13,635 *(20.74)	20,807 *(15.55)
		현지시장 진출	1,005(43.60)	1,693(62.84)	10,121(74.23)	13,023(62.59)
		선진기술 도입	233(10.11)	393(14.59)	1,555(11.40)	2,440(11.73)
		수출촉진	520(22.56)	389(14.44)	425(3.12)	2,188(10.52)
		제3국 진출	5(0.22)	84(3.12)	1,379(10.11)	1,468(7.06)
		자원개발	250(10.85)	98(3.64)	98(0.72)	716(3.44)
		보호무역 타개	13(0.56)	10(0.37)	1(0.01)	70(0.34)
		저임활용	13(0.56)	4(0.15)	2(0.01)	40(0.19)
		원자재 확보	5(0.22)	-	-	33(0.16)

부록 표 4.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유럽	대기업	합계	13,864 *(91.09)	22,233 *(90.09)	33,184 *(81.83)	77,202 *(86.19)
		현지시장 진출	5,880(42.41)	7,748(34.85)	13,485(40.64)	28,449(36.85)
		제3국 진출	819(5.91)	3,740(16.82)	14,210(42.82)	18,784(24.33)
		수출촉진	4,150(29.93)	3,443(15.49)	1,948(5.87)	14,273(18.49)
		자원개발	1,412(10.18)	6,392(28.75)	1,434(4.32)	10,133(13.13)
		선진기술 도입	670(4.83)	689(3.10)	1,556(4.69)	3,058(3.96)
		저임활용	129(0.93)	56(0.25)	378(1.14)	667(0.86)
		보호무역 타개	48(0.35)	-	-	82(0.11)
		원자재 확보	-	-	-	17(0.02)
	중소기업	합계	1,215 *(7.98)	1,600 *(6.48)	7,009 *(17.28)	10,991 *(12.27)
		현지시장 진출	416(34.24)	442(27.63)	3,287(46.90)	4,164(37.89)
		제3국 진출	6(0.49)	820(51.25)	3,291(46.95)	4,117(37.46)
		수출촉진	190(15.64)	161(10.06)	154(2.20)	1,186(10.79)
		자원개발	301(24.77)	95(5.94)	48(0.68)	562(5.11)
		선진기술 도입	98(8.07)	32(2.00)	127(1.81)	312(2.84)
		저임활용	22(1.81)	30(1.88)	82(1.17)	146(1.33)
		보호무역 타개	36(2.96)	3(0.19)	6(0.09)	87(0.79)
		원자재 확보	-	-	-	14(0.13)
중남미	대기업	합계	4,670 *(69.75)	14,639 *(86.83)	31,368 *(84.38)	53,157 *(81.20)
		제3국 진출	715(15.31)	4,803(32.81)	22,458(71.60)	27,989(52.65)
		자원개발	2,222(47.58)	4,983(34.04)	3,371(10.75)	11,230(21.13)
		현지시장 진출	756(16.19)	4,202(28.70)	4,696(14.97)	10,479(19.71)
		수출촉진	696(14.90)	357(2.44)	483(1.54)	2,185(4.11)
		선진기술 도입	139(2.98)	252(1.72)	266(0.85)	660(1.24)
		저임활용	21(0.45)	25(0.17)	68(0.22)	133(0.25)
		원자재 확보	-	-	-	90(0.17)
		보호무역 타개	35(0.75)	-	-	68(0.13)
	중소기업	합계	871 *(13.01)	373 *(2.21)	4,808 *(12.93)	8,188 *(12.51)
		제3국 진출	41(4.71)	40(10.72)	3,591(74.69)	3,676(44.89)
		현지시장 진출	580(66.59)	224(60.05)	1,045(21.73)	1,871(22.85)
		수출촉진	55(6.31)	62(16.62)	99(2.06)	474(5.79)
		자원개발	88(10.10)	34(9.12)	39(0.81)	402(4.91)
		저임활용	51(5.86)	12(3.22)	28(0.58)	120(1.47)
		보호무역 타개	-	-	-	30(0.37)
		선진기술 도입	3(0.34)	1(0.27)	4(0.08)	13(0.16)
		원자재 확보	-	-	-	12(0.15)

주: 1) \*( )는 지역별 총 투자 대비 비중, ( ) 안 숫자는 지역별 투자자 규모별 합계 대비 비중.

2) 전체 및 투자자 규모별 합계는 기타 투자목적을 포함한 총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부록 표 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전체	합계	87,838	144,516	227,830	518,415
	제조업	30,493(34.72)	44,287(30.65)	60,102(26.38)	165,354(31.90)
	금융 및 보험업	10,821(12.32)	21,276(14.72)	71,322(31.30)	108,171(20.87)
	광업	13,001(14.80)	37,087(25.66)	12,417(5.45)	65,848(12.70)
	도매 및 소매업	12,784(14.55)	9,311(6.44)	22,237(9.76)	55,278(10.66)
	부동산업	6,338(7.22)	12,082(8.36)	26,403(11.59)	45,934(8.86)
	정보통신업	2,079(2.37)	2,988(2.07)	7,019(3.08)	13,872(2.68)
	건설업	2,881(3.28)	3,216(2.23)	6,817(2.99)	13,859(2.67)
대기업	합계	64,407	122,682	176,911	406,297
	제조업	20,821(32.33)	35,896(29.26)	44,876(25.37)	123,059(30.29)
	금융 및 보험업	9,297(14.43)	19,893(16.22)	56,671(32.03)	89,124(21.94)
	광업	12,300(19.10)	33,940(27.67)	12,236(6.92)	61,616(15.17)
	도매 및 소매업	10,896(16.92)	7,810(6.37)	19,721(11.15)	47,486(11.69)
	부동산업	3,443(5.35)	10,075(8.21)	18,352(10.37)	32,724(8.05)
	건설업	1,411(2.19)	2,697(2.20)	6,352(3.59)	11,131(2.74)
	중소기업	합계	17,222	13,379	44,895
제조업		8,107(47.07)	7,074(52.87)	14,068(31.34)	37,543(41.87)
금융 및 보험업		880(5.11)	635(4.75)	13,201(29.40)	16,119(17.98)
부동산업		2,194(12.74)	1,611(12.04)	7,035(15.67)	11,068(12.34)
도매 및 소매업		1,034(6.00)	1,103(8.24)	2,065(4.60)	5,836(6.51)
정보통신업		590(3.43)	488(3.65)	2,704(6.02)	4,293(4.79)
건설업		1,253(7.28)	498(3.72)	363(0.81)	2,370(2.64)

주: 합계는 기타 업종을 포함한 총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부록 표 6.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지역별 ·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아시아	대기업	합계	27,533	43,714	51,799	139,906
		제조업	12,798(46.48)	24,776(56.68)	25,598(49.42)	72,613(51.90)
		금융 및 보험업	4,206(15.28)	4,799(10.98)	12,336(23.82)	22,888(16.36)
		도매 및 소매업	3,697(13.43)	3,279(7.50)	4,631(8.94)	14,431(10.31)
		광업	2,327(8.45)	4,759(10.89)	2,136(4.12)	9,981(7.13)
		부동산업	1,312(4.77)	1,344(3.07)	2,036(3.93)	5,263(3.76)
		정보통신업	534(1.94)	1,039(2.38)	902(1.74)	2,990(2.14)
	중소기업	합계	12,162	8,309	18,263	46,921
		제조업	6,743(55.44)	5,602(67.42)	9,275(50.79)	28,127(59.95)
		금융 및 보험업	290(2.38)	196(2.36)	3,253(17.81)	3,755(8.00)
		도매 및 소매업	594(4.88)	695(8.36)	1,282(7.02)	3,082(6.57)
		부동산업	1,572(12.93)	318(3.83)	1,079(5.91)	3,040(6.48)
		정보통신업	400(3.29)	229(2.76)	1,118(6.12)	1,975(4.21)
		건설업	853(7.01)	304(3.66)	256(1.40)	1,561(3.33)
북미	대기업	합계	14,754	28,122	50,495	105,998
		금융 및 보험업	1,970(13.35)	6,591(23.44)	14,363(28.44)	23,450(22.12)
		도매 및 소매업	3,028(20.52)	2,401(8.54)	12,225(24.21)	20,700(19.53)
		제조업	2,893(19.61)	2,995(10.65)	6,370(12.62)	19,302(18.21)
		광업	4,950(33.55)	9,775(34.76)	2,704(5.35)	17,816(16.81)
		부동산업	305(2.07)	3,624(12.89)	9,068(17.96)	13,081(12.34)
		정보통신업	760(5.15)	718(2.55)	1,883(3.73)	3,746(3.53)
	중소기업	합계	2,305	2,694	13,635	20,807
		제조업	585(25.38)	803(29.81)	3,032(22.24)	5,137(24.69)
		금융 및 보험업	90(3.90)	248(9.21)	4,320(31.68)	4,664(22.42)
		부동산업	324(14.06)	628(23.31)	2,264(16.60)	3,311(15.91)
		도매 및 소매업	307(13.32)	286(10.62)	601(4.41)	1,735(8.34)
		정보통신업	157(6.81)	180(6.68)	1,151(8.44)	1,641(7.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9(4.73)	178(6.61)	738(5.41)	1,044(5.02)

부록 표 6.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19년)	
유럽	대기업	합계	<b>13,864</b>	<b>22,233</b>	<b>33,184</b>	<b>77,202</b>
		제조업	3,992(28.79)	4,208(18.93)	6,927(20.87)	19,059(24.69)
		금융 및 보험업	2,189(15.79)	3,934(17.69)	11,584(34.91)	18,147(23.51)
		도매 및 소매업	3,568(25.74)	1,641(7.38)	2,353(7.09)	10,318(13.36)
		부동산업	1,600(11.54)	2,289(10.30)	6,067(18.28)	10,018(12.98)
		광업	1,322(9.54)	6,905(31.06)	951(2.87)	9,378(12.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4(0.82)	1,392(6.26)	556(1.68)	2,069(2.68)
	중소기업	합계	<b>1,215</b>	<b>1,600</b>	<b>7,009</b>	<b>10,991</b>
		부동산업	36(2.96)	641(40.06)	3,226(46.03)	3,939(35.84)
		제조업	530(43.62)	306(19.13)	924(13.18)	2,318(21.09)
		금융 및 보험업	69(5.68)	151(9.44)	1,917(27.35)	2,136(19.43)
		도매 및 소매업	92(7.57)	76(4.75)	119(1.70)	702(6.39)
		정보통신업	16(1.32)	70(4.38)	350(4.99)	478(4.35)
		건설업	147(12.10)	100(6.25)	8(0.11)	255(2.32)
중남미	대기업	합계	<b>4,670</b>	<b>14,639</b>	<b>31,368</b>	<b>53,157</b>
		금융 및 보험업	897(19.21)	3,959(27.04)	17,864(56.95)	23,370(43.96)
		제조업	836(17.90)	3,248(22.19)	5,277(16.82)	10,015(18.84)
		광업	1,336(28.61)	3,460(23.64)	2,540(8.10)	7,858(14.7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69(18.61)	1,497(10.23)	1,473(4.70)	3,857(7.26)
		부동산업	65(1.39)	1,173(8.01)	1,025(3.27)	2,347(4.42)
		운수 및 창고업	207(4.43)	229(1.56)	966(3.08)	1,430(2.69)
	중소기업	합계	<b>871</b>	<b>373</b>	<b>4,808</b>	<b>8,188</b>
		금융 및 보험업	432(49.60)	40(10.72)	3,510(73.00)	5,363(65.50)
		제조업	201(23.08)	219(58.71)	651(13.54)	1,411(17.23)
		광업	61(7.00)	5(1.34)	0(0.00)	180(2.20)
		도매 및 소매업	25(2.87)	19(5.09)	25(0.52)	159(1.94)
		정보통신업	13(1.49)	8(2.14)	58(1.21)	157(1.92)
		운수 및 창고업	51(5.86)	30(8.04)	46(0.96)	136(1.66)

주: 1) ( ) 안 숫자는 지역별 투자자 규모별 합계 대비 비중.

2) 투자자 규모별 합계는 기타 업종을 포함한 총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7. 7).

부록 표 7.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09년)		누계(2019년)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전체	23,268	87,838	14,892	144,516	17,499	227,830	48,258	146,068	80,649	518,415
러시아	197	<b>1,178</b> (1.34)	119	<b>783</b> (0.54)	112	<b>564</b> (0.25)	382	<b>1,457</b> (1.0)	613	<b>2,804</b> (0.54)
중국	9,099	18,608 (21.18)	4,077	19,862 (13.74)	2,923	20,234 (8.88)	20,799	30,714 (21.03)	27,799	70,811 (13.66)
베트남	1,444	4,290 (4.88)	1,438	5,753 (3.98)	3,641	13,781 (6.05)	2,086	5,726 (3.92)	7,165	25,260 (4.87)
인도네시아	587	1,565 (1.78)	577	4,405 (3.05)	426	3,605 (1.58)	1,267	3,892 (2.66)	2,270	11,901 (2.30)
브라질	75	1,317 (1.50)	132	4,213 (2.92)	41	2,584 (1.13)	125	1,636 (1.12)	298	8,434 (1.63)
인도	332	1,146 (1.30)	258	1,662 (1.15)	472	2,737 (1.20)	496	2,025 (1.39)	1,226	6,424 (1.24)

주: ( ) 안 숫자는 국가별 기간별 전체 세계 투자금액 대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부록 표 8.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2009년)		누계(2019년)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전체		23,268	87,838	14,892	144,516	17,499	227,830	48,258	146,068	80,649	518,415
중국	합계	9,099	18,608	4,077	19,862	2,923	20,234	20,799	30,714	27,799	70,811
	대기업	672	11,832 (63.59)	481	16,301 (82.07)	330	16,542 (81.75)	1,699	18,593 (60.54)	2,510	51,436 (72.64)
	중소기업	3,621	5,579 (29.98)	1,657	3,058 (15.40)	1,605	3,345 (16.53)	11,043	10,391 (33.83)	14,305	16,793 (23.72)
베트남	합계	1,444	4,290	1,438	5,753	3,641	13,781	2,086	5,726	7,165	25,260
	대기업	183	2,718 (63.36)	187	3,990 (69.36)	306	7,851 (56.97)	304	3,635 (63.48)	797	15,477 (61.27)
	중소기업	825	1,351 (31.49)	880	1,602 (27.85)	2,143	5,267 (38.22)	1,229	1,836 (32.06)	4,252	8,704 (34.46)
인도네시아	합계	587	1,565	577	4,405	426	3,605	1,267	3,892	2,270	11,901
	대기업	87	1,017 (64.98)	124	3,598 (81.68)	95	2,725 (75.59)	262	2,815 (72.33)	481	9,138 (76.78)
	중소기업	255	437 (27.92)	308	716 (16.25)	225	809 (22.44)	642	928 (23.84)	1,175	2,453 (20.61)
브라질	합계	75	1,317	132	4,213	41	2,584	125	1,636	298	8,434
	대기업	23	1,282 (97.34)	57	3,844 (91.24)	19	2,302 (89.09)	52	1,593 (97.37)	128	7,739 (91.76)
	중소기업	20	31 (2.35)	56	162 (3.85)	13	280 (10.84)	39	39 (2.38)	108	482 (5.71)
인도	합계	332	1,146	258	1,662	472	2,737	496	2,025	1,226	6,424
	대기업	104	754 (65.79)	83	1,431 (86.10)	96	2,265 (82.75)	175	1,396 (68.94)	354	5,091 (79.25)
	중소기업	130	358 (31.24)	105	215 (12.94)	207	404 (14.76)	204	592 (29.23)	516	1,211 (18.85)
러시아	합계	197	1,178	119	783	112	564	382	1,457	613	2,804
	대기업	83	984 (83.53)	45	651 (83.14)	38	479 (84.93)	153	1,186 (81.40)	236	2,317 (82.63)
	중소기업	90	161 (13.67)	63	120 (15.33)	61	77 (13.65)	190	233 (16.00)	314	429 (15.30)

주: 합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 기타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부록 표 9.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목적(투자금액 기준)  
기타 국가 추가 작성

(단위: 백만 달러)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전 세계		87,838	144,516	227,830	146,068	518,415	
중국	전체	18,608	19,862	20,234	30,714	70,811	
	합계	11,832	16,301	16,542	18,593	51,436	
	대기업	현지시장 진출	7,015(59.29)	9,737(59.73)	11,746(71.01)	8,759(47.11)	30,241(58.79)
		수출촉진	1,951(16.49)	2,420(14.85)	2,892(17.48)	4,022(21.63)	9,333(18.14)
		저임활용	1,706(14.42)	1,322(8.11)	395(2.39)	2,620(14.09)	4,338(8.43)
		선진기술 도입	8(0.07)	2,508(15.39)	1,249(7.55)	24(0.13)	3,781(7.35)
		보호무역 타개	246(2.08)	94(0.58)	77(0.47)	668(3.59)	839(1.63)
		자원개발	217(1.83)	152(0.93)	148(0.89)	268(1.44)	568(1.10)
		제3국 진출	30(0.25)	29(0.18)	12(0.07)	33(0.18)	74(0.14)
		원자재 확보	8(0.07)	-	-	30(0.16)	30(0.06)
	중소기업	합계	5,579	3,058	3,345	10,391	16,793
		현지시장 진출	1,739(31.17)	1,671(54.64)	2,362(70.61)	2,133(20.53)	6,166(36.72)
		수출촉진	1,588(28.46)	650(21.26)	528(15.78)	3,424(32.95)	4,602(27.40)
		저임활용	1,467(26.30)	594(19.42)	382(11.42)	3,037(29.23)	4,013(23.90)
		자원개발	171(3.07)	21(0.69)	19(0.57)	270(2.60)	310(1.85)
		보호무역 타개	48(0.86)	24(0.78)	15(0.45)	141(1.36)	180(1.07)
		원자재 확보	39(0.70)	5(0.16)	-	117(1.13)	122(0.73)
		제3국 진출	53(0.95)	40(1.31)	21(0.63)	55(0.53)	115(0.68)
	선진기술 도입	49(0.88)	12(0.39)	6(0.18)	72(0.69)	90(0.54)	
	베트남	전체	4,290	5,753	13,781	5,726	25,260
합계		2,718	3,990	7,851	3,635	15,477	
대기업		현지시장 진출	1,158(42.60)	1,689(42.33)	4,752(60.53)	1,356(37.30)	7,797(50.38)
		수출촉진	213(7.84)	520(13.03)	1,603(20.42)	548(15.08)	2,671(17.26)
		자원개발	911(33.52)	887(22.23)	583(7.43)	1,081(29.74)	2,552(16.49)
		저임활용	311(11.44)	866(21.70)	857(10.92)	377(10.37)	2,100(13.57)
		제3국 진출	7(0.26)	-	34(0.43)	7(0.19)	42(0.27)
		보호무역 타개	3(0.11)	5(0.13)	-	8(0.22)	13(0.08)
		선진기술 도입	-	-	-	-	-
		원자재 확보	-	-	-	-	-
중소기업		합계	1,351	1,602	5,267	1,836	8,704
		현지시장 진출	577(42.71)	608(37.95)	2,575(48.89)	616(33.55)	3,799(43.65)
		저임활용	377(27.91)	497(31.02)	1,462(27.76)	554(30.17)	2,513(28.87)
		수출촉진	308(22.80)	452(28.21)	1,148(21.80)	492(26.80)	2,093(24.05)
		제3국 진출	6(0.44)	20(1.25)	56(1.06)	6(0.33)	81(0.93)
		자원개발	29(2.15)	19(1.19)	9(0.17)	31(1.69)	59(0.68)
		선진기술 도입	4(0.30)	2(0.12)	7(0.13)	4(0.22)	13(0.15)
		보호무역 타개	3(0.22)	1(0.06)	7(0.13)	4(0.22)	13(0.15)
원자재 확보		1(0.07)	-	-	1(0.05)	1(0.01)	

부록 표 9.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인도네시아	전체	1,565	4,405	3,605	3,892	11,901	
	대기업	합계	1,017	3,598	2,725	2,815	9,138
		현지시장 진출	400(39.33)	1,892(52.58)	2,082(76.40)	505(17.94)	4,479(49.02)
		자원개발	392(38.54)	1,461(40.61)	301(11.05)	1,197(42.52)	2,959(32.38)
		수출촉진	69(6.78)	77(2.14)	130(4.77)	696(24.72)	903(9.88)
		저임활용	99(9.73)	149(4.14)	181(6.64)	157(5.58)	488(5.34)
		보호무역 타개	-	-	-	51(1.81)	51(0.56)
		선진기술 도입	35(3.44)	10(0.28)	-	35(1.24)	44(0.48)
		제3국 진출	-	4(0.11)	27(0.99)	-	31(0.34)
		원자재 확보	12	-	-	28(0.99)	28(0.31)
		중소기업	합계	437	716	809	928
	현지시장 진출	152(34.78)	271(37.85)	349(43.14)	175(18.86)	796(32.45)	
	저임활용	65(14.87)	220(30.73)	240(29.67)	170(18.32)	630(25.68)	
	수출촉진	72(16.48)	157(21.93)	114(14.09)	239(25.75)	511(20.83)	
	자원개발	106(24.26)	60(8.38)	62(7.66)	259(27.91)	380(15.49)	
	보호무역 타개	29(6.64)	4(0.56)	41(5.07)	33(3.56)	77(3.14)	
	원자재 확보	1(0.23)	-	-	14(1.51)	14(0.57)	
	제3국 진출	1(0.23)	2(0.28)	-	1(0.11)	3(0.12)	
	선진기술 도입	-	-	1(0.12)	-	1(0.04)	
브라질	전체	1,317	4,213	2,584	1,636	8,434	
	대기업	합계	1,282	3,844	2,302	1,593	7,739
		자원개발	899(70.12)	1,810(47.09)	698(30.32)	931(58.44)	3,439(44.44)
		현지시장 진출	78(6.08)	1,646(42.82)	1,324(57.52)	196(12.30)	3,166(40.91)
		수출촉진	89(6.94)	142(3.69)	215(9.34)	213(13.37)	570(7.37)
		선진기술 도입	126(9.83)	246(6.40)	65(2.82)	128(8.04)	439(5.67)
		원자재 확보	-	-	-	27(1.69)	27(0.35)
		보호무역 타개	22(1.72)	-	-	22(1.38)	22(0.28)
		저임활용	2(0.16)	-	-	3(0.19)	3(0.04)
		제3국 진출	-	-	-	-	-
		중소기업	합계	31	162	280	39
	현지시장 진출	8(25.81)	114(70.37)	209(74.64)	8(20.51)	331(68.67)	
	수출촉진	14(45.16)	34(20.99)	35(12.5)	20(51.28)	90(18.67)	
	자원개발	9(29.03)	13(8.02)	35(12.5)	10(25.64)	58(12.03)	
	저임활용	-	1(0.62)	-	-	1(0.21)	
	제3국 진출	-	-	-	-	-	
	원자재 확보	-	-	-	-	-	
	선진기술 도입	-	-	-	-	-	
	보호무역 타개	-	-	-	-	-	

부록 표 9.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인도	전체	1,146	1,662	2,737	2,025	6,424	
	대기업	합계	754	1,431	2,265	1,396	5,091
		현지시장 진출	411(54.51)	1,064(74.35)	1,969(86.93)	440(31.52)	3,474(68.24)
		수출촉진	168(22.28)	205(14.33)	98(4.33)	463(33.17)	766(15.05)
		보호무역 타개	30(3.98)	7(0.49)	4(0.18)	223(15.97)	235(4.62)
		저임활용	28(3.71)	55(3.84)	27(1.19)	44(3.15)	126(2.47)
		선진기술 도입	5(0.66)	-	43(1.90)	5(0.36)	48(0.94)
		자원개발	-	5(0.35)	-	-	5(0.10)
		원자재 확보	-	-	-	-	-
		제3국 진출	-	-	-	-	-
	중소기업	합계	358	215	404	592	1,211
		현지시장 진출	70(19.55)	139(64.65)	351(86.88)	73(12.33)	563(46.49)
		수출촉진	244(68.16)	44(20.47)	26(6.44)	423(71.45)	493(40.71)
		저임활용	31(8.66)	26(12.09)	12(2.97)	47(7.94)	85(7.02)
		선진기술 도입	2(0.56)	1(0.47)	6(1.49)	2(0.34)	9(0.74)
		자원개발	-	-	-	6(1.01)	6(0.50)
		보호무역 타개	-	-	1(0.25)	2(0.34)	4(0.33)
		제3국 진출	1(0.28)	-	-	1(0.17)	1(0.08)
		원자재 확보	-	-	-	1(0.17)	1(0.08)
러시아	전체	1,178	783	564	1,457	2,804	
	대기업	합계	984*(83.53)	651*(83.14)	479*(84.93)	1,186*(81.40)	2,317*(82.63)
		현지시장 진출	566(57.52)	581(89.25)	424(88.52)	648(54.64)	1,653(71.34)
		수출촉진	320(32.52)	5(0.77)	21(4.38)	337(28.41)	363(15.67)
		자원개발	41(4.17)	61(9.37)	30(6.26)	58(4.89)	148(6.39)
		보호무역 타개	16(1.63)	-	-	18(1.52)	18(0.78)
		저임활용	1(0.10)	4(0.61)	5(1.04)	1(0.08)	10(0.43)
		선진기술 도입	-	-	-	2(0.17)	2(0.09)
		원자재 확보	-	-	-	1(0.08)	1(0.04)
		제3국 진출	-	-	-	-	-
	중소기업	합계	161*(13.67)	120*(15.33)	77*(13.65)	233*(15.99)	429*(15.30)
		자원개발	73(45.34)	71(59.17)	46(59.74)	113(48.50)	230(53.61)
		현지시장 진출	50(31.06)	38(31.67)	22(28.57)	50(21.46)	111(25.87)
		수출촉진	6(3.73)	2(1.67)	3(3.90)	20(8.58)	24(5.59)
		원자재 확보	-	-	-	11(4.72)	11(2.56)
		저임활용	1(0.62)	2(1.67)	4(5.19)	3(1.29)	9(2.10)
		보호무역 타개	3(1.86)	-	-	4(1.72)	4(0.93)
		제3국 진출	-	4(3.33)	-	-	4(0.93)
		선진기술 도입	-	1(0.83)	1(1.30)	-	2(0.47)

주: 국가별 전체 수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 포함, 국가별 투자자 규모별 합계는 기타 목적 포함, ( ) 안 숫자는 합계 대비 목적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부록 표 10. 한국의 주요 신흥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투자자 규모별 투자업종(투자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전 세계		87,838	144,516	227,830	146,068	518,415
	전체	18,608	19,862	20,234	30,714	70,811
중국	전체	11,832	16,301	16,542	18,593	51,436
	제조업	8,371(70.75)	12,502(76.69)	14,383(86.95)	13,977(75.17)	40,862(79.44)
	금융 및 보험업	1,805(15.26)	1,743(10.69)	716(4.33)	2,227(11.98)	4,686(9.11)
	도매 및 소매업	753(6.36)	764(4.69)	629(3.80)	926(4.98)	2,319(4.51)
	부동산업	65(0.55)	802(4.92)	263(1.59)	203(1.09)	1,268(2.47)
	건설업	283(2.39)	73(0.45)	4(0.02)	468(2.52)	545(1.06)
	운수 및 창고업	132(1.12)	138(0.85)	38(0.23)	191(1.03)	368(0.72)
	숙박 및 음식점업	59(0.50)	78(0.48)	110(0.66)	128(0.69)	317(0.62)
	광업	193(1.63)	18(0.11)	83(0.50)	201(1.08)	302(0.5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0.34)	49(0.30)	133(0.80)	54(0.29)	236(0.46)
	정보통신업	47(0.40)	75(0.46)	74(0.45)	71(0.38)	220(0.43)
	합계	5,579	3,058	3,345	10,391	16,793
	제조업	4,490(80.48)	2,591(84.73)	2,583(77.22)	8,572(82.49)	13,745(81.85)
	도매 및 소매업	189(3.39)	200(6.54)	367(10.97)	332(3.20)	900(5.36)
	부동산업	299(5.36)	37(1.21)	19(0.57)	330(3.18)	387(2.30)
	숙박 및 음식점업	55(0.99)	20(0.65)	23(0.69)	235(2.26)	278(1.66)
	건설업	158(2.83)	12(0.39)	16(0.48)	238(2.29)	266(1.58)
	정보통신업	41(0.73)	28(0.92)	91(2.72)	129(1.24)	248(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0.61)	35(1.14)	57(1.70)	43(0.41)	134(0.8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4(0.61)	16(0.52)	9(0.27)	104(1.00)	129(0.77)
금융 및 보험업	19(0.34)	15(0.49)	85(2.54)	20(0.19)	119(0.71)	
운수 및 창고업	24(0.43)	24(0.78)	8(0.24)	58(0.56)	90(0.54)	
베트남	전체	4,290	5,753	13,781	5,726	25,260
	합계	2,718	3,990	7,851	3,635	15,477
대기업	제조업	1,127(41.46)	1,963(49.20)	4,288(54.62)	1,654(45.50)	7,905(51.08)
	광업	910(33.48)	886(22.21)	579(7.37)	1,070(29.44)	2,535(16.38)
	금융 및 보험업	139(5.11)	216(5.41)	1,914(24.38)	213(5.86)	2,343(15.14)
	부동산업	280(10.30)	248(6.22)	442(5.63)	354(9.74)	1,044(6.75)
	도매 및 소매업	30(1.10)	242(6.07)	259(3.30)	31(0.85)	532(3.44)
	숙박 및 음식점업	93(3.42)	136(3.41)	89(1.13)	136(3.74)	362(2.34)
	건설업	96(3.53)	72(1.80)	82(1.04)	119(3.27)	272(1.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25(3.13)	32(0.41)	-	157(1.01)
	운수 및 창고업	9(0.33)	14(0.35)	69(0.88)	10(0.28)	92(0.59)
	정보통신업	4(0.15)	28(0.70)	45(0.57)	8(0.22)	81(0.52)
	합계	1,351	1,602	5,267	1,836	8,704
	제조업	846(62.62)	1,291(80.59)	4,322(82.06)	1,255(68.36)	6,868(78.91)
	도매 및 소매업	21(1.55)	96(5.99)	355(6.74)	23(1.25)	473(5.43)
부동산업	193(14.29)	76(4.74)	136(2.58)	222(12.09)	434(4.99)	
건설업	153(11.32)	77(4.81)	76(1.44)	154(8.39)	308(3.54)	
숙박 및 음식점업	54(4.00)	15(0.94)	88(1.67)	83(4.52)	186(2.14)	
정보통신업	6(0.44)	6(0.37)	48(0.91)	7(0.38)	61(0.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52)	6(0.37)	46(0.87)	8(0.44)	59(0.68)	
운수 및 창고업	1(0.07)	4(0.25)	29(0.55)	2(0.11)	34(0.3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20(0.38)	-	21(0.24)	
농업, 임업 및 어업	5(0.37)	3(0.19)	7(0.13)	11(0.60)	20(0.23)	

부록 표 10.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인도네시아	전체	1,565	4,405	3,605	3,892	11,901
	합계	1,017	3,598	2,725	2,815	9,138
	제조업	322(31.66)	1,642(45.64)	732(26.86)	1,336(47.46)	3,709(40.59)
	광업	314(30.88)	1,098(30.52)	20(0.73)	866(30.76)	1,984(21.71)
	금융 및 보험업	45(4.42)	185(5.14)	1,315(48.26)	94(3.34)	1,593(17.43)
	농업, 임업 및 어업	33(3.24)	234(6.50)	257(9.43)	80(2.84)	570(6.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6(6.49)	191(5.31)	93(3.41)	66(2.34)	350(3.83)
	도매 및 소매업	179(17.60)	89(2.47)	61(2.24)	184(6.54)	334(3.66)
	건설업	1(0.10)	65(1.81)	67(2.46)	41(1.46)	173(1.89)
	부동산업	4(0.39)	-	47(1.72)	83(2.95)	130(1.42)
	정보통신업	5(0.49)	26(0.72)	59(2.17)	12(0.43)	97(1.06)
	운수 및 창고업	40(3.93)	17(0.47)	4(0.15)	44(1.56)	65(0.71)
	합계	437	716	809	928	2,453
	제조업	203(46.45)	479(66.90)	539(66.63)	643(69.29)	1,661(67.71)
	광업	72(16.48)	71(9.92)	18(2.22)	94(10.13)	184(7.50)
	도매 및 소매업	25(5.72)	61(8.52)	47(5.81)	28(3.02)	135(5.50)
	농업, 임업 및 어업	14(3.20)	19(2.65)	62(7.66)	32(3.45)	113(4.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75)	41(5.73)	22(2.72)	12(1.29)	75(3.06)
	부동산업	14(3.20)	5(0.70)	40(4.94)	15(1.62)	60(2.45)
	정보통신업	9(2.06)	8(1.12)	36(4.45)	11(1.19)	54(2.20)
건설업	18(4.12)	10(1.40)	12(1.48)	20(2.16)	41(1.67)	
운수 및 창고업	2(0.46)	13(1.82)	19(2.35)	2(0.22)	34(1.39)	
숙박 및 음식점업	26(5.95)	2(0.28)	5(0.62)	26(2.80)	33(1.35)	
브라질	전체	1,317	4,213	2,584	1,636	8,434
	합계	1,282	3,844	2,302	1,593	7,739
	제조업	309(24.10)	2,376(61.81)	970(42.14)	566(35.53)	3,913(50.56)
	광업	891(69.50)	776(20.19)	432(18.77)	921(57.82)	2,129(27.51)
	금융 및 보험업	60(4.68)	507(13.19)	47(2.04)	76(4.77)	630(8.14)
	건설업	3(0.23)	22(0.57)	484(21.03)	4(0.25)	509(6.58)
	도매 및 소매업	16(1.25)	116(3.02)	124(5.39)	19(1.19)	259(3.35)
	운수 및 창고업	-	6(0.16)	233(10.12)	-	240(3.10)
	부동산업	-	28(0.73)	-	-	28(0.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13)	7(0.30)	-	12(0.16)
	합계	31	162	280	39	482
	제조업	18(58.06)	131(80.86)	239(85.36)	19(48.72)	389(80.71)
	농업, 임업 및 어업	4(12.90)	11(6.79)	35(12.50)	4(10.26)	50(10.37)
	도매 및 소매업	7(22.58)	8(4.94)	2(0.71)	13(33.33)	22(4.56)
정보통신업	-	3(1.85)	4(1.43)	-	8(1.66)	
건설업	-	7(4.32)	-	-	7(1.45)	

부록 표 10. 계속

		2005~09년	2010~14년	2015~19년	누계 (2009년)	누계 (2019년)	
인도	전체	1,146	1,662	2,737	2,025	6,424	
	대기업	합계	754	1,431	2,265	1,396	5,091
		제조업	627(83.16)	1,242(86.79)	1,956(86.36)	1,134(81.23)	4,332(85.09)
		도매 및 소매업	27(3.58)	59(4.12)	91(4.02)	111(7.95)	262(5.15)
		건설업	30(3.98)	39(2.73)	99(4.37)	31(2.22)	169(3.32)
		운수 및 창고업	7(0.93)	11(0.77)	91(4.02)	7(0.50)	109(2.14)
		금융 및 보험업	45(5.97)	2(0.14)	-	83(5.95)	85(1.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56(3.91)	-	-	56(1.10)
		정보통신업	5(0.66)	6(0.42)	11(0.49)	6(0.43)	22(0.43)
	중소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66)	4(0.28)	5(0.22)	5(0.36)	14(0.27)
		합계	358	215	404	592	1,211
	중소기업	제조업	343(95.81)	178(82.79)	298(73.76)	553(93.41)	1,029(84.97)
		도매 및 소매업	8(2.23)	6(2.79)	32(7.92)	31(5.24)	69(5.70)
		정보통신업	3(0.84)	1(0.47)	47(11.63)	3(0.51)	52(4.29)
		교육 서비스업	-	9(4.19)	4(0.99)	-	13(1.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9(4.19)	-	-	9(0.74)	
러시아	전체	1,178	783	564	1,457	2,804	
	대기업	합계	984	651	479	1,186	2,317
		제조업	712(72.36)	467(71.74)	273(56.99)	798(67.28)	1,538(66.38)
		도매 및 소매업	166(16.87)	12(1.84)	141(29.44)	171(14.42)	324(13.98)
		금융 및 보험업	21(2.13)	60(9.22)	28(5.85)	22(1.85)	110(4.75)
		농업, 임업 및 어업	12(1.22)	40(6.14)	28(5.85)	13(1.10)	81(3.50)
		건설업	25(2.54)	31(4.76)	-	25(2.11)	56(2.42)
		숙박 및 음식점업	3(0.30)	-	-	50(4.22)	50(2.16)
		부동산업	5(0.51)	8(1.23)	-	38(3.20)	46(1.99)
		광업	20(2.03)	16(2.46)	-	20(1.69)	37(1.60)
		정보통신업	5(0.51)	-	-	33(2.78)	33(1.42)
	운수 및 창고업	12(1.22)	12(1.84)	1(0.21)	12(1.01)	25(1.08)	
	중소기업	합계	161	120	77	233	429
		광업	72(44.72)	23(19.17)	21(27.27)	101(43.35)	144(33.57)
		농업, 임업 및 어업	20(12.42)	48(40.00)	20(25.97)	26(11.16)	94(21.91)
제조업		28(17.39)	22(18.33)	13(16.88)	52(22.32)	86(20.05)	
도매 및 소매업		3(1.86)	14(11.67)	12(15.58)	15(6.44)	41(9.56)	
부동산업	20(12.42)	5(4.17)	4(5.19)	20(8.58)	30(6.99)		
운수 및 창고업	2(1.24)	6(5.00)	3(3.90)	2(0.86)	11(2.56)		
정보통신업	5(3.11)	1(0.83)	2(2.60)	5(2.15)	9(2.10)		
건설업	5(3.11)	-	-	5(2.15)	5(1.17)		
금융 및 보험업	-	-	-	-	-		
숙박 및 음식점업	1(0.62)	-	-	1(0.43)	1(0.23)		

주: 국별 전체 수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 포함, 국별 투자자 규모별 합계는 기타 업종 포함, ( ) 안 숫자는 합계 대비 업종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3).

## Plans to Activate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During Putin's Fourth Term—Focusing on High Value-Added Industries

Joungho Park, Seok Hwan Kim, Minhyeon Jeong, Boogyun Kang, Cho Rong Kim, Sergei Sutyurin, Olga Y. Trofimenko, and Irina A. Korgun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4th presidential period of Putin and to seek ways to increase mutual investment. In particular,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f various investment cooperation projects by Russia with other countries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ming to suggest a more practical way to increase Korean investment in Russia.

Chapter 2 focuses on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ussia's investment environment and overseas investment patterns during Putin's 3rd (2012–18) and 4th (2018–) presidential perio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Russia decreased starting from the Ukraine crisis in 2014 (50.5 billion dollars in 2012, 69.2 billion dollars in 2013 to 6.8 billion dollars in 2015). When analyzing the same period by region, European countries are still top-investing countries, although the size of their investments decreased year by year. Other countries except for Europe have similar patterns. Russi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also declined after the

Ukraine crisis in 2014 and in 2018, when Putin's 4th presidential period started. Eventually, the total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crea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low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and changes in the ruble value. However, when analyzing the investment trend by country, except for some Europe countries, the investment volume was maintained at a similar level.

Chapter 3 examines the recent trend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Korea's direct investment to Russia.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M&A and SMEs, market entry via third countries, SMEs' export promotion and low-wage investment, and the proportion of finance and insurance. Direct investment to major emerging countries also showed similar trends. In the case of Russia, it proved difficult to obtain meaningful results due to the absolute reduction in investment size, but the share of investments for entering the market expand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roportion of SMEs has slightly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SMEs remains low among the major emerging countries, it will be necessary to advance the industrial ecosystem of existing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create new markets in the fields of innovation and domestic distribution,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stagnation of Korean investment to Russia. SMEs must play a stronger role in this process.

In Chapter 4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Korea's FDI with Russia, determining why Korea's FDI with Russia has been relatively poor and offering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in addition to economic

variables, cultur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acted as important determinants in Korea's FDI to Russia during the analyzing period (2000-20). In addition, from an aggregate perspective, the negativ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on Korea's total FDI to Russia was less than expected. Also, the factors that determine FDI we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vestment motive,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size of the investment company. Based on these poi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econd, as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likely to be prolonged,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cooperate under these condition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fundamental ways to expand FDI to Russia.

Chapter 5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n the 4th presidential period of Putin, and suggests measures to revitalize investment focusing on high value-added industries. Korean investment in Russia is focused on automobiles, home appliances, and food (consumer goods). However, the biggest sector within Russia for investment by European and other foreign companies is natural resources such as energy and metals.

To sum up, Korea and Russia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investment cooperation in the future. First,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in investment fields (energy, logistics, telecommunications, etc.) that Russian and foreign companies are traditionally interested in.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ooperate in the emerging innovative industries. Third, active cooperation plans must be formulated in the strategic industries where Russia has global competitiveness.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ow managem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vestment support program fund by investment rather than loans. Fifth, joint investment should be considered by Korea and Russia for entry into third-country markets. And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seek ways to bypass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solution may be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investment and economic negotiation issue. Therefore, a permanent advisory body for support will be needed.

---

<책임>

**박정호**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전임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現, E-mail: jounghopark@kiep.go.kr)

---

<공동>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現, E-mail: kimsh@kiep.go.kr)

---

**정민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jeong@kiep.go.kr)

---

**강부균**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gkang@kiep.go.kr)

---

**김초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법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crkim@kiep.go.kr )

---

**세르게이 슈트린**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교수  
(現, E-mail: s.sutyryn@hotmail.com)

---

**올가 트로피멘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교수  
(現, E-mail: o.trofimenko@spbu.ru)

---

**이리나 코르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現, E-mail: irina.korgun@yandex.ru)

---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정은미·김종기·이 준·남상욱·이재운·이은창·  
조용원·김양팽·심우중·윤자영·이교은·이자연·전수경

20-02 주요 중소·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정영록·이준엽·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문익준·안치영·유동원·장윤미

20-04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나수엽·박민숙·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김보라·박정후·이평래·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최유정·한하린

20-08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장영신·오태현·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김정곤·김도연·이성희·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예상준·금혜윤·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이형근·이보람·이정은·손원주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곽성일·정재완·이정미·박나연·김미림·이재현·조원득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 · 양평섭 · 정지현 · 현상백 · 연원호 · 최원석 · 양갑용 ·  
이동률 · 임상훈 · 유동원 · 윤종석 · 김정진
-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 · 나승권 · 이재호 · 윤지현 · 김은미
-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 · 안성배 · 김효상 · 김수빈 · 이진희 · 김소영 · 편주현
-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 · 안성배 · 김경훈 · 강은정
-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김혁황
-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 · 이천기 · 이주관 · 김지현 · 정명화
-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오수현 · 박영석 · 이성희 · 김은미
- 20-22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 · 김석환 · 정민현 · 강부균 · 김초롱 · 세르게이 슈트린 ·  
올가 트로피멘코 · 이리나 코르군
- 20-2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 · 양평섭 · 박진희 · 김주혜 · 최지원 · 자오징왕(焦兴旺)
-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 · 광성일 · 광소영 · 박은빈
-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조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 · 최원석 · 김홍원 · 김주혜
-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 · 배찬권 · 이규엽 · 강준구 · 김지현
-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 · 최상엽 · 양다영 · 김유리
-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 · 송원호 · 이진희

-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 · 정재완 · 신민금 · 김제국
- 20-30 FTA 상품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 · 이주관 · 박혜리 · 강유덕
-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 · 이철원 · 이현진 · 정민지 · 문성만
-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 · 홍성우 · 김진오 · 김종혁 · 남지민
-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 · 안성배 · 채희율 · 이영섭 · 문우식

■ 2019년

-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울 · 정지선 · 허윤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 김은미
-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 현
-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 19-11 원청-하청간 거래 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강구상·권혁주·문성만
-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정민현·강부균·정동연·김초롱·제성훈·세르게이 루코닌·예카테리나 자클라즈민스카야
-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윤여준·권혁주·정민철·김유리·황운중·김경훈·김원기
-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김정곤·한형민·정재완·이정미·김제국·윤지현
-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유럽·일본을 중심으로-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강구상·김종혁·오탈현·이현진·손원주
-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강민지·이정은·이용규
-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오수현·박혜리·김민성·황운중
-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배찬권·김영귀·금혜윤·엄준현
-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훈·김홍원·최지원·김주혜·최재희
-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복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이철원·박민숙·전봉걸
-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이효진·조고운·오윤미
-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이동은·이진희
-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양다영·강은정
-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한민수·김수빈·이진희
-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한민수·김혁황·최혜린·박단비·김지수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I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Plans to activate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during Putin's fourth term-Focusing on high value-added industries

Joungho Park, Seok Hwan Kim, Minhyeon Jeong, Boogyun Kang, Cho Rong Kim, Sergei Sutyryn, Olga Y. Trofimenko, and Irina A. Korgun

이 연구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 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신북방정책 추진과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과 투자유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정책 수립과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